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성북문화원

세월 속에서 찾아낸 지명과 유래



우리는 지금, 갈등과 경쟁의 20세기의 해거름에 서서 다극적 문화의 조화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디딤돌로써 우리 지역의 삶의 모습과 그 변화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란 바로 한 나라나 민족의 역사적 소산이자 삶의 양식이며, 행위의 준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성북구는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 그리고 조상의 얼이 깃든 많은 문화재와 유적지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로서, 조선시대 1396년(태조 5) 한성부 동부의 송인방·인창방에 속하여 도성 밖에 소재하였음에도 '성저십리'라 하여 도성 안과 다름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대도시로서의 우리 지역은 1949년 동대문구와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합하여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이후 50여 년간 서울이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외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의미를 두고 이름지었던 마을과 고개,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길 이름 등이 오랜 세월과 함께 일부는 지명이 바뀌기도 했고, 또 일부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북문화원이 개원 2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거나 변형되어 전승되던 지명과 유래들을 다시 찾아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집필에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내 고장의 지명과 유래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8. 12.

성북문화원장 구두희



자랑스런 성북의 문화 유산

내년으로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북구는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양 도성 북동쪽에 위치하여 멀리 백제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수많은 역사와 전통이 축적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이토록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 선조들의 삶을 지탱해 온 지역이기에 서울 성곽에 쌓여 있는 성벽들에서부터 곳곳에 흩어져 있는 풀뿌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의 땀과 숨결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시기를 겪으면서 소중한 문화 유산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잊혀져 갔으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신 문화 또한 제대로 계승치 못함으로써 가치관 혼란 등으로 인심이 날로 각박해져 감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때 성북문화원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지명과 전설들을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곁들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한 향토사료집 제2권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고장의 뿌리와 풍습,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문화 유산과 우리 고장을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자료와 창작 활동의 소재로 활용되고, 또한 우리 손으로 정성들여 가꾸어 온 내 고장의 문화 유산이 널리 소개됨으로써 전통 깊은 고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성북문화원이 제3, 제4의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여 내 고장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향토문화를 새롭게 조명하여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문화의 매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구두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998. 12.

성북구청장 **진영호**



바르게 알리는 성북구의 전통

평소 존경하는 성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책에 축사를 올리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이 책은 잊혀져 가는 우리 성북구의 전통과 유래를 쉽게 풀이하여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옛것을 너무 잊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부터 우리 성북은 문화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성북구 석관동에는 사적 제204호로 지정된 의릉이 있고, 성북초등학교 옆에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를 모시던 선잠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제378호로 지정된 고종의 아들 의친왕이 살던 별궁의 정원인 성락원이 성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최초의 민간 박물관인 간송미술관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북한산 연봉 아래 정릉천이 흐르는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구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북구는 옛부터 산세 좋고 인심 좋으며 문화와 전통이 자리잡고 있는 고장이었습니다.

뒤늦은 감도 있지만 이 책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의 발간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문화의 고장 성북구의 전통을 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옛것을 올바르게 익히며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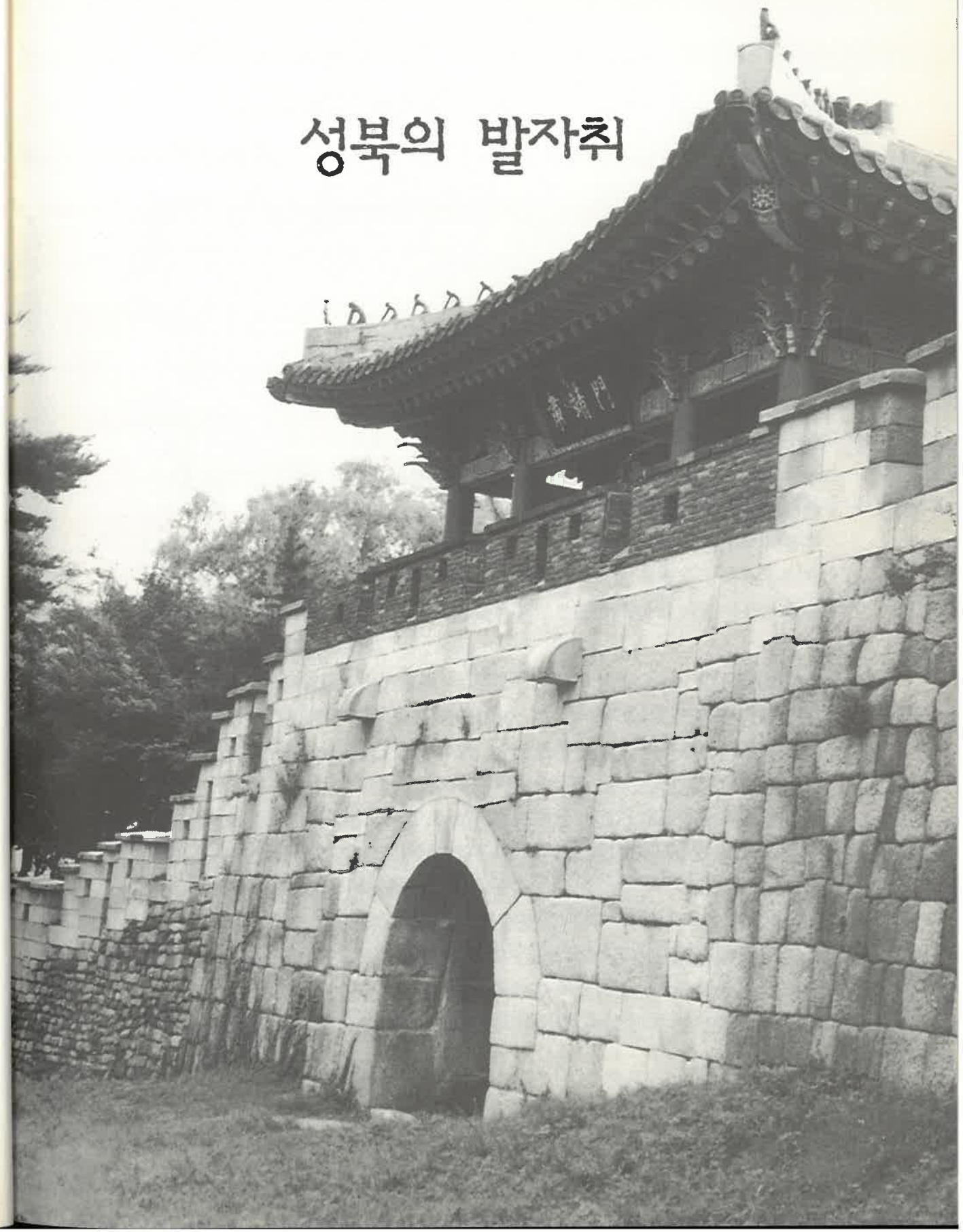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애써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더욱 발전되는 성북구가 되도록 우리 구의원 29명 모두는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8. 12.

성북구의장 **나광수**

발간사	성북문화원장 구두희	3
축사	성북구청장 진영호	4
축사	성북구의장 나광수	5
성북의 발자취		9
도심 속의 무릉도원, 성북동		27
해화문 밖 길마을, 동소문동		55
신선들의 놀이터, 삼선동		71
서울 동북 교통의 요지, 동선동		87
돌산과 되녀미고개, 돈암동		99
편안한 바위에 자리한 역사의 동네, 안암동		115
단종비의 애환 어린 동망봉과 탑골, 보문동		135
북한산 자락의 능마을, 정릉동		147
긴 골짜기를 품은 삼태기, 길음동		171
북바위 마을, 종암동		181
반달모양 산등성이에 자리한 다릿골, 상월곡동과 하월곡동		197
장위산인의 은거지, 장위동		213
한양의 동쪽 경계 돌곶이능마을, 석관동		223

성북의 발자취



성북의 발자취

성북구는 서쪽으로 종로구, 남쪽으로 종로구와 동대문구, 동쪽으로 중랑구와 노원구, 북쪽으로 강북구와 경기도 고양시와 접하고 있다. 특히 종로구와는 북한산성의 대남문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고, 보현봉 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조선시대의 서울 도성(都城)의 동쪽 울타리를 경계로 나누어진다. 성북구의 이름은 조선시대의 수도였던 한양 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골짜기 성북동에서 명명된 자연적·입지적인 지명이다. 성북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의 서울 성곽에서 유래된 유서 깊은 이름인 셈이다.

조선시대의 서울이었던 한양(漢陽)의 행정구역은 도성 안과 성 밖 10리(城底十里)까지 미쳤다. 한양이라는 이름도 한수(漢水, 한강)의 북쪽[陽]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의 서울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한강 북쪽의 대부분의 지역을 포괄한 셈이다. 조선시대에 서울의 행정구역은 서쪽으로는 사천(沙川, 모래내), 북쪽으로 북한산, 동쪽으로 중랑천, 남쪽으로 한강을 경계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릉동 403-6번지 길가에 있었다고 하는 '성저오리 정계비'(사적 제110호)도 성 밖 10리에 미쳤던 한성부의 행정구역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고려시대의 사찰인 미타사와 보문사가 보문동에, 경국사가 정릉동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성북 지역에 마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성북구는 조선시대에는 도성의 북문인 숙정문과 동소문인 혜화문 밖에 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으로는 동부(東部) 숭신방(崇信坊)과 인창방(仁昌坊)의

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울의 행정조직은 부(部)－방(坊)－계(契)로 이루어졌다. 한성부 행정구역의 조직은 가장 상위에 중부·동부·남부·서부·북부의 5부가 있고, 조선 후기에는 5부 밑에 계(契)가 있었다. 계의 밑에는 동(洞)이 있었고, 동 아래에 통(統)이 있었다. 부(部)의 책임자는 영(令), 방(坊)의 책임자는 관령(管領), 계(契)에 존위(尊位)·중임(中任), 동(洞)에 동장(洞長), 통(統)에 통수(統首)가 있어 행정을 담당하였으니,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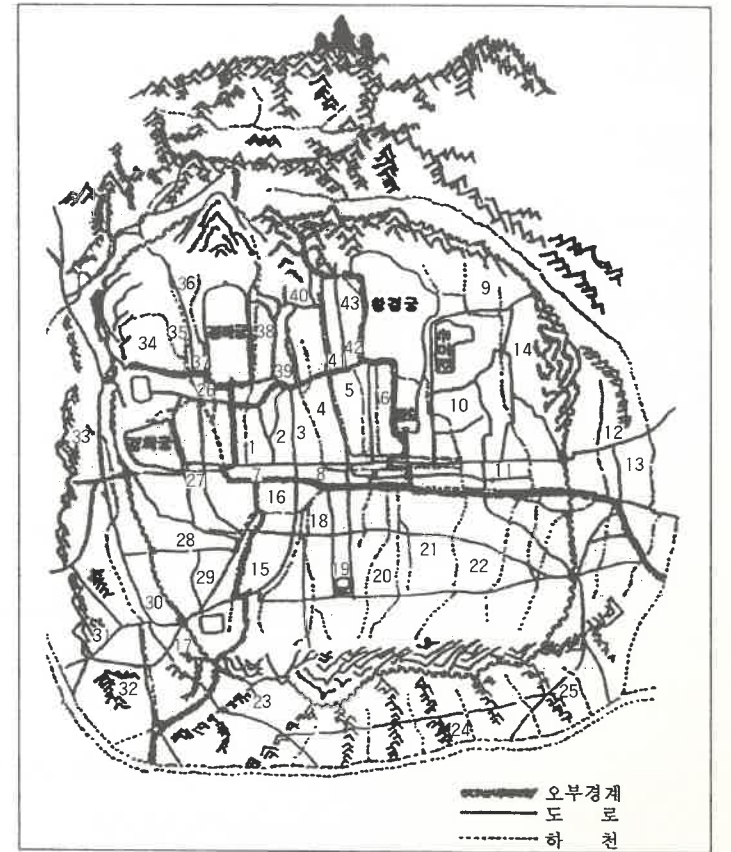
성저오리 정계비

부(部) ⇒ 방(坊) ⇒ 계(契) ⇒ 동(洞) ⇒ 통(統) ⇒ 가(家)
 영(令) 관령(管領) 존위(尊位) 동장(洞長) 통수(統首)
 중임(中任)

조선을 건국한 후 3년여에 걸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양으로 천도한 것은 1394년(태조 3) 11월 29일이었다. 1395년 6월에는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고, 1396년 4월에는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部) 52방(坊)으로 편제하였다. 52방은 도성의 안쪽에 대부분 설치되었고, 성 밖에는 서부에 반송방과 반석방, 동부에 숭신방과 인창방, 남부에 예성방과 성신방 등 6개 방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세종대에 서부의 영견방(永堅坊)·인지방(仁智坊)·취현방(聚賢坊)의 3개 방(坊)이 폐지됨으로써 49개 방이 되었으며, 17세기까지 49방 체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부터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성 안과 성 밖 지역인 성저십리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5부(部)와 방제(坊制)는 도성 안에 설치되었고, 성 밖 성저십리 지

- | | | |
|------|---------|---------|
| 〈中部〉 | 1. 澄清坊 | 2. 壽進坊 |
| | 3. 堅平坊 | 4. 寬仁坊 |
| | 5. 慶幸坊 | 6. 貞善坊 |
| | 7. 瑞麟坊 | 8. 長通坊 |
| 〈東部〉 | 9. 崇教坊 | 10. 蓮花坊 |
| | 11. 彰善坊 | 12. 崇信坊 |
| | 13. 仁昌坊 | 14. 建德坊 |
| 〈南部〉 | 15. 好賢坊 | 16. 廣通坊 |
| | 17. 明禮坊 | 18. 太平坊 |
| | 19. 薰陶坊 | 20. 誠明坊 |
| | 21. 樂善坊 | 22. 明哲坊 |
| | 23. 屯之坊 | 24. 漢江坊 |
| | 25. 豆毛坊 | |
| 〈西部〉 | 26. 積善坊 | 27. 餘慶坊 |
| | 28. 皇華坊 | 29. 養生坊 |
| | 30. 盤石坊 | 31. 西江坊 |
| | 32. 龍山坊 | 33. 盤松坊 |
| 〈北部〉 | 34. 仁達坊 | 35. 俊秀坊 |
| | 36. 順化坊 | 37. 義通坊 |
| | 38. 觀光坊 | 39. 安國坊 |
| | 40. 鎮長坊 | 41. 嘉會坊 |
| | 42. 陽德坊 | 43. 廣化坊 |



〈그림 1〉 조선 후기 한성부 5부의 경계와 방명(坊名)

역은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61년(세조 7)에 이르러 성저십리 지역을 가까운 5부에 편입하였으며, 성북구 지역도 이 때 5부에 편입되었다. 성저십리 지역의 5부 편입은 성저십리 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사무의 증가, 부역과 같은 인력 동원의 필요성, 행정의 일원화 등의 필요에서 취해진 조치였을 것이다.

성북 지역이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1395년 자신의 능지로 안암동을 지목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1396년(태조 5) 8월에 제2왕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세상을 떠나자 이틀 후인 15일에 태조가 능터를 친히 보러 안암동으로 나갔으며, 그 달 21일에 다시 안암동으로 나가 능터를 정했다. 그러나 이틀 날 땅을 파 보니 뜻밖에 물이 솟아나서 중지하고 그 다음 날 취현방(聚賢坊), 즉 지

금의 중구 정동으로 나가서 능터를 정하였다. 태종대에 이르러 1409년 2월에 정릉을 지금의 정릉동으로 이장을 하면서 성북구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조선의 제20대 왕인 경종(景宗)이 1722년 3월 26일에 장원서(掌苑署) 및 내국(內局)에서 새로 읍원(栗園)을 정하여 안암동(安岩洞)·제기(祭基)·청량(淸涼)·고암(鼓岩)·석관(石串) 등의 마을을 모두 소속시켰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통해, 조선 후기에 안암동·종암동·석관동 등에 읍원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이 당시까지 삼림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서 1724년에 경종이 승하하자 경종 능인 의릉(懿陵)을 석관동의 천장산에 마련함으로써 지금의 성북 지역에는 정릉에 이어 왕릉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 두 능은 한성부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능으로서 지금은 성북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한성부의 행정체제도 몇 차례 변화하였다. 영조대에 이어 18세기 후반 정조대에는 동부에 경모궁방(景慕宮坊)을 신설한 데 이어, 1788년에도 행정구역의 큰 변화가 있었다. 각 부의 방명(坊名)과 계명(契名)을 새로 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유계무방(有契無坊)’ 지역과 ‘유방무계(有坊無契)’ 지역을 다른 행정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계는 있으나 소속 상위 행정구역인 방(坊)이 없던 ‘유계무방’ 지역들은 인근 방에 소속시켰다. 동부의 동대문 밖 지역 가운데 중랑포에 이르는 동남지역 11계를 인창방에, 지금의 우이동·번동에 이르는 동북지역 10계를 숭신방에 소속시켰다. 또 북부의 성밖 지역에는 상평방(常平坊)·연은방(延恩坊)·연희방(延禧坊)의 3개 방(坊)을 신설하고, 지금의 세검정 지역의 6계(契)를 상평방에, 홍제원에서 갈현동에 이르는 지역의 8계를 연은방에, 수색·망원동·여의도에 이르는 16계를 연희방에 소속시켰다. 즉 동부의 홍인문 밖 역일계(驛一契)·역이계(驛二契)·사계(私契)·마장리계(馬場里契)·답십리계(踏十里契)·전농리계(典農里契)·청량리계(淸涼里契)·제기리계(祭基里契)·중랑포계(中浪浦契)·장위리계(長位里契) 등의 10계는 인창방(仁昌坊)에 소속시키고, 신설계(新設契)·안암리계(安岩里契)·어창계(御倉契)·종암리계(鍾岩里契)·가오리계(加五里契)·수유촌계(水踰村契)·능동계(陵洞契)·사아리계(沙阿里契)·번리계(樊里契)·우이리계(牛耳里契) 등의 10계는 숭신방(崇信坊)에 소속시켰다.

이후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 없이 1894년까지 유지되었다. 다만 계(契)는

〈표 1〉 한성부 행정구역의 변화(坊, 契)

자료 5부	1396 태조 5	世宗實錄 地理志	東覽, 東 國輿地志*	古地圖帖 18C 전반	守城冊子 1751	字恤典則 1783	戶口總數 1789	六典條例 1865	1894 고종 31
중부	坊 8 契	8	8	90	8 91	8 91	8 91	8 91	8 56
동부	坊 12 契	12	12	38	6(2) 39	6 41	7 41	7(2) 43	7(2) 20(5)
남부	坊 11 契	11	11	68	11(3) 71	11 71	11 71	11(3) 71	11(3) 100(18)
서부	坊 11 契	8	8	90	9(3) 91	9 91	9 91	9(3) 91	9(4) 70(24)
북부	坊 10 契	10	10	39	9* 36	9 12(29)	12 44	12 44	12(3) 42(29)
합	坊 52 契	49	49	325	43(8) 328	43 335	47 338	47(8) 340	47(12) 288(76)

* 東覽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을 지칭하며, 『東國輿地志』(17세기 후반)는 반계 유형원이 편찬한 지지(地志)이다.

미약하나마 그 숫자가 증가되어 18세기 초에 325계였으나, 1751년에는 328계, 1783년에 335계, 1789년에 338계, 1865년에 340계가 되었다(표 1).

1751년(영조 27)에 반포된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175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는 5부 43방 328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북구 지역에 속하는 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숭신방(崇信坊)에 속해 있었다. 같은 책에 수록된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에도 사아리(沙阿里)·안암동(安岩洞)·장위리(長位里) 등의 이름이 보인다.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전국 인구 통계인 『호구총수(戶口總數)』에도 서울의 행정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수성윤음』에 비해 어창계·종암리계 등의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마을 이름이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어창계(御倉契)는 영조대에 어영청의 북창(北倉)을 설치함에 따라 생긴 마을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66년(고종 3)에 편찬된 『육전조례』에는 월곡리계가 새로 증설되었음이 나타나 있다. 18~19세기의 문헌 가운데 성북구 지역의 행정지명이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에 기록된 성북구 행정구역명

- 동부 { 송신방(城外) : 송신방계(崇信坊契) · 능동계(陵洞契) · 가오리계(加五里契) ·
장위리계(長位里契) · 안암계(安岩契) · 신설계(新設契)
인창방(城外) : 중랑포계(中浪浦契) · 사아리계(沙阿里契)

•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성북구 행정구역명

- 동부 { 송신방(城外) : 송신동계(崇信洞契) · 신설계(新設契) · 능동계(陵洞契) · 가오
리계(加五里契) · 장위리계(長位里契) · 안암동계(安岩洞契) ·
중암리계(鍾岩里契) · 어창계(御倉契) · 사아리계(沙阿里契)
인창방(城外) : 중랑포계(中浪浦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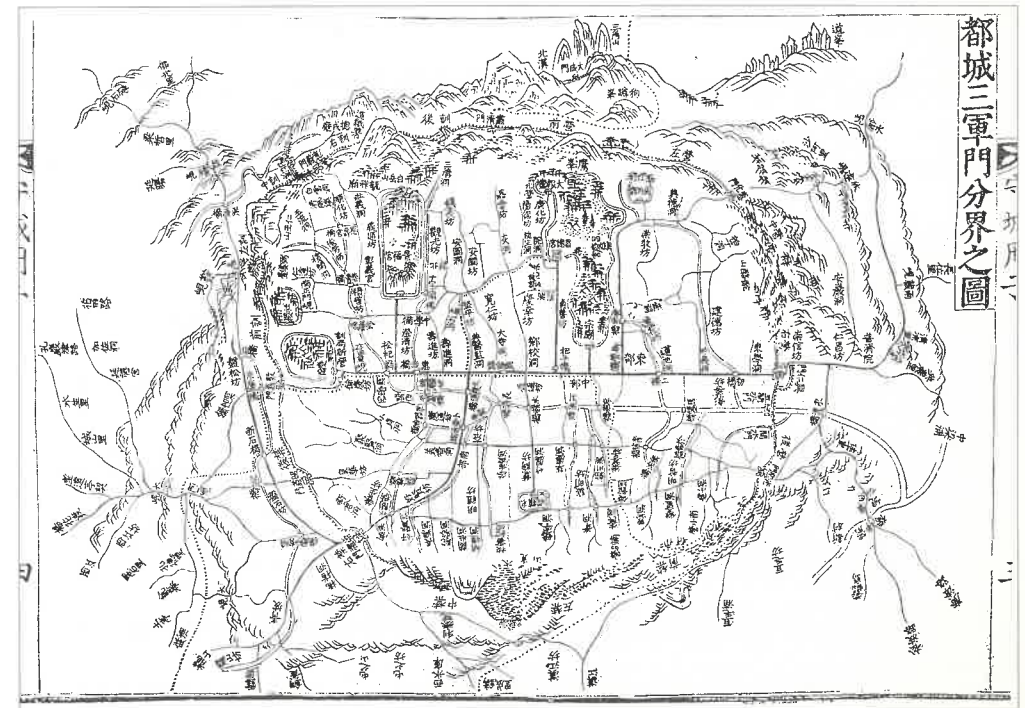
• 『육전조례(六典條例)』에 기록된 성북구 행정구역명

- 동부-송신방(城外) : 송신동계(崇信洞契) · 신설계(新設契) · 능동계(陵洞契) · 가오
리계(加五里契) · 장위리계(長位里契) · 안암동계(安岩洞契) ·
중암리계(鍾岩里契) · 어창계(御倉契) · 사아리계(沙阿里契) ·
월곡리계(月谷里契)

1910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한성부(漢城府)의 명칭을 경성부(京城府)로 개칭하였다. 10월 1일자 총독부령 제6호로 '도의 위치와 관할구역', 제7호로 '부·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공포하였는데, 정부 직할이었던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관할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에 부(部)·면(面)제를 도입, 성 안에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의 5부를 두고, 성 밖에는 용산·서강·송신·두모·인창·은평·연희·한지면 등 8면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보면 경성부의 5부 8면 661동리 중 지금의 성북 지역에 해당 하는 곳으로 송신면의 40개 리 중 15개 리, 인창면 40개 리 중 4개 리가 포함되어 있다. 19세기 후반 『육전조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중암동·안암동·월곡동이 각각 두 마을로 분화되고, 원리·궁리·우산각리·돈암리·삼선평·성북동·손가정·



〈그림 2〉 도성삼군문분계지도

* 『어제수성윤음(御製守城綸音)』(175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사아리(沙阿里)·안암동(安岩洞)·장위리(長位里) 등의 이름이 보인다.

청수동·장등리·석관리 등이 공식적으로 새로 등장하였으며, 사아리가 미아리로 이름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능동계·가오리계·어창계 등의 마을 이름은 사라졌다.

- 경성부 송신면 : 대중암(大鍾岩) · 중암(鍾岩) · 원리(園里) · 궁리(宮里) · 안암상리(安岩上里) · 안암하리(安岩下里) · 우산각리(雨傘閣里) · 돈암리(敦岩里) · 삼선평(三仙坪) · 신설계(新設契) · 성북동(城北洞) · 소정릉동(小貞陵洞) · 손가정(孫哥亭) · 청수동(淸水洞) · 미아리(彌阿里)
- 경성부 인창면 : 월곡상리(月谷上里) · 월곡하리(月谷下里) · 석관리(石串里) · 장위리(長位里)

〈표 2〉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성북 지역의 변화

변경 전		변경 후	
경성부 송신면	성북동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신설계·탑동·우선리·안암상리		신설리
	안암리·부석리·궁리·원리		안암리
	대종암·소종암		종암리
	미아리·불당동		미아리
	돈암리·삼선평		돈암리
	대정릉동·소정릉동·청수동·손가정		정릉리
경성부 인창면	장위리		장위리
	석관리		석관리
	상월곡리		상월곡
	하월곡리		하월곡

자료: 越智唯七 편찬,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조선총독부는 1914년에 대폭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부·군·면을 통·폐합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행정구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그것은 경성을 비롯한 12개 도시 지역에 부제(府制)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새로운 부(府)는 지방행정상 순수한 도시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초단위를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이후 서울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던 성 밖의 8개 면 중 용산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경기도 고양군(高陽郡)에 편입되고, 도성 안쪽 지역과 용산 지역만 경성부가 되었다. 지금의 성북구 지역에 있던 송신면과 인창면도 송인면으로 병합되어 고양군에 포함되었다. 이 때 동리의 폐합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시가지 구역만으로 축소되었던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다시 넓어진 것은 1936년의 구역 확장에 의해서였다. 고양군에서 경성부로 편입된 지역은 성북리·돈암리·신설리·안암리·종암리·정릉리의 일부이고, 고양군 송인면에 그대로 남아 있던 지역은 정릉리·미아리·장위리·석관리·상월곡리·하월곡리 등이었는데, ○○리 대신에 일본식 동명인 ○○정(町)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동부출장소의 관내에 속하였다.

1943년 4월 경성부에 구제(區制)를 실시하게 되자 동부출장소 관할지역은 동대문

구와 성동구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돈암정·종암정·안암정 등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던 13개 지역은 동대문구로 되고 금호정·신당정 등의 9개 동은 성동구에 소속되었다. 광복이 되어 1946년에 일본식 명칭인 정·정목 등이 우리말인 동(洞)·가(街) 등으로 바뀌었다.

1949년 8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성북구는 194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성북구라는 명칭은 이 지역이 서울의 도성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동대문구에 속했던 돈암동과 안암동, 종로구에 속했던 성북동,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에 속했던 석관리·장위리·우이리·수유리·상월곡리·하월곡리·미아리·정릉리가 성북구를 이루었다. 1955년 4월 18일에는 서울시의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동회 제도가 폐지되고 동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큰 변동이 있어 성북구의 면적과 인구의 변동을 가져왔다. 첫째는 1963년 1월 1일에 있었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의 편입이다. 이에 의해 창동리·월계리·공릉리·하계리·중계리·상계리·도봉리·방학리·쌍문리가 성북구에 소속되었다. 둘째는 1973년 7월 1일 성북구에서 21개 동이 분리되어 도봉구로 나뉜 것이다. 그로 인해 24개의 동이 되었으나 하월곡3동이 설치되어 25개의 동으로 되었다. 1975년 10월 1일에는 성북구의 석관동·종암동·안암동 4가·안암동 5가의 각 일부가 동대문구에, 성북구 정릉동의 일부와 하월곡동의 일부가 도봉구에, 동대문구의 보문동 1가와 보문동 2가·보문동 3가·보문동 4가·보문동 5가·보문동 6가·보문동 7가가 신설동의 각 일부와 함께 성북구에 편입되었으며, 또한 도봉구 미아동의 일부가 성북구에 편입되어 32개의 동이 되었다.

한편 동장 관할구역인 행정동의 변천을 살펴보면, 1977년 9월 1일에는 장위1동과 장위2동이 나뉘어 장위1동·장위2동·장위3동으로, 안암1동과 안암2동이 합쳐져 안암동으로 바뀌어 32개의 동이 되었다. 1980년 7월 1일에는 삼선3동과 보문2동의 동사무소가 폐지되어 30개 동이 되었다. 현재 성북구에는 성북1동·성북2동·동소문동·삼선1동·삼선2동·동선1동·동선2동·돈암1동·돈암2동·안암동·보문동·정릉1동·정릉2동·정릉3동·정릉4동·길음1동·길음2동·길음3동·종암1동·종암2동·월곡1동·월곡2동·월곡3동·월곡4동·상월곡동·장위1동·장위2동·장위3동·석관1동·석관2동 등 30개의 동이 있다.

서울에서 가장 변화한 종로구와 인접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도심의 더러움과 혼잡함에서 물러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예로부터 성북구는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기로 소문이나 도성 내의 사람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다. 특히 성북 지역은 평지가 적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지가 많아 산의 자태가 수려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뒤에 이 지역을 채석장으로 유명하게 만든 자연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성북동·정릉동 일대의 북한산과 고려대학교 뒤의 개운산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고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을 품은 정릉산이 정릉동에 있으며, 낙산이 종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산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기 마련으로 성북천(안암천)과 정릉천 및 그 지류들이 흘러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이루었는데, 이 중 특히 성북동 일대는 소나무와 떡갈나무·복숭아나무·앵두나무가 많기로 유명하였으며, 이들이 성북천의 아름다운 물길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서울의 명소였다.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도 “필운대 살구꽃, 북둔의 복숭아꽃, 흥인문 밖 버들, 천연정 연꽃과 삼청동·탕춘대의 수석(水石)에 놀이하고 시 짓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들었다”고 하여 일찍이 성북 지역이 서울의 명소로 손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사대문, 즉 남대문·동대문·서대문·북문 중 가장 익숙하지 않은 대문이 북문이다. 이 북문의 이름이 숙정문인데, 조선시대에 거의 단혀져 있던 문이었다. 그 문이 열려 길이 나면 그 길이 곧 사소문 중의 하나인 서북쪽의 자하문으로 난 길과 함께 임금의 거처인 경복궁의 두 팔을 자르는 구실을 한다고 당시의 풍수가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음문이라 하여 이 문을 열어 놓으면 도성 내의 여자들의 행실을 음탕스럽게 한다고 하여 가뭄 때를 제외하고는 잘 열어 놓지 않았다. 19세기의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이 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서울의 숙정문을 항상 닫아 두는 것은 이 문을 열어 놓으면 장안의 부녀자가 음란해지므로 항상 이 문을 닫아 두었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숙정문이 음방, 즉 여자의 방위에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북은 음이요, 남은 양인 까닭에 가뭄 때는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한다. 이에 관련해 가뭄이 심하면 숙정문을 열고 남대문을 닫는 풍속이 1416년(태종 16)부터 있었다.

그러니 다른 삼대문 밖에는 마을과 저자가 생겨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어도 이 북문 바깥쪽 오늘의 성북구는 암자와 바위, 구릉과 산으로 오래 머물러 있었다. 또한 성북구 지역의 4분의 3쯤은 산과 구릉이며, 흙이 ‘마사’라고 하는 모래흙이어서 농사를 짓기에는 알맞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이 비록 서울의 인후목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조선시대 조정에서는 어영청의 북둔을 이곳에 두어 거기에 소속된 군인과 살 수 있도록 한 무리의 민간인들을 이주시켰다.

성북구하면 서쪽 지역을 울타리로 감싸는 역할을 했던 서울 성곽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성곽은 조선시대의 석축성곽으로 둘레가 약 18km이며 사적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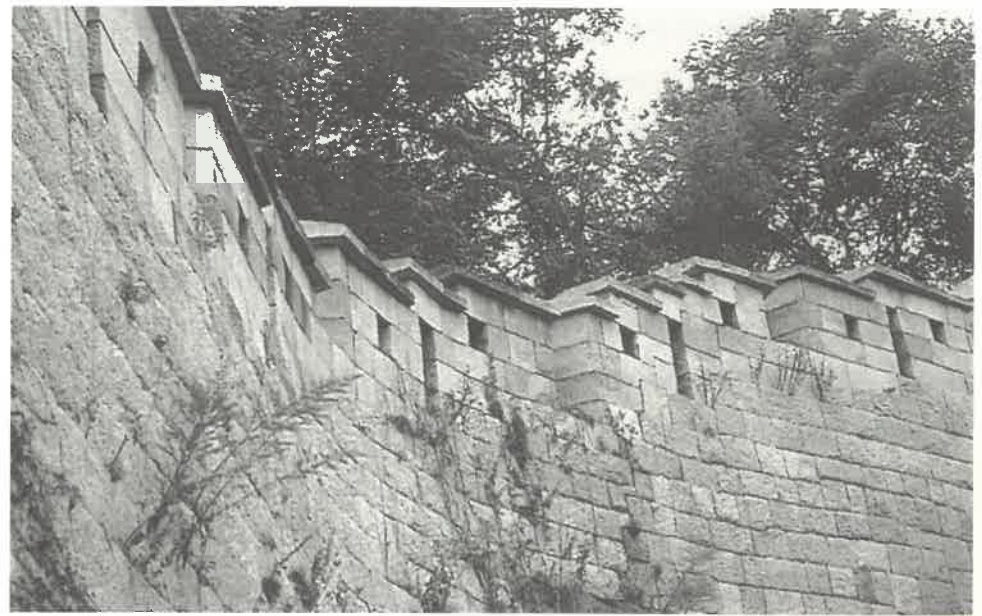
조선 건국 초 태조는 한양 천도를 위하여 1차적으로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다음 1395년(태조 4) 9월 도성축조도감을 설치하고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터를 측정·조사하게 하였다. 정도전은 백악·인왕·목멱·낙산에 올라 실측하여 네 개의 산을 연결하는 5만 9,500척의 성터를 결정하였다. 이듬해 정월부터 전국의 민정(民丁) 11만 8,000명이 동원되어 600척을 한 단위씩으로, 축성구역을 97구로 나누어 정하였다. 구역마다 천자문의 자호를 표시하여 백악산 동쪽에서부터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낙산·목멱산(남산)·인왕산을 거쳐 백악산 서쪽에 이르러 조자(弔字)까지 구획하였다. 공사는 매 글자 구간 600척을 6등분하여 각 공사 구간에 판사·부판사·사(使)·부사·판관 등 12명씩을 임명하여 민정을 독려하여 견고하게 축성하도록 책임을 맡겼다. 책임진 부분에 해당하는 성벽에 관직과 군명을 새겨 넣어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높고 험한 산에는 15척 높이의 돌로 쌓게 하였는데 총 석축 길이는 1만 9,200척이었다. 석재는 자연석을 약간씩 다듬어 쌓되 기초석은 길고 큰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다. 평지는 흙으로 쌓았는데 너비는 아랫 부분이 25척, 윗 부분이 18척, 높이 25척이다. 그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는 성토관축을 하였는데 토축의 둘레는 4만 3,000척이었다. 동대문 부근 청계천에 있는 수구에는 홍예(虹霓)를 쌓고 그 좌우에는 석성을 축조하였다. 홍예의 높이는 16척, 석성 등을 포함한 길이는 1,050척이었다. 이 해 가을 8만 명의 장정을 다시 동원하여 토축 부분을 석축으로 고치고 장마에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였다. 대략의 공사는 이렇게 끝났지만 남대문은 1396년경에, 동대문의 웅성은 이듬

해 4월에야 완성되었다.

1422년(세종 4)에 이 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여 토축 부분을 모두 석축으로 바꾸어 높여 쌓고 석재를 약 2:1 길이 비율의 장방형으로 다듬어 쌓았다. 또한 여장(女牆)도 쌓았고 수문도 2개 더 만들었다. 전국에서 32만 2,000명의 역부가 동원된 이때의 개축은 도성은 둘레 8만 9,610척, 높이 40척 2촌, 여장 4,664첩, 치성(雉城) 6군데로 되었으며, 곡성 1군데, 성랑 15군데를 만들었다. 그 뒤 1426년 수성금화도감을 두고 성문과 성벽을 보호하게 하였고, 1447년 남대문을 증수하였다. 또한 1451년(문종 1) 1월부터 경기·충청의 수군 3,000명으로 성벽을 수축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함락되어 왜군에 의해 왜루가 축조되고 이듬해에 수복하여 왜루를 철거하고 그 돌로 다시 수축하였다. 그 뒤 1616년(광해군 8) 부분적인 수축을 하였으며, 1704년(숙종 30) 3월부터 약 5년에 걸쳐 오군영에 분담하여 둘레 9,975보, 성첩 7,081개의 대대적인 수축을 하였다. 또한 1743년(영조 19)에 부분 보수를 하고 성첩도 회분으로 단장하였으며, 1869년(고종 6)에 동대문의 개축을 마지막으로 도성의 수리는 중단되었다. 이처럼 서울 성곽은 태조 때 축조되어 세종 때 개축되고 숙종 때의 수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1898년(광무 2) 10월에 남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처음으로 가설되어 1899년 5월 17일에 개통하면서 동대문과 서대문 부근의 성곽 일부를 철거함으로써 도성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1907년(융희 원년) 7월에는 일본 황태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남대문 북쪽 성벽을 철거하여 성 내외로 통하는 새 도로를 만들었다. 일본은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성벽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908년 3월부터 동대문 북쪽 성벽과 동대문 남쪽 5간수문, 남대문 남쪽 성벽의 철거에 착수하고자 했다. 이는 요충인 성벽을 모두 철거하려 한 것이었으나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성벽처리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내부의 성방국과 토목국이 이를 이관받아 그 해 9월 서대문 부근의 성벽 77칸과 남대문 부근의 성벽 77칸이 각각 철거되고 말았다.

1907년 남대문 성벽의 일부 철거로 시작된 일본의 성벽 철거는,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후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915년 일제는 근대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성지구역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전통적인 도시구조를 파괴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성북구와 종로구를 분할하는 성벽은 많은 훼손을 당해 성북구의 경우



성북구를 감싸고 있는 서울 성곽

혜화문에서 성북동으로 넘어오는 길을 내기 위해 성벽을 허물었으며, 특히 경신중·고등학교 교사 후면부터 동소문까지는 주택을 마구 건립하여 도로를 내고, 심지어 주택의 축대와 담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소문에서부터 삼선동 1가까지의 성벽은 성첩이 거의 남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가 허물어져 아이들이 넘나드는 정도였다.

광복 후 1963년에 서울시는 인왕산 방면과 북악산의 석축을 보수하였다. 또 1975년부터는 서울 성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복원계획이 진행되었다. 서울 성곽의 총연장 1만 8,127m 중 1만 1,424m는 그 유적이 남아 있고, 6,703m는 멸실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성곽복원사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 1975~1976년 사이에 광희문·숙정문의 두 성문이 복원되었으며, 1976년에는 다시 창의문 위쪽에서 숙정문 부근에 이르는 삼청지구의 성곽 1,994m와 숙정문 부근에서 혜화문 쪽으로 연결하는 성북지구의 성곽 1,430m도 복원되었다. 1996년에는 혜화문의 복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원 공사에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산일된 원석을 찾아 끼우고, 원석이 없어진 곳은 새로 돌을 갈고 다듬어서 성벽과 여장 등을 모두 원형대로 복원하기에 힘을 기울인 것으

로, 복원과 함께 일대의 경관이 크게 새로워졌다.

1930년대에 성북동에서 살았던 소설가 이태준은 성북동 자신의 집에서 바라 본 서울 도성의 성벽에 대한 감회를 「성(城)」이라는 수필로 남겼다.

아침마다 안마당에 올라가 칫솔에 치약을 묻혀 들고 돌아서면 으레 눈은 건너편 산마루에 끌리게 된다. 산마루에는 산봉우리 생긴 대로 울명줄명 성벽이 솟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여 있다. 솟은 성벽은 아침이 첫화살을 쏘는 과녁으로 성북동의 광명은 이 산상의 옛 성벽으로부터 퍼져 내려오는 것이다. 한참 쳐다보노라면 성벽에 드리운 소나무 그림자도, 성(城)들 하나하나 사이도 뻗어 드러난다. 내 칫솔은 내 이를 닦다가 성돌 틈을 닦다가 하는 착각에 더러 놀란다. 그러다가 찬물에 씻은 눈으로 다시 한 번 바라보면 성벽은 역시 조광보다는 석양의 배경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을 느끼곤 한다.

저녁에 보는 성곽은 확실히 일취 이상의 것이 있다. 풍수에 그을린 화강암의 성벽은 연기 어린 듯 자욱한데 그 반허리를 꿰어 비낀 석양은 햇빛이 아니라 고대 미술품을 비추는 환등빛인 것이다.

나는 저녁 먹기가 아직 이른 때면 가끔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성 터진 고개에서 백악순성로를 한참씩 올라간다. 성벽에 뿌리를 박고 자란 소나무도 길이 넘는 것이 있다. 바람에 날려온 솔씨였을 것이다. 바람은 그 전에도 솔씨를 날렸으련만 그 전에는 나는 대로 뽑아 버렸을 것이다. 지금에 자란 솔들은 이 성이 무용물이 된 뒤에 난 것들일 것이다. 돌로 뿌리를 박고 돌로 맞벽을 쳐올려 쌓은 성, 돌, 모래 헤이듯 해야 할 돌들, 이 돌 수효처럼 그 때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성자성민야라 한 말과 같이 과거 문화물 중에 성처럼 전국민의 힘으로 된 것은 없을 것 같다.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모여든, 방방곡곡의 방언들이 얼마나 이 산속에 소란했을 것이며 돌 다듬는 정 소리와 목도 소린들 얼마나 귀가 아팠을 것인가. 그러나 이제 귀를 밝히면 들려오는 것은 솔 바람소리와 산새소리뿐, 눈을 들어 찾아보면 비치는 것은 다람쥐나 바쁘고 구름만이 지나갈 뿐, 허물어져 내린 성돌에 앉아 들으나, 서서 보나 다른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멀리 떨어지는 석양은 성머리에 닿아선 불처럼 붉다. 구불구불 산등성으로 달려 올라간 성곽은 머리마다 타는 것이, 어렸을 때 자다말고 나와 본 산화(山火)의 윤곽처럼 무시무시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도 잠시까지는 석양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고요히 바

라보면 지나가는 건 그저 바람이요, 구름뿐이다. 있긴 있으면서 아무 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은 생각하면 이런 옛 성만도 아닐 것이다.

뿌리깊은나무에서 발간한 『한국의 발견 : 서울』에는 지도에서 본 성북구를 비둘기의 형상이라고 비유하였다. 한쪽 날개는 북한산과 정릉산에 들러 쳐들고, 다른 한 쪽 날개는 중랑천에 끌려 낮게 드리운 채로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은 돈암동과 종암동·안암동·동선동·보문동·길음동이고, 높게 쳐든 오른쪽 날개는 그 끝을 북한산 봉우리에 두고 흘러내린 듯한 정릉동과 성북동이며, 낮게 드리운 왼쪽 날개는 그 끝이 중랑천에 닿은 석관동·장위동·상월곡동·하월곡동 등이라고 하였다. 날아가는 비둘기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북구는 봉우리와 고개가 많다. 석가봉·형제봉·성덕봉·화룡봉·잠룡봉(이상 정릉동), 구준봉·거수봉(이상 성북동), 옥녀봉(삼전동), 일출봉(종암동), 천장산(석관동) 등 많은 산봉우리가 높고 낮게 서 있으며, 미아리고개·아리랑고개·보토현(성북동)·제터고개(안암동)·장위고개·우장현(상월곡동)·성황당고개(석관동) 등의 고개가 교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성북구의 주요 관광지로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정릉 계곡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이 개발되고 택지화되었으나 아직도 산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성북에는 서울 성곽·북한산성과 같은 방위시설 등의 유적지가 유달리 많다. 그 외에도 조선 제20대 왕인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어씨의 쌍릉인 의릉과 만해 한용운 선생이 머물던 심우장, 조선 말 고종 초에 사용했던 삼군부 총무당,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화강암 곡면에 그려진 보타사 마애불상, 각종 도자기를 전시하게 될 도자기 생활박물관이 있다. 정릉동의 보국사·경국사와 돈암동의 신흥사, 보문동의 미타사·보문사, 안암동의 개운사 등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초기의 사찰과 청룡암·백운암(성북동)·대원암·칠성암(안암동) 등의 작은 절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고미술품 소장자로 유명한 간송미술관이 성북동에 있다.

성북구에는 산업지역으로 꼽을 만한 곳이 거의 없다. 게다가 땅의 4분의 1이 개발제한구역이니 외국의 대사관, 대사관저 및 몇몇의 관공서 말고는 공공시설이라야 대학교 정도만 있는 셈이다. 고려대학교가 안암동에 있고 정릉동에 국민대학교와

서경대학교, 그 옆에 고려대학교 재단의 보건전문대학이 있고, 동선동에 성신여자대학교가, 그리고 하월곡동에 동덕여자대학교, 삼선동에 한성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숫자로 성북구를 한번 보기로 하자. 우리 구의 면적을 보면 24,552,530m²로 대지는 10,333,318m²이며 임야는 8,937,640m², 도로는 2,468,828m², 학교용지는 1,486,430m², 하천은 536,401m² 등으로 1997년 12월 자료에 나타난다. 총 16만 2,586세대의 47만 8,812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개신교 299개, 천주교 7개, 불교 172개, 기타 4개의 종교단체가 있다. 행정동 30곳, 법정동 39곳이며 대학교 7곳, 중학교 15곳, 고등학교 13곳, 초등학교 24곳, 유치원 58곳, 기타 1곳의 교육시설이 있다. 금융기관은 은행 79곳, 새마을금고 29곳이 있으며, 경찰서 2곳, 파출소 36곳, 우체국 16곳, 세무서 2곳, 등기소 1곳, 전화국 2곳, 대사관 22곳, 소방서 1곳의 기타 관공서가 있다. 총 7만 8,821의 주택 중에 단독 54,375, 아파트 12,328, 연립 5,821, 다세대 6,297채가 있으며, 종합병원 1곳, 병·의원 202곳, 특수 병원 1곳, 치과 106곳, 한의원 84곳, 조산소 1곳 등의 의료시설이 있다. 도로 길이는 597,989m로 도로율은 23.5%, 포장율은 96.3%이다.

성북구를 한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이 구는 경관만으로도 서울의 보편 현상인 빈부의 차이를 가장 잘 집약해서 한눈에 보여 준다. 대표적으로 성북동을 보면 한쪽에는 대사관저를 비롯해 재벌들의 궁궐 같은 집이 있으나 바로 옆 골짜기 부근에는 함경북도 북청 사람들이 피난와서 정착한 판자촌이 들어서 있다.

한때 성북구는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와 재래식 화장실이 가장 많은 지역, 주택보급율이 49%이며 아파트는 5%에 지나지 않는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혔던 적도 있다. 그러나 성북구는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한 결과 서울의 25개 구 중에 주거지역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틀이 잡히고 안정된 주거지역이 되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거기능 중심에서 탈피하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995년 당시 8만여 평에 불과하던 상업지역을 15만 평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준주거지역도 8만 5,000평에서 21만 평으로 크게 확대하여 미아사거리·석관사거리 일대 등 6개 지구를 생활권 중심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 있다.

도심 속의 무릉도원

성 북 동



성북동의 발자취

서울 성곽을 서쪽 울타리로 두고 있는 성북동의 이름은 도성의 북쪽, 도성의 북문 밖에 있는 골짜기였던 데에서 연유한다. 또 조선시대에 도성수비를 담당했던 어영청(御營廳)의 북둔(北屯)이 1765년(영조 41)에 설치되어 동명이 붙여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한경지략(漢京識略)』에도 혜화문 밖에 북둔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다. 조선시대에 도성 사대문 밖에는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성북동만이 성의 북쪽을 의미하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산수의 경치가 타 지역에 비해 빼어나 예로부터 도성민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서 손꼽혔기 때문일 것이다.

성북동은 비록 성 밖에 있었지만 조선 초부터 한성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의 서울이었던 한성부의 행정구역은 도성 안과 성 밖 10리(城底十里)까지 미쳤으며, 지금의 서울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한강 북쪽의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서울의 행정구역은 서쪽으로는 사천(沙川, 모래내), 북쪽으로 북한산, 동쪽으로 중랑천, 남쪽으로 한강이 경계였다. 18세기 중엽 영조대에는 서울에 5부 43방(坊), 정조대 이후에는 47방이 있었는데 성북동은 이 중 숭신방(崇信坊)에 속했다.

성북동은 혜화문을 나서 왼쪽에 나타나는 계곡 마을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수석이 어울려 있으며, 복숭아·앵두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빼어난 마을이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사람들은 성북동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

『한경지략(漢京識略)』(1834)의 명승(名勝)조에는 성북동에 대하여

“북사동(北寺洞)은 혜화문 밖에 있다. 옛날 묵사(墨寺)가 있었으므로 묵사동이라고도 한다. 또 어영청의 북쪽 창고가 여기에 있었으므로 또 북둔(北屯)이라고도 한다. 맑은 시냇물 양 언덕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송아를 심어서 생업을 하므로 매년 늦은 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의 수레와 말들이 골짜기를 메운다. 깨끗한 집들도 역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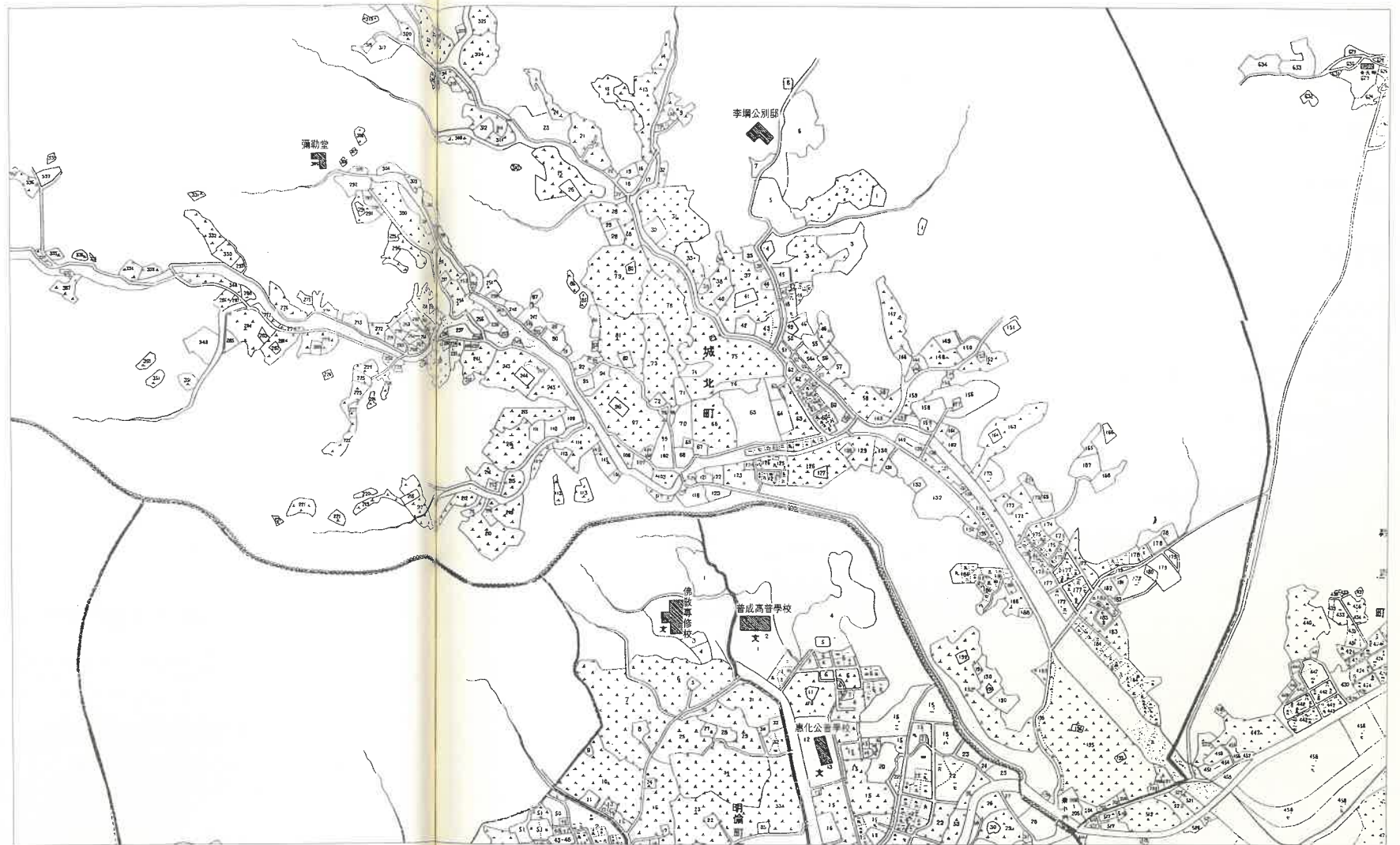
고 하였다. 이를 보면 18세기에 이미 성북 지역이 서울에 과일을 공급하는 근교농업 지역의 역할을 하였으며, 경치가 수려하여 유람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득공(柳得恭)이 지은 『경도잡지(京都雜誌)』에도

“필운대 살구꽃, 북둔의 북송아꽃, 흥인문 밖 버들, 천연정 연꽃과 삼청동·탕춘대의 수석(水石)에, 놀이하고 시 짓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들었다.”

고 하여 일찍이 성북 지역이 서울의 명소로 손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 때 실학자이자 시와 서화로 유명한 박제가(朴齊家 : 1750~1815)는 국왕 정조의 명에 의해 서울의 풍요로움을 노래한 「성시전도(城市全圖)」시(詩)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성북동 주변의 풍속 중에서 북송아나무를 심지 않으면 이를 수치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송아나무가 많았다.



〈그림 1〉 1930년대의 성북동 일대

북송아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풍광은 조선시대 말까지도 지속되어 고종대에 편찬된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에는 성북동을 북저동(北渚洞)이라 하고,

“북저동은 혜화문 밖 북쪽에 있는데 동리 안에 북송아나무를 심어 봄철이 되면 북송아꽃이 한창 피어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나가 놀며 구경한다. 민간에서는 도화동이라고도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대에 서파(西波) 황수연(黃壽延)은 「와성북동(臥城北洞)」이란 시를 이곳에서 지어 자신이 세상에서 떨어져 청렴함을 노래했다.

10년 동안 긴 휴가 얻어 북성(北城) 아래 누워 있네.
산수 풍경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마음대로 노니는데,
어느 사이 귀밑 털 백발이 되었네.

한가하게 줄음을 즐기고
술이 있으면 친구 불러 마신다.
만여(萬餘) 골짜기에 구름이 덮이는데,
이내 누대(樓臺)엔 가을 달빛이 밝구나.

옛 사람들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북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자연을 노래하게 하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이면 복숭아꽃의 그윽한 향기에 취하기 위해, 여름이면 수석이 좋아 피서지로, 가을이면 단풍에 물든 계곡을 감상하기 위해 모여 들었다. 또한 정계의 혼란을 피해 이곳의 자연풍광을 즐기려는 문인·시객들이 은거 수양처로 삼아 작은 초막을 짓고 이곳의 경치를 노래하기도 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까닭에 성북동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홍도동·도화동·복사동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다른 이름으로는 북사동·묵사동·묵시동·북창동·북저동·도독골 등을 들 수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선잠단이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성북동 지역을 ‘사한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한국의 국권을 무력으로 빼앗은 일본은 먼저 행정구역의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나타났는데, 서울도 행정구역이 축소되어 성 안으로만 한정되었다. 이에 성북 지역은 경기도 관할이 되어,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로 되었다. 1936년 4월 1일에는 경성부의 관할구역을 확장함으로 인해 고양군·김포군·시흥군 내에서 많은 마을들이 편입되었고, 이 때 성북동도 경성부에 편입되어 경성부 성북정이란 일본식 동명을 갖게 되었다. 1943년 4월 1일에는 구제(區制)를 실시했는데 성북정은 동대문구에 속하게 되었고,

1943년 8월 1일에는 성북 1·2정회로 되었다가 광복 후 1946년 10월 서울시에서 일본식 동명을 우리의 것으로 바꿈에 따라 옛 이름인 성북동을 회복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성북동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였다.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우정(偶丁) 임규(林圭)는 이곳에 자리잡아 암자의 청아한 운치, 그윽한 풍경을 「북산산고(北山散稿)」라는 이름으로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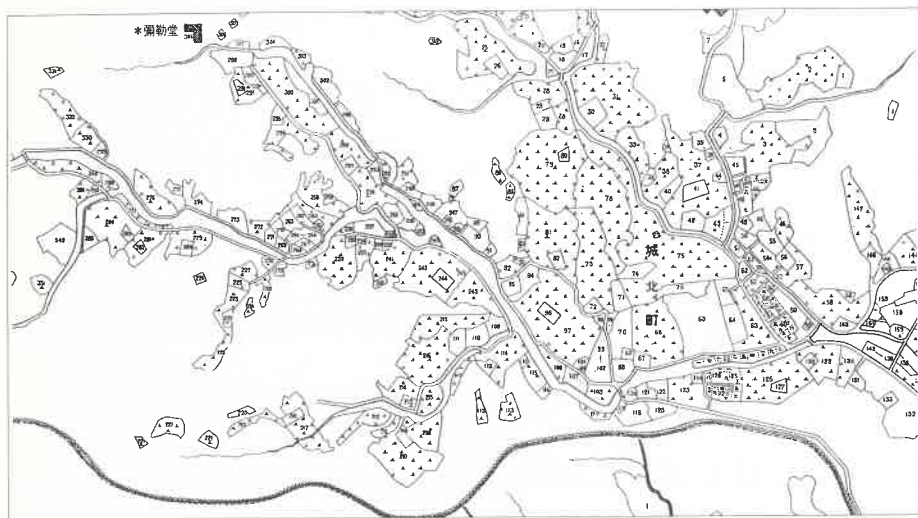
10년간 긴 세월을 성북 모퉁이에서 지내니,
청룡암 미륵당이 큰 거리같이 환하다.
고승이 세상을 떠나니 불경책 거두어 간직하고,
좋은 친구 찾아오니 술병을 끌어당긴다.
떠다니는 버들개지 눈보다 가벼운 것이,
살이 오른 살구알은 구슬알보다 크다.
산에 사는 운치를 늙어가며 깨달으니,
날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혼자서 즐긴다.

또한 그가 당시 20년간 이 동에 은거하던 서병두(徐丙斗)를 찾아가 정취와 풍경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다.

산에 사나 저자에 사나 초라한 모습 같은 것이,
서까래 몇 개 걸친 집이야 어디가나 초가 아니랴.
앞에 있는 누대들은 부호의 소유만이 아닌 것이,
저 위엔 절도 있고 동학도 넓다네.

그 사람, 그 지경이 둘 다 맑고 좋은데,
정자에 오르니 어느 새 신선 같구나.
문 앞의 수석은 이웃과 나누어 갖고,
집 뒤의 운림(雲林)은 절과 함께 잇달았다.

임규는 성북동의 상징으로 청룡암·미륵당·살구나무·누대와 정자를 손꼽고 있



〈그림 2〉 미륵당(성북동 306번지)

는데, 일제강점기에 성북동 마을 북쪽 끝에 미륵당이 있었음을 당시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변한 성북동 330번지의 동남쪽 부분, 당시 지번으로는 성북동 306번지 마을 북쪽 끝, 지금은 복개된 하천이 시작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1945년 광복 이후 1946년 10월 1일에 일본식 동명을 모두 고칠 때 이 동은 성북동이 되었다. 이 동은 광복을 전후하여 인적이 많아졌지만 깊은 계곡을 따라 들어가면 아직도 여기저기 맑은 샘물, 푸른 소나무 그늘이 있고 그 사이에 옛 절과 새로 지은 크고 작은 절들이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어서 흔히 '절골'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었다.

1949년 8월 15일 정부가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를 분리하여 설치함으로써 성북동은 성북구에 소속되었다. 이 때 성북천에 놓인 운수교를 중심으로 도로 남동쪽은 성북동 1가, 도로 서쪽은 성북동 2가로 나뉘었다. 성북동의 현 위치는 동쪽은 돈암동·동소문동과 나누어지고, 서쪽은 도성을 따라 종로구 삼청동·부암동·평창동과 인접되며, 남쪽 역시 도성을 따라 종로구 명륜동·혜화동과 접경된다. 북쪽은 북한산 산등성과 북악산길을 경계로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정릉2동과 연접해 있다. 정부에서는 1949년에 성북동을 풍치지구로 지정해 주택을 건립할 수 없도록 했지만 한남동·돈암동·응봉동 지구와 함께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풍치지구가 해제되어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성북동의 이모저모

● 운수동(논골)

성북동 60번지 부근을 '운수동', 또는 '논골'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마을은 산계곡이므로 논이 없었으나 어떤 사람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습한 땅에 논 다랑이를 조금 풀고 살았던 것이 그 유래가 된다.

● 노구멧골

운수동 위에 '노구멧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노구메(밥)를 떠 놓고 산천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 정성으로 결국 남편이 돌아와서 잘 살았기 때문에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한다.

● 구준봉

구준봉(狗蹲峯)은 성북동의 북쪽을 이루고 있는 봉우리이다. 마치 개가 걸터 앉은 모양의 봉우리라 하여 이름 지어졌다. 이 봉우리 남쪽에는 산 모습이 머리를 들고 사방을 바라보는 형체라 하여 거수봉(擧首峰)이라 부르는 봉우리도 있다.

● 보토고개

구준봉 뒤쪽에 있는 잘록한 고개를 보토현(補土峴), 즉 '보토고개'라고 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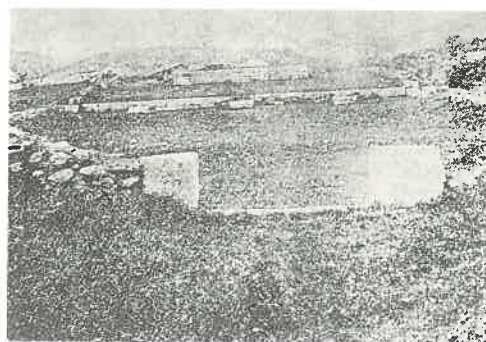
〈그림 3〉 조선 후기 고지도에 보이는 구준봉(狗蹲峯)

자료: 《해동지도(海東地圖)》중의 〈경도(京都)〉(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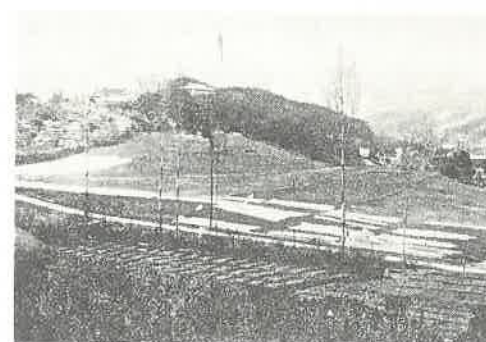
이는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 잘록하므로 풍수지리설에 따라 그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흙을 메우고 때를 입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전해 온다.

● 삼형제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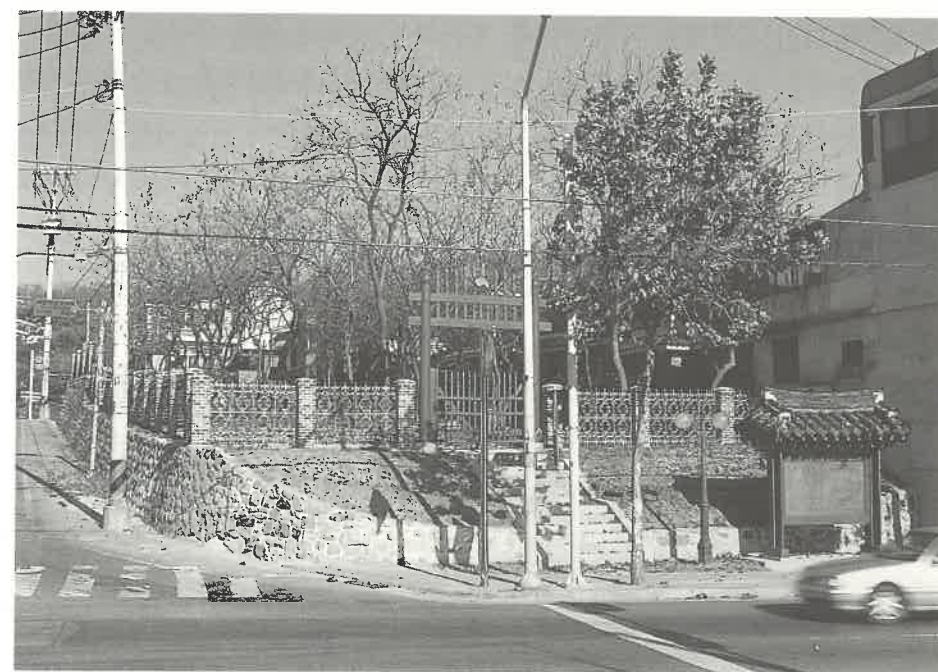
삼형제우물은 세 곳의 바위 바닥에서 물이 솟아 나와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 구준봉 아래 예전 대원각 자리에 있었다. 이 샘물은 물맛이 달고 위장병에 좋은 치료제



옛 선잠단지



일제강점기의 선잠단지



현재 복원된 선잠단지

로 알려져 유명했으나 차츰 주택이 부근에 들어서면서 수질도 변해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선잠단

성북초등학교 동쪽, 성북동 64번지 1호에 선잠단지(先蠶壇址)가 있다. 사적 제83호로 지정된 선잠단지는 현재 성북구청에서 정비하여 제단을 비롯한 표지석 1개,

뽕나무 46주, 철재 안내판 1, 대형 안내판 1, 홍살문으로 복원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초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단을 쌓고 관리들이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 중국 삼황 중의 한 명인 황제의 황후)에게 제사지냈다. 우리나라에서 선잠의 의식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401년(정종 3) 4월에 선잠단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국가에서 양잠을 널리 권장하기 위해 1478년(성종 9) 봄에 창덕궁 후원에 단을 쌓고 친히 왕비가 봉호를 받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제사하는 친잠의 예를 행하였다. 친잠례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성종 때 세 번, 중종 때 두 번, 단종 때 한 번 행하였고, 영조 때에는 사라진 문헌을 고증하여 1767년(영조 43)에 다시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최근까지 전례에 따라 순종왕후 윤비가 비원에서 친잠례를 거행하였다. 현재는 성북구청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역대왕실에서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지내오던 전통제례의식 선잠제를 성북구청에서 1993년에 재현하여 매년 늦은 봄 길한 사(巳)일에 거행하며, 선잠 왕비 행차와 선잠제를 봉행하고 있다.

● 성락원

선잠단지 북쪽에 성북동 2번지 22호에 사적 제378호로 지정된 성락원(城樂園) 마을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이곳의 유래를 알려 준다.

본원은 철종 때(1849~1863) 이조판서 심상응(沈相應)의 별장이던 것을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堉) 공이 별궁으로 사용하다가 후에 아들 이건(李鍵) 공이 살던 곳이다. 그 후 조상의 얼을 이으려는 심씨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보존하기에 이르렀다.

본래는 약 6만 평의 동쪽에는 약포·약전·과수원이 있었다. 구준봉에서 발원한 옥수계곡을 줄기 삼아 쌍룡동천·용두가산·본제·영지·심정·송석지·다정·약수천으로 이어진다.

본원은 거의 원형으로 보존된 전통적인 사저로서 도심 속의 유곡청류(幽谷清流)와 태고풍(太古風)을 자랑한다. 동북간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두 갈래 개울물이 암벽 사이에서 합류되는 쌍룡동천(雙龍洞天)으로 암각된 것을 정문으로 삼아 좌청룡 우백호의 풍수지리도 선명하다. 입구의 다리를 건너면 깊숙한 내원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인조동산인 용두가산(龍頭假山)을 쌓았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인 데서 자연과 평화를



〈그림 4〉 성락원 일대의 1930년대 모습



성락원의 송석정(松石亭)

사랑하는 조상의 슬기가 간직된 곳이다.

성락원은 1936년에 만든 지도에도 이강(李塏) 공의 별장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은 대부분 논밭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성락원 입구를 들어서면 산을 타고 맑게 흐르는 계곡물이 보이고, 잘 가꾸어진 정원 안에는 문무석상(文武石像)·석등·석탑이 세워져 있으며, 널찍한 한옥과 정자의 멋을 보여 주는 송석정(松石亭), 그 아래에 조용히 고여 있는 연못은 이곳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별세계에 온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성락원의 중심 누정인 송석정은 조선시대에는 초가로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현재와 같은 아취 있는 기와정자로 개축하여, 서울에서 사라진 정자 문화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성락원은 현재의 경내뿐만 아니라 동쪽의 산기슭 일대에 과수원·약포·약전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고급 주택가로 변모되어 외국 대사관, 대사관저와 정계와 재계의 유명인사들의 저택이 들어서 있다.

● 꿩의 바다마을

성락원 마을 서쪽에는 ‘꿩의 바다마을’이 언덕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창한 나무와 암석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새·까치·비둘기·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곳 역시 고급 주택가로 변모하였다. 시인 김광섭(金光燮)은 이곳이 변해 가는 모습을 주제로 「성북동 비둘기」라는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산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짙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 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댄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꿩의 바다마을’ 서쪽 일대를 삼청주택단지 또는 대교단지라고 부른다. 이곳은 1967년부터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가 닭아 놓았던 곳으로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 빈터가 많았으나, 지금은 고급 주택단지와 대사관저가 밀집된 곳으로 변모하여 이국적인 멋을 풍긴다. 이곳에는 다수의 재계와 재벌 그룹 회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구두회 LG그룹 창업고문,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김상하 (주) 삼양그룹 회장 등이 모두 성북동민이다. 또 성북동에는 대사관저 22곳이 자리잡고 있다. 성북2동 330번지 일대에만 10곳이 몰려 있을 정도다. 여기에는 일본·싱가포르·미얀마·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국과 독일·아일랜드·오스트리아·포르투갈·폴란드와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을 포함한 유럽권도 있다. 캐나다·파나마·베네수엘라·엘살바도르·칠레·콜롬비아 등 미주국과 함께 호주·



성북동의 캐나다 대사관저

알제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6대주를 망라한 세계 각국이 성북동에 관저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단일동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수다.

성북동에 관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다. 독일을 필두로 일본·호주 등이 땅을 매입, 관저를 세우기 시작했다. 도심에 위치한 성북동은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급주택지로 인기가 치솟았다. 현재 20개 국 중 관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핀란드까지 포함, 9개 국이다. 독일(1971년 1월), 일본(1971년 4월), 호주(1973년 8월) 등이 일찌감치 관저를 매입했고, 오스트리아(1986년 3월)를 제외하면 노르웨이(1990년 2월), 스웨덴(1992년 4월), 싱가포르(1993년 3월), 알제리(1995년 6월) 등이 1990년 이후 관저를 매입했다. 나머지 11개 국은 임대이며, 관저 규모가 제일 큰 국가는 독일로 땅 1만 2,140평에 달하는 대저택이다. 두번째는 일본으로 2,000평에 조금 못 미친다. 호주(738평)·오스트리아(568평) 등이 규모가 큰 편이다. 보통 대지 200~300평에 지하 1층을 포함, 벽돌 슬래브조 2층 양옥이 일반적이다.



서울 성곽 사대문의 하나인 숙정문

● 마전터

조선시대에 이 지역은 깊은 산속으로 농토가 적고 시장이 멀어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였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하였으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떠나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765년(영조 41)에 오흥부원군(鰲興府院君) 김한구(金漢耆)와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왕께 건의하여 서울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의 표백(漂白), 즉 마전하는 권리를 이곳 주민들에게 주고 그 후 3년 뒤 1768년(영조 44)에는 창의문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궁중에 바치는 메주 찌는 권리를 일부 이곳 주민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도 성북동 양쪽 골짜기의 물이 합류되는 부근의 냇가를 마전터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숙정문

성북동 계곡 아래에서 산등성을 따라 올라가면 사대문의 하나인 숙정문(肅靖門), 속칭 북문이 있다. 숙정문은 처음에는 숙청문(肅淸門)이었는데 중종 이후부터 역대

왕조실록에 모두 숙정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숙정문은 1504년(연산군 10)에 동쪽으로 약간 이전시켰고, 1976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성의 성곽을 복원할 때 이 문의 문루를 건축하고 「숙정문」이란 편액을 걸었다. 숙정문은 도성 사대문의 하나이지만 많은 수난을 겪어 왔다. 이 문이 건립된 지 18년 후인 1413년(태종 13)에 풍수지리학상 경복궁의 양팔이 되는 창의문과 숙정문을 통행하는 것은 지맥(地脈)을 손상시킨다는 상소가 있자, 이 문을 폐쇄하고 길에 소나무를 심어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숙정문의 사용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폐쇄하여도 도성 출입에 큰 불편은 없었을 것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서울의 숙정문을 항상 닫아 두는 것은 이 문을 열어 놓으면 장안의 부녀자가 음란해지므로 항상 이 문을 닫아 두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숙정문이 음방(陰方), 즉 여자의 방위(方位)에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북은 음이요, 남은 양인 까닭에 가뭄 때는 양을 억제하고 음을 부양한다. 이에 관련해 가뭄이 심하면 숙정문을 열고 남대문을 닫는 풍속이 1416년(태종 16)부터 있었고, 장마가 지면 승례·홍인·돈의·숙정 4문에 나가서 영제(榮祭)라는 비 개이기를 비는 제사를 지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상원(음력 정월 대보름) 전에 민가의 부녀자들이 세 번 숙정문에 가서 놀면 그 해의 재액(災厄)을 면할 수 있다”는 말도 전해 온다.

● 쌀바위(미암)

17세기의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 1563~1628)이 편찬한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숙정문 밖 한 바위틈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맑을 때는 마치 막걸리빛 같고 진할 때는 떡과 같아서 사람들이 다투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지봉 이수광이 그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 오게 하니 단단하게 엉겨서 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저자는 햇볕을 쬔었기 때문에 굳어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쌀바위[米岩]’ 이야기가 전해 온다. 숙정문 밖에 ‘쌀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틈에서 쌀이 나왔다. 기이한 것은 아침·점심·저녁 세 차례에 걸쳐 꼭 1되가량의 쌀이 나왔다. 처음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무꾼 노인이었는데 그는 매일 여기에서 쌀을 가져가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자 나무꾼 노인에게는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쌀을 더 많



이재준가

이 가져갈 양으로 쌀자루를 가지고 쌀바위에 가서 지키고 앉아 나온 쌀을 담고 얼마간 기다렸다가 쌀이 나오면 또 담아 쌀자루가 가득 채워져야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한 달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쌀이 나오던 바위틈에서 쌀은 나오지 않고 대신 끈적끈적한 물이 흘러 나왔다. 이 일로 해서 이 바위를 ‘쌀바위(미암)’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이재준가와 상허 이태준 고택

성북동에는 지방민속자료로 이재준가(李載濬家)와 상허 이태준 고택이 있다. 이재준가는 지방민속자료(제10호)로 지정되었으며, 1900년경에 건립된 한옥이다. 이 건물은 사랑채 비슷한 별채의 안채와 이에 부속된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고, ㄷ자형의 평면남향집이다. 이 가옥은 조선 말기에 상인들의 별장으로 당시 호상(豪商)들의 생활상을 알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집이다.

상허 이태준 고택도 지방민속자료(제11호)로 지정되었으며, 1900년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는 한옥이다. 이 집은 규모가 작은 별장형 주택이지만 평면의 모양 등



상허 이태준 고택

으로 보아 살림집으로 지어진 것 같다. 작은 집이면서도 모든 것이 알차고 예쁘장하게 꾸며져 있으며, 특히 감나무·사철나무를 주류로 한 정원은 민가 정원의 맛을 듬뿍 느끼게 한다. 그리고 뒤쪽을 약간 덧달아서 개축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된 집이다.

상허 이태준의 고택 상심루(賞心樓)는 그의 외손녀가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는 다원(茶園)을 경영하여 문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이태준은 강원도 철원 출생의 문인으로 호는 상허(尙虛)이다. 일본 동경상지대학(東京上智大學)에서 수학했으며 1925년 『시대일보』에 단편 「오몽녀(五夢女)」를 발표하면서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1933년 박태원·이효석·정지용 등과 '구인회'를 조직하고 작품 창작에 전념했다. 8·15광복 때까지 주목할 만한 상당한 양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단편에 「달밤」「까마귀」「복덕방」「무연」「사냥」「영월영감」「돌다리」「토끼이야기」 등이 있고, 장편에 「제2의 운명」「화관」「불멸의 함성」「청춘무성」「왕자호동」「황진이」 등이 있으며, 광복 직후에 발표된 중편 「해방전후」와 장편 「사상의 월야」 등이 있다. 주인공의 성격 묘사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그는, 한편으로 토착적인 생활의 단면을 작품에



심우장

부각시키는 구성법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한국 현대소설에 기법상의 한 틀을 마련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명한 저서로 『문장강화』가 있으며, 특히 탁월한 미문가로서 주로 예술적 정취가 짙은 단편에 능했다. 광복 후에는 좌익 문화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여 부위원장이 되었다. 1946년에 월북한 후에 '조선작가동맹' 위원장이 되기도 했으나, 『소련기행』 등의 저서로 북한 당국의 박해를 받아 사회적 활동이 정지당한 뒤로 소식불명이 되었다. 그 동안 규제문인으로 그의 작품이 묶여 있다가, 1988년 7월 19일 당국의 조치로 해금되었다.

● 심우장

성북동 222번지에는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尋牛莊)이 있다. 심우장이란 이름은 한용운 선생의 또 다른 호인 목부(牧夫)에서 유래된 것이며, '내 마음속에 소를 키운다'는 뜻으로 불교의 무상대도를 깨우치기 위해 늘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심우장을 건축할 때 별이 잘드는 남향에 지을 수 있었으나, 그는 남향은 일제의 총독부를 마주하는 곳이라 하여 산비탈에 북향으로

집을 짓게 했다고 전한다. 만해 선생은 이 심우장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생애를 보내면서 그들의 감시와 유혹에도 굽히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빌고 또 빌었으나, 광복 1년 전 이곳에서 운명하였다. 그런데 심우장 건너편 대교 단지에 여러 다른 나라 대사관과 함께 일본 대사관도 자리잡게 되었으니, 심우장을 지키던 만해 선생의 딸 한영숙 씨는 한때 이곳을 만해사상연구소로 사용하게 하고 명륜동으로 이사하였다. 심우장의 고인이 쓰던 방에는 만해의 글씨, 유고, 초간본, 송수첩, 옥중공판기록, 만해선생 연구논문집들이 그대로 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심우장을 1999년 말까지 이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역사학습장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만해 선생이 남긴 「심우장시」를 읊어보면 그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잃을 소 없건 만든 찾을 소 웃음도다
만일 잃을 소 분명하다면 찾은들 지닐쏘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앓으리다

●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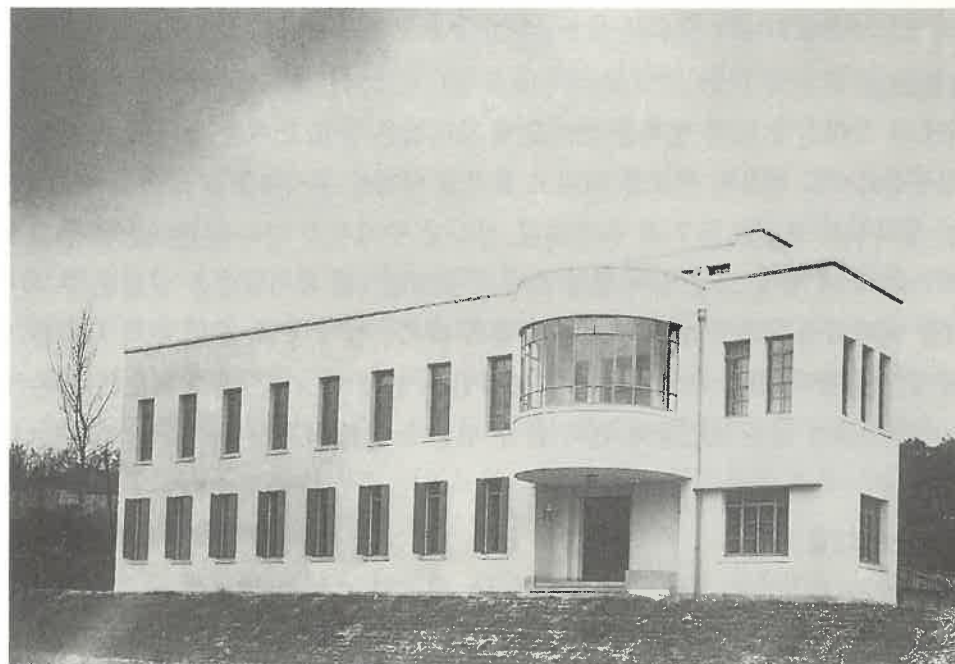
성북초등학교 정문 옆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있다. 간송미술관은 북단장(北壇莊)이라 부르는 곳에 고 전형필(全鑒弼) 선생이 1938년에 설립하였다. 이 미술관은 대지가 4,000평으로 도시 속에 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하다.

미술관의 중심 건물인 보화각(蜀華閣)에는 전형필 선생이 평생 동안 수집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제일의 고서화 소장처로서 한국민족미술연구소로서 발족한 이래 1971년 10월부터 매년 5월과 10월에 소장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회 개최시에 『간송문화(澗松文華)』라는 도록을 발간하고 있는데, 1998년 10월에 제55호를 내기에 이르렀다. 간송미술관은 국보 및 보물급 등의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한국 미술품 소장 미술관으로서 미술사연구인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간송미술관에는 국보로 지정된 『훈민정음』(70호), 『동국정운』 권1·6(71호), <금동계미명삼존불>(72호), <금동삼존불감>(73호), <청자압형수적>(74호), <청자기린



간송미술관



1930년대의 보화각

유개향로>(65호), <청자상감포류수금문정병>(66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149호), 혜원 신윤복의 <쌍검대무>(135호) 등의 9점과 보물로 지정된 <백자박산향로>(238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376호), <금보>(283호), <금동여래입상>(284호), <금동보살입상>(285호),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286호), <분청박지화문병>(287호), <분청사기모란문반합>(348호), <청자상감모자합>(349호), <청화백자철사진사국화문병>(241호), <괴산 외사리 석조부도>(579호), <전 문경오층석탑>(580호) 등 12점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1974년 5월 12일에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한 <삼층석탑>(28호), <석조팔각부도>(29호), <석조미륵불입상>(30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31호) 등 4점이 정원에 각각 세워져 있다.

● 북악산길

성북동은 계곡 마을로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1968년 1·21사태 이후 인왕산과 북한산 산등성을 잇는 북악산길이 착공된 후 개통되어 교통이 편리해졌다. 이곳은 숲이 우거져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공기가 맑고 비가 온 다음 날이면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 시내가 아름다워 드라이브코스나 하이킹코스로 즐겨 찾는다.

● 성라암

숙소와 오락실을 갖춰 성북동 산기슭에 자리잡은 불교 조계종 성라암(星羅庵)은 도심사찰로서도 번듯한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는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의 본산으로 더욱 유명하다. 성라암 주지이자 성라원 이사장은 올해 82세의 노비구니 법성 스님이다. 법성 스님은 1990년 4월 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듬해 1월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사찰 건물과 대지·임야 등 약 30억 원의 사재를 성라원에 기증했다. 법성 스님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 가장 큰 목적으로 삼은 일은, 여생이 많지 않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노인의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 비구니 대학

성북동 284번지에는 비구니 대학이 있다. 김일엽 스님이 만년에 주지로 있었던 조계종계 성라암 자리에 대학이란 명칭과 한국비구니회 총본부로 쓰이고 있는 비구니 대학이 서 있다. 대문 양쪽에 이인호 씨가 그린 큰 불화와, 범종을 걸어 놓은 2

층 팔각정 건물이 이채롭다.

● 삼각산 수월암

비구니 대학 건너편에는 삼각산 수월암이 있다. 이 절은 1968년에 김상순·최수월화 양인이 창건하였다. 1972년 법당 서쪽에 칠층연화탑을 세워 탑 안에 비로자나불상·석가여래상을 봉안하였으며, 탑 4면에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탑 위층 동쪽에 약사여래상, 서쪽에 아미타여래상, 남쪽에 문수보살상, 북쪽에 관세음보살상을 각각 조각했다. 탑은 높이가 약 10m, 둘레가 16m되는데 탑 앞에는 거북조각에 비석을 세웠으며 입구에 '명랑약수'라는 샘물이 있다.

● 동원미술관

성북동 13-22번지에는 동원미술관이 있다. 소장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에 모두 기증했으나, 미술관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동원은 고 이흥근 씨의 호인데 1967년에 개관한 개인 미술관이다. 그러나 1980년 12월에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문화재 헌납서를 바침으로써 그가 평생동안 수집한 문화재를 국가와 사회에 기증한 것이다. 총 4,941점을 헌납받은 국립중앙박물관은 1981년 2월 12일에서 4월 1일까지 이를 인수하여 박물관 내 동원기념실을 1981년부터 개관하여 일반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다.

● 도자기생활박물관

우리 선조들의 전통도자기 및 생활 속의 도구로 사용된 각종 생활기구류를 현재의 생활도자기와 함께 전시하여 과거와 현재의 도자기 문화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자기생활박물관이 1998년 4월 개관하였다. 전통도자기의 수집·보존·관리·전시뿐만 아니라 학술 조사와 간행물 제작·배포는 물론 도자기와 관련된 생활예절 시연장으로 활용되어 우리 전통도자기 생활을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그 맥을 이어갈 전문 박물관이다.

● 성북동길과 성북천

성북동길은 삼청터널을 기점으로 하여 성북동을 서북방향으로 뻗어 동소문로와

교차하는 삼선교까지 폭 10~15m, 길이 2,950m의 지선도로이다. 그 중 삼선교로터리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840m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여 전통 문화의 거리로 지정, 시비·정자 등으로 구성된 성북동광장을 조성하고 문화재 그림판이 설치된 역사산책길, 십장생도와 우리 구에 소재한 문화재 문양으로 보도를 특화하여 인근 성북종합문화센터·성북문화원이 연계되는 종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성북동길은 구준봉에서 발원한 골짜기 물이 합류하는 성북천의 아름다운 골짜기를 복개해 확장한 길이다.

● 길상사(구 대원각)

성북동 옛 '대원각' 자리에 세워진 사찰이 '길상사'이다. '대원각'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제3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요정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자리에 조선시대 억불정책에 의해 산속으로 들어갔던 사찰이 세워진 것이다.

대원각의 소유주인 김영한(81세) 여사는 1,000억 원대의 대원각 부지와 건물 등을 길상사 회주인 범정 스님께 아무 조건 없이 시주했다.



쌍다리. 복개되어 사라진 성북천의 자취를 알려 준다.



한국가구박물관

길상사는 승보종찰 송광사의 서울 분원으로 조계종에 등록을 마쳤으며, 총면적이 7,000여 평으로 극락전·설법전·도서관·선방·세미나실·도서관 등 30여 동을 갖춘 수련공간으로 거듭났다. 길상사 주지인 청학 스님은 “가급적 한옥의 외형을 살려 수행도량의 분위기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원각 시절의 나무와 숲 등을 그대로 보존했고, 현판과 불상 등 길상사 내의 시설물은 불교계 내에서 내로라하는 장인들이 만들었다. 불단은 불교미술가인 박찬수 씨가 맡았고 불상과 탕화·동종도 특별히 제작했다. 입구의 「삼각산 길상사」라는 대형 현판은 서예가 여초 김응현 씨가 썼다. 길상사는 사찰 내에 언덕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리프트 시설, 장애인전용 화장실도 갖추었다. 1997년 12월 14일 개원을 계기로 길상사는 본격적으로 선방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였다.

● 한국가구박물관

성북동 330-577번지 1,600여 평의 대지에는 우리나라 가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가구박물관이 들어선다. 정미숙 씨(51세, 이화여대 미대 강사)가 운영하는 이 박물관에는 조선시대의 장롱·탁자·반닫이·부엌가구·놋그릇 등 전통 생활가구 3,0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전통 가옥은 창경궁에 있던 궁궐, 영경당급 사대부집, 서울 가회동 일대의 안채·사랑채, 경주 최부잣집 곳간, 송광사의 부엌들을 직접 옮겨와 짓고 있어 한옥의 여러 가지 형태도 함께 볼 수 있다.

혜화문 밖 길마을

동소문동



동소문동의 발자취

동양의 도성(都城) 계획의 원형이 되었던 중국의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의 도성계획원리에 의하면 도성에 12개의 문을 만들어 이 문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12개의 문은 1년 12달을 상징하는데 동쪽 3개 문은 봄, 남쪽 3개 문은 여름, 서쪽 3개 문은 가을, 북쪽 3개 문은 겨울을 상징한다. 이는 도성 건설을 지상에 소우주(小宇宙)를 구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옛 선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양 도성에는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 등 8개의 문이 있었다. 한양은 중국의 화북평야처럼 넓은 평원에 위치하지 않고 산지가 많은 지형에 위치하여 산지가 많아 산에 의지해 쌓은 도성을 지녔기에 문을 낼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울에는 도성을 따라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이 있었다. 4대문은 동의 흥인지문, 서의 돈의문, 남의 숭례문, 북의 숙청문을 말하고, 4소문은 동남의 광희문, 서북의 창의문, 서남의 소덕문(후의 소의문), 동북의 혜화문을 말한다. 동소문동은 서울 4소문의 하나인 혜화문, 즉 동소문(東小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동소문이란 혜화문의 속칭으로 조선시대 말 19세기에도 동소문외계라는 동명이 있었다.

조선시대 말 고종 때 문인 회산 이제구는 어느 늦가을 날 동소문을 벗어나 성북동을 찾아나서 길을 걸으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이 시로 보아 동소문을 소칭문이라고도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소청문 밖 나가니 성시 티끌 볼 수 없고, 나귀 등엔 붉은 석양이 이글거린다.

들판의 국화, 시냇가의 단풍 가을빛 서로 어울려 한 폭의 그림 이루었구나.

1911년 4월 1일 일제는 경기도령 제3호로 한성부에 5부 8면제를 실시함에 따라 한성부를 격하시켜 경성부로 개칭하여 경기도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이곳 일대도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돈암리로 부르다가 다시 1914년 4월 1일 전국의 전면적인 군·면폐합에 의해 경성부가 성 안 지역으로 축소됨에 따라 종래의 송신면과 인창면을 합쳐 송인면으로 통합한 뒤 경기도 고양군에 소속되었다.

1936년 4월 1일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확장함에 따라 동소문동 일대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에서 경성부에 편입되어 경성부 돈암정이라는 일본식 동명으로 바뀌었다. 일제강점기 말 1943년 4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이곳 일대는 동대문구에 속하였다가 광복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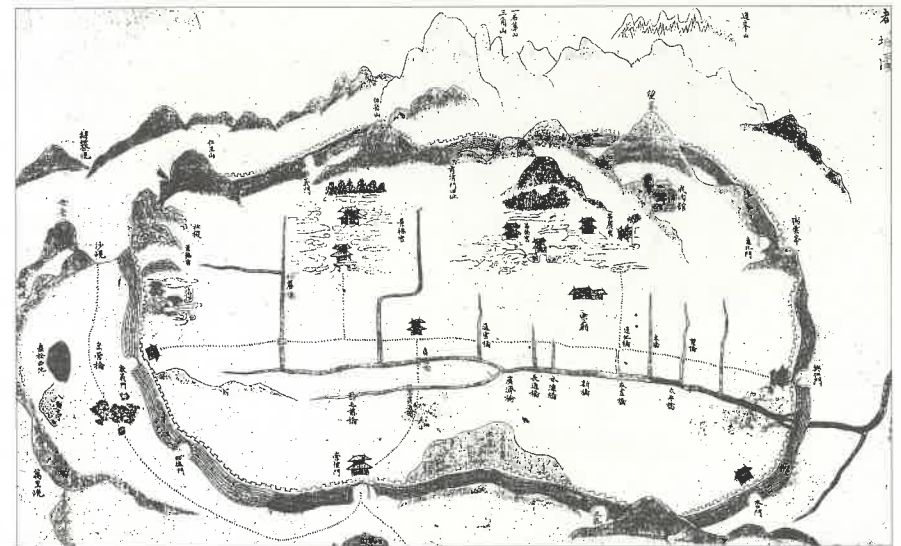
1946년 10월 1일 서울시에서 이전의 일본식 동명을 없애고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새로 고칠 때 돈암정은 돈암동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동소문동 지역은 성북구 돈암동으로 되었다. 당시 돈암동은 그 지역이 매우 넓었는데 6·25전쟁 이후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여 분동이 불가피하였다. 196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274호로 '서울특별시 동 명 칭 및 구역획정 조례'가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돈암동 지역은 종래의 동장 관할구역인 동회 명칭이 대부분 법정동으로 분동되어 동소문동 1·2·3·4·5·6·7·8가와 동선동·삼선동 등으로 되었다.

동소문동은 법정동 명칭보다 행정동명, 즉 동회구역 명칭으로 먼저 사용되었다. 광복 직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돈암동 지역은 동소문동회, 동선남·북부동회, 정릉동, 옥구동·서부동회 등 6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동회를 설치했다. 1955년 4월 18일 동제(洞制) 실시 이후 동소문동회 관할구역은 돈암동 중 삼선교로부터 돈암교에 이르는 성북천 북쪽지역이었다. 그런데 현재 동소문동 지역은 동소문동사무소와 일부는 삼선 제2동사무소, 동선 제2동사무소 관할 내에 있다. 즉, 동소문동 1~4가 지역과 돈암동 일부를 동소문동사무소가 관할하고 있고, 동소문동 5가는 삼선 제2동사무소 관할 하에 있으며, 동소문동 6~7가 지역은 동선 제2동사무소 관할 내에 들어 있다.

동소문동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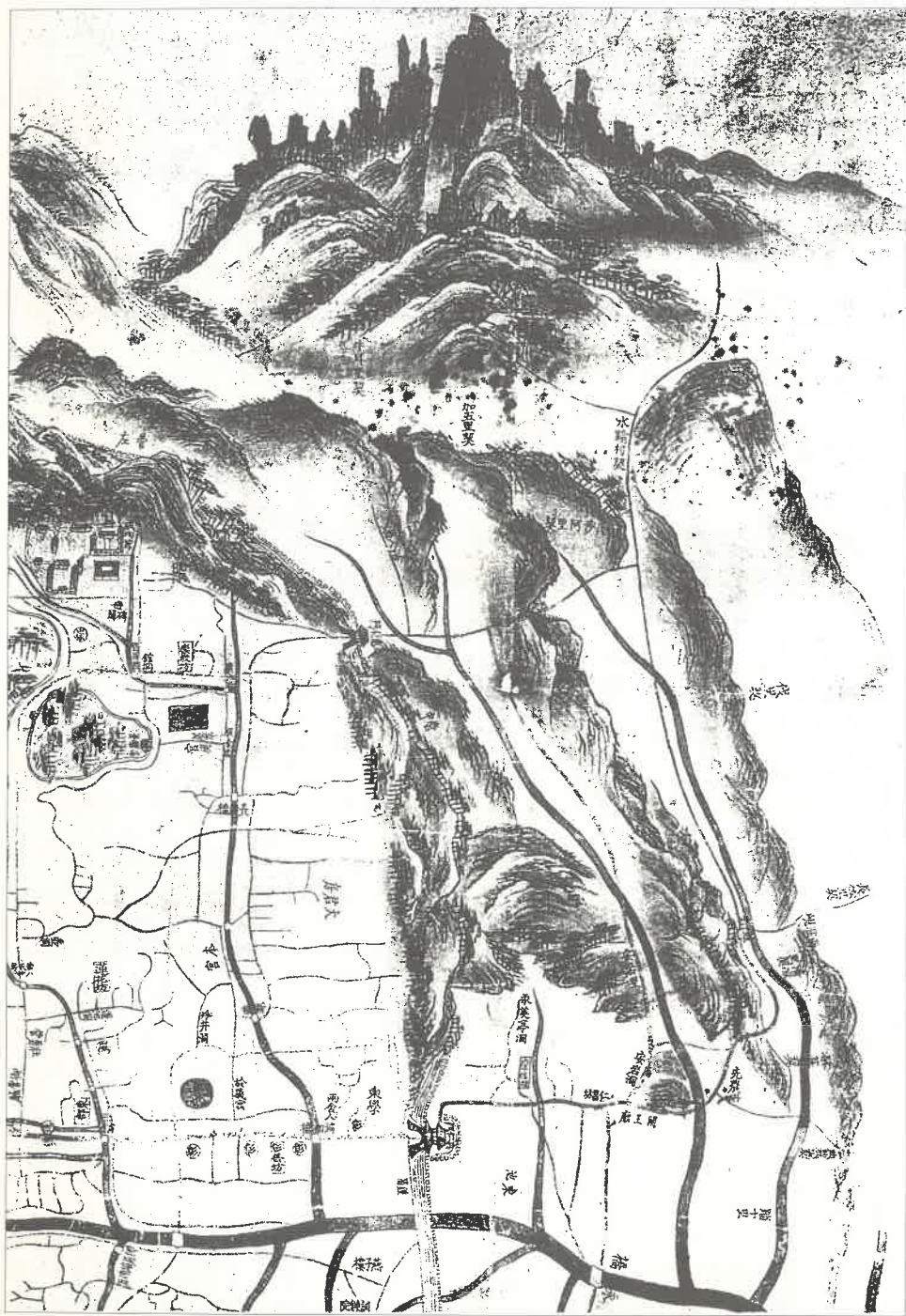
● 해화문

해화문의 원래 이름은 홍화문(弘化門)이었으나, 1484년(성종 15)에 창경궁을 새로 지으며 그 동쪽문을 홍화문이라고 해서 두 개의 홍화문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1511년(중종 6)에 두 문의 혼동을 막기 위해 동소문을 해화문이라고 고쳤다. 또 동소문에는 문루가 없이 홍예(虹霓)만 있었으나(그림 1), 1744년(영조 20)에 동소문의 문루를 만



〈그림 1〉 18세기 초의 고지도에 보이는 해화문. 문루가 없다.

자료: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總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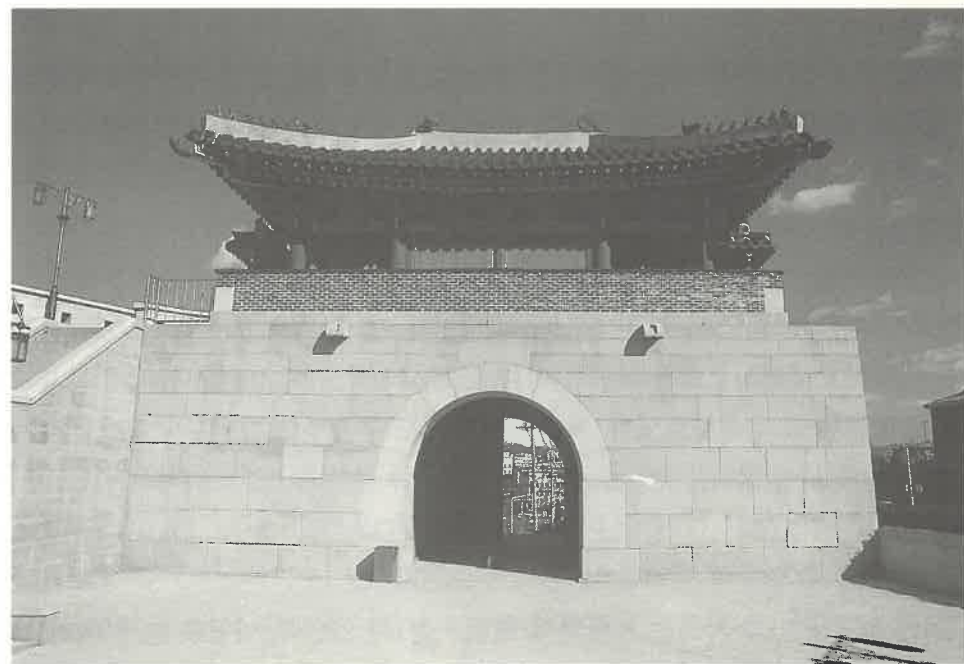


〈그림 2〉 1788년경의 고지도에 보이는 혜화문. 문루가 있다.

자료 : 《도성도(都城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혜화문의 옛 모습



복원된 혜화문

들었다(그림 2).

1451년(문종 1)에 이 문을 수리하면서 사슴 뿔과 같은 나무 말뚝을 박아 적의 침입을 막는 녹각성(鹿角城)을 설치하게 하였다.

혜화문 문루 천장에는 봉황(鳳凰)을 그려 놓았는데 이는 삼선평 일대에 새가 많이 날아 들어 농사에 피해가 많았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동소문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한 뒤에는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루가 크게 퇴락했다. 1928년 일제는 이것을 이유로 동소문 문루를 헐어버림으로써 영조 때 달았던 현판도 없어지고 홍예만 남았다. 그 후 1939년 돈암동까지 전차 노선을 연장할 때 이 홍예마저 헐어버려 이 문은 자취조차 남지 않게 되었지만 혜화문·동소문동의 동명과 동소문고개라는 고개 이름만이 남게 되었다. 혜화문은 1994년에 복원되었다. 혜화문 밖에는 여러 가지 새들이 많아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문루 천장에 용을 그리지 않고 봉황을 그렸다고 한다. 동소문은 서울의 4대문은 아니지만 북쪽의 숙정문이 음문(陰門)이라 하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소문의 역할은 다른 대문에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하였다.

● 치마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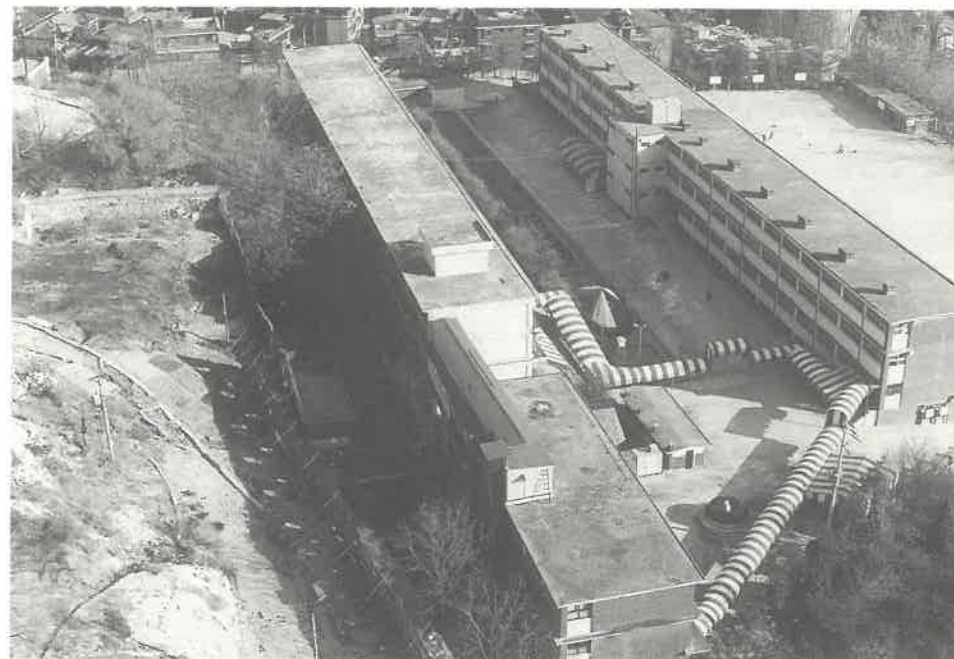
동소문동 4가 북쪽에 있는 바위로서 옛날 삼선동 3가에 있는 옥녀봉에서 옥녀가 세 신선과 함께 놀다가 치마를 벗어서 이 바위에 널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동소문로

조선시대에도 주요 간선도로였던 동소문로는 혜화동로터리에서 동소문동을 거쳐 돈암동에 이르는 폭 25m, 길이 2,350m의 길인데 그 중 성북구 관내 구간은 혜화동에서 미아리고개까지 2,100m의 구간이다. 조선시대에도 이 길은 서울에서 동북지방으로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였다. 서울에서 경기도 동북부나 강원도·함경도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야 했다.

● 동활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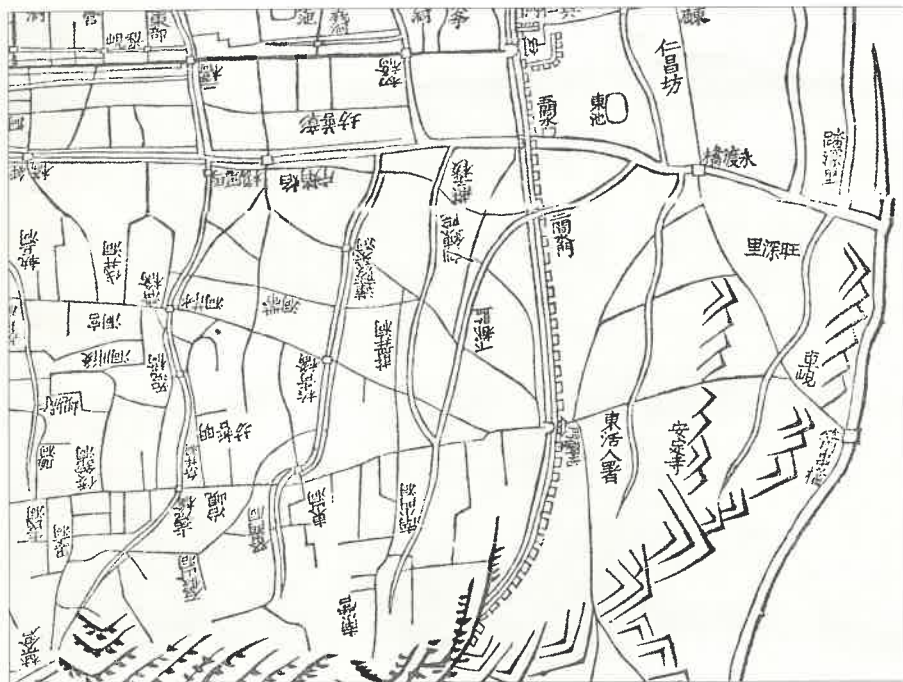
동소문동 4가 103번지에는 동활인서(東活人署)가 있었다. 이곳은 도성 내의 질병에 걸린 빈민환자, 주로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에 고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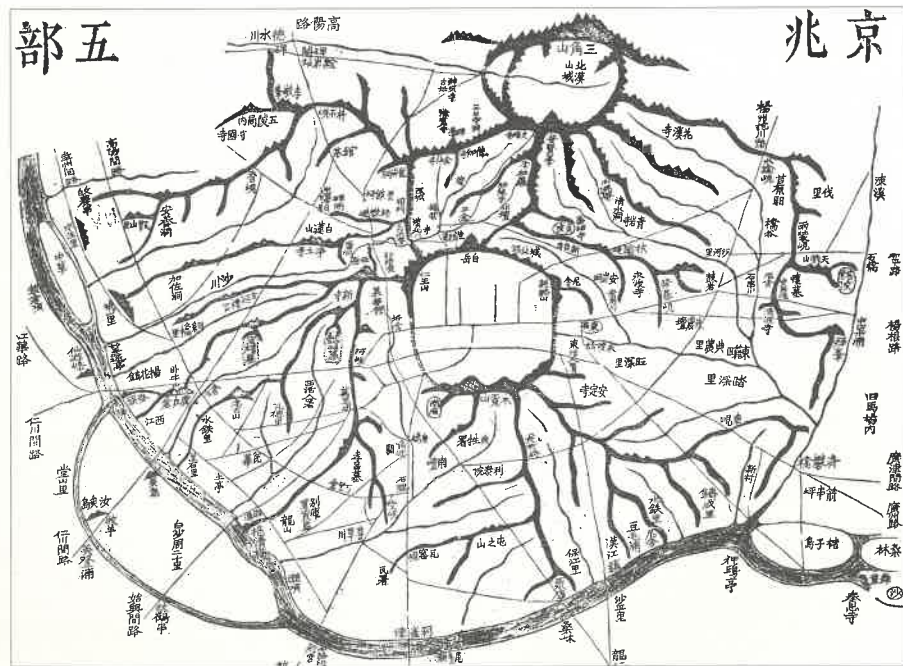
치마바위가 있던 자리

제도에 따라서 동·서대비원을 두어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도와주었다. 1414년(태종 14) 9월에 불교의 명칭을 벗고 동·서활인원으로 새로 고쳤다. 이것은 배불정책에 의한 것으로 대비원이란 이름은 불교의 대자대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을 활인원으로 바꾼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한성부조에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두어 도성 내의 병자와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치료하고 의식을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활인서로 고쳤다. 그 후 폐지되었다가 1662년(광해군 4) 12월 예조의 건의로 다시 설치되었으나, 역할이 미미하여 1882년(고종 19)에 결국 폐지되었다.

동활인서의 위치는 조선 후기의 서울 고지도들에 지금의 동소문동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그림 2). 그 후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가 그린 《수선전도(首善全圖)》(그림 3),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그림 4) 등에는 동활인서가 현재 성동구 신당동 236, 304번지 일대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아 19세기 무렵 동활인서가 동소문동에서 신당동 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수신전도(首善全圖)》 동대문 밖에 동환인서가 그려져 있다.



〈그림 4〉《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경조부〉



활인서에 배속된 무당



동환인서가 있던 자리

활인서의 목적은 치료와 구호사업에 있으며, 역·원 등과 함께 국가에서 직할하는 사회기관으로서 기민구호에도 큰 구실을 했다. 또한 의원 외에 무당을 배치해서 도성 내 환자들 중에 의지할 곳이 없는 환자들을 구휼·보호하게 했다. 세종이 활인원에 무당을 배치한 것은 무당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일반 민중의 사고방식을 참작하여 환자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많은 환자가 구휼·치료되고 무당에게는 특별히 세금과 부역을 덜어 주었다. 그런데 무당들이 귀신을 빙자하여 요사스런 일을 꾸미는 등의 폐단이 있다 하여 1516년(중종 11)에는 활인서에 터를 잡고 있는 무당들의 축출과 폐단방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1693년(숙종 19)에 비로소 무당들을 성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활인서 내에는 한증탕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기록이 세종 때 나타나는데 “땀 내고 찜질하고 목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 청룡암(청룡사)

청룡사 또는 청룡암은 예로부터 미륵석상이 노천에 세워져 미륵당이라 했는데 1969년에 동소문동 1가 45번지로 이전했다. 옛 문헌에는 구준봉 아래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1936년의 지도에 보면 성북동 306번지에 미륵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말 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했으며, 이 절은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안동 김씨의 거두 김좌근이 1853년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 온다.

● 돈암장

돈암장은 1945년에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한 뒤 이승만이 한국하여 처음 기거했던 사저로서 돈암동에 있다 하여 ‘돈암장’이라 하였다. 돈암동에서 동소문동·동선동·삼선동이 분리된 것이 1963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곳은 돈암동이었다. 이 집은 당시 조선타이어주식회사 사장이었던 장진영으로부터 빌린 집으로서, 장진영은 연건평 약 150평의 세 채 중 한 채만을 쓰고, 안채인 54평과 또 다른 한 채를 빌려주었다. 돈암장은 약 700평의 정원에 뛰어난 미관을 지녔다. 장진영은 6·25전쟁 때 납치되어 죽었고, 돈암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번지의 1호 및 2호로 분할되어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채 3명의 소유자에게 나뉘어 있



청룡암

다. 이승만은 한국 후 조선호텔에서 며칠을 묵다가 경비 과중으로 이 집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윤치영(비서실장)·이기봉(서무담당)·윤석오(문서담당)·송필만(비서) 등이 보필하였고, 와병중에는 임영신이 간병하였다. 이승만은 돈암장에서 미군 정청으로부터 추대되었던 민주의원 의장직을 버리고, 공산계열의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대결을 하면서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열중하였다. 극도의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승만은 장진영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고를 받았고, 이 소식을 들은 미조선주둔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의 주선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다나카가 쓰던 마포장을 얻어 이사하였다. 돈암장 시절 이승만의 하루 일과는 바빴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돈암장 뒤뜰에서 장작 패는 것을 잊지 않았다. 70세 노인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장작 쪼개지는 소리가 시원스러웠다고 한다. 돈암장은 이전에 내시(內侍)가 살던 집이라는 설도 있으며,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평산목장(平山牧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평산목장은 1929년에 일본인(香川守行)이 창립한 합자회사로 젓소의 사육과 우유를 판매하였다.

● 돈암시장

돈암동로터리 변에는 돈암시장(동소문동 5가 55-1)이 일제강점기 말부터 공설시장으로 설립되어 왔는데 성북천을 복개하여 시장이 확장되었다. 그 전에는 필요한 물품을 작은 가게에서 구입하거나 동대문 근처(현 경동시장)에서 열리는 5일장을 이용했다.

● 전차

1960년대에만 하더라도 미아로에는 전차가 운행되었다. 미아로에 놓인 돈암동선은 처음에 충무로 4가에서 창경원 앞까지 운행되다가 1939년경 홍예만 남은 혜화문을 열어 버리고 도로를 넓힌 뒤 전차 노선을 돈암동(현 동선동 1가 1번지)까지 연장하였다. 광복 후에는 을지로 4가에서 돈암장까지 운행했는데 혜화문에서 동소문으로 넘어오는 동소문고개는 비교적 고개가 높은 관계로 전차가 승객을 가득 싣고 넘어오려면 속도가 느려 사람들이 걷는 걸음속도밖에 되지 않았다. 69년 3개월 13일 동안 연장 2억km로 서울 거리를 누비면서 연 40억 명의 승객을 태웠던 전차가 1968년 11월 29일 오후 8시를 마지막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 성북공원

성북공원은 동소문동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단지 뒤편과 성북구민회관 인근의 야산에 조성된다. 이 공원은 성북구민회관과 맞닿아 있으면서 북악산길 끝 지점과 성북동 고급 주택가와도 인접해 있다. 현재 녹지공간이 부족한 이곳 일대에 성북공원이 조성되면 새로운 명소로 부상할 것이다.

● 성북천(또는 안암천)

동소문 밖을 나가면 성북동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 청계천에 합류되는 개천이 있다. 성북천 또는 안암천이라 하는 이 개천은 1940년대만 해도 맑은 물이 흘러 개구쟁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며 빨래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 개천을 따라 가면 산지가 서로 통하는 곳에 노송이 울창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 부근의 저지를 삼선평(三仙坪)이라고 했으며, 전에는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 개울바닥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군대의 연병장으로 사용되었다.



성북문화원

● 성북문화원

동소문동에 위치한 성북문화원은 주민들이 직접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성북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이다. 1996년 성북동에 거주하는 재계 원로, 대학 총장,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북구를 위해 뜻있는 일을 하자는 성북구청의 취지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인 형태의 문화원을 설립하였다. 당시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구두회 LG그룹 창업 고문, 정관현 삼화그룹 회장, 김상하(주) 삼양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조동식 인켈 명예회장, 천신일 세종회장,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대표, 남충우 타워호텔 회장 등 재계 70여 명과 문화계·학계의 서세옥 서울대 미대 명예교수, 전성우 간송미술관장 등이 참여하였다. 성북문화원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주도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선들의 놀이터

삼 선 동



삼선동의 발자취

삼선동의 동명은 해화문(동소문) 밖의 평평한 들판을 삼선평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따 지어진 것이다. 원래 삼선평이란 이름은 이 동 남쪽의 옥녀봉 봉우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과 더불어 옥녀가 놀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삼선(三仙)이란 지명으로 보아 통일신라 때 화랑도를 국선도라 칭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하던 곳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지명에 '선(仙)' 자가 있으면 대부분 화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삼선평은 오늘날의 동소문동·삼선동의 저지대를 일컬었다. 조선시대 초부터 한성부 동부 승신방(성외)에 속해 있었으며, 그 당시의 마을 명칭은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 말에는 '삼선평'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일제가 한국의 국권을 병탄한 후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5부 8면제를 실시하였다. 이 때 종래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여 경기도에 예속시킴으로써 삼선동을 경기도 경성부 승신면 돈암리라고 하였다. 1914년 4월 1일 일제는 우리나라 전국의 지방조직을 자의로 개편할 때 승신면과 인창면을 승인면으로 만들어 삼선동은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돈암리라고 하였다.

1936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을 확장할 때 삼선동은 경성부에 다시 편입되어 돈암정이란 일본식 동명이 되었다. 1943년 4월 1일 서울에 구제(區制)를 실시함으로써 삼선동은 동대문구에 속하였다.

광복을 맞은 후 서울의 동·가 명칭은 우리 고유의 명칭으로 고쳐지게 되어 일본식

동명으로 사용된 돈암정을 돈암동으로 개칭하였다.

1955년 4월 18일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삼선 제1동~제3동회 명칭이 나타났으나 돈암동이란 법정동명은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개칭된 동명은 아니었고, 동장의 행정구역 관할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돈암동에서 삼선동 1·2·3가로 처음 분동된 것은 196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가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 시행되면서부터였다. 이 때 이 동 외에 동소문동 1~5가, 동선동 1~6가도 돈암동에서 분동되었는데 당시 삼선동 1·2·3가 지역은 1955년 4월 18일 동제 실시 때 확정된 동장 관할구역이었다. 그 후 삼선동 1·2·3가는 분할되어 현재 1·2·3·4·5가로 되어 있다.

이 동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보면 1955년 4월 18일 동제 실시 때 삼선 제3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삼선동 지역은 3개의 동장 관할구역이 되었다. 즉 삼선동 지역은 일제강점기부터 행정동명으로 옥구동부(旭丘東部)·서부동회라고 명칭을 붙여 1955년까지 사용되었는데 동제(洞制) 실시로 옥구동부동회는 삼선 제1동회로 되고 옥구서부동회는 삼선 제3동회로 개칭되었다.

1980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3만 명이 넘는 과대동은 동사무소를 신설해서 분동하고 1만 명이 못 되는 과소동과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동장 관할구역은 폐동 시킴에 따라 종전의 삼선 제1·2동사무소를 1개로 통합해 삼선 제2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종전의 삼선 제3동사무소의 명칭은 삼선 제1동사무소로 개칭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삼선 제1동사무소 관할지역은 삼선동 1·2가 지역과 돈암동 일부(산 48·184·485·509·511·512번지)이고 삼선 제2동사무소 관할지역은 삼선동 3·4·5가, 동소문동 5가 지역과 돈암동 일부(183·184·186번지)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삼선동은 성북구의 서남쪽 혜화문 밖 성북천(안암천)의 만곡 동류하는 곳 남쪽 일대로서 종로구와 경계가 되는 도성의 동쪽지역이다. 즉 삼선동 1~5가 지역의 북쪽은 성북천을 끼고 동소문동 2·3·5가 및 동선동 1·2가, 그리고 미아로를 경계로 성북동 일부와 나뉘고 있다. 동쪽은 보문동 1·2·3가와 인접되어 있으며, 남서쪽은 도성을 끼고 종로구 동숭동·혜화동·창신동과 접경되어 있다.

삼선동의 이모저모

● 서울 성곽(사적 제10호)

삼선동의 서쪽과 남쪽의 경계를 이루는 도성은 '서울 성곽'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천도한 후 종묘·사직의 건축을 하고 궁궐인 경복궁이 거의 완공될 무렵인 1395년 도성축조령을 내렸다. 성기(城基) 결정에 대해 일설에서는 무학대사가 잡았느니, 혹은 겨울철인데 눈이 온 뒤 이상하게도 성을 쌓을 자리만 눈이 녹았으므로 눈 녹은 자리를 따라 성을 쌓았다는 등의 전설이 있다.

1396년(태조 5) 1월 9일 백약신과 오방신에게 도성 축조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2월 28일까지 49일간 제1차 도성공사가 있었다. 연인원 11만 8,070명의 민정이 동원되어 97개 공구로 나뉘어 40리(17km)의 도성을 쌓았는데 전체 길이의 3분의 2 이상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

1차 공사 때는 대부분 토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해 여름 장마로 무너진 곳이 많았다. 이에 태조는 주위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정 7만 9,400명을 다시 동원하여 9월 1일부터 49일간 제2차 공사를 진행시켜 무너진 토성을 석성으로 바꾸고 8개의 문루를 건축했다. 그리고 1398년(태조 7)까지 계속해서 매년 도성을 수축하였다. 그 후 태종은 도성의 확장과 수축을 계획했으나 민정을 살피고 나서 축성의 서두름을 취소하고 보류시켰다.

한편 도성의 대부분이 토성인 관계로 축성한 지 20년이 지나자 거의 훼손되어 풀베는 아이와 나무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넘나들었다. 이에 세종은 무너진 곳만 막

는 소규모의 보수공사를 하려 했으나, 상왕인 태종의 지시로 8도의 민정 32만 2,640명을 동원하여 1422년(세종 4) 1월 15일부터 40일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다. 각기 40일간 양식을 싸가지고 서울에 집합하게 한 결과 서울 인구 10만 명의 3배 이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므로 쌀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각 지방 수령들은 40일 동안 담당구역의 수축을 다 마치면 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을 독촉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역했다. 이에 세종은 각 수령들에게 엄명을 내려 성문을 여는 파루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성문을 닫는 인정 때까지만 공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루 17~18시간의 중노동을 견디다 못한 민정 중에는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다. 이것을 막기 위해 초범자는 곤장 80대를, 재범자는 사형에 처하는 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세종은 추위로 동상에 걸리거나 부상자가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의원 60명을 서울의 두 곳에 대기시키고, 승려 탄선을 불러 승려 300명으로 구호활동을 펴게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완공될 때까지 872명이 사망했는데 부상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세종 때 축성된 도성은 모두 석성으로 자연석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다듬어 쌓은 것이 특색이며 태조 때보다 1척씩 높게 쌓은 외에 성첩(城牒)을 쌓아 군사들이 전투 때 이 성첩에 의지해 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성 안팎에 15척의 도로를 내 순찰에 편하도록 하였으므로 도성의 위용은 세종 때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도성의 관리를 위해 성문도감을 설치하고 우의정을 책임자로 8인의 실무진을 두어 10일마다 한 번씩 도성 내외를 순찰하고 보고를 하게 했다.

문종 때에는 경기·충청·전라도의 현역 수군을 동원하여 수축하였다. 이는 각 도의 백성을 동원하여 민원을 사는 것보다 큰 임무가 없는 수군을 시켜 수축하는 것이 편했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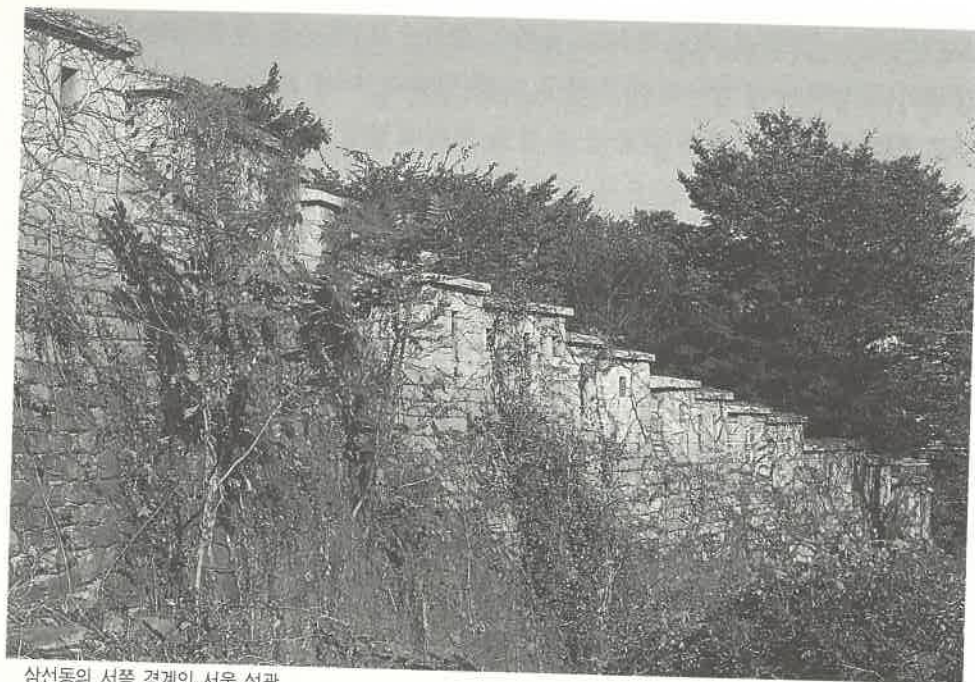
임진왜란 때 왜군이 서울을 철수한 다음 서울에 환도한 정부는 도성 수축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울 수복 후 1개월 후부터 도성 수축에 들어가 도성 안에 설치되었던 왜군 진지를 철거하고 그 돌로써 도성을 수축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도성의 수축과 아울러 네 곳에 포루를 설치하고 도성 밖에 해자(壕字: 성 밖에 둘러 판호)를 파도록 명했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혹심했던 그 당시에 실현되지 못했다.

1661년(숙종 즉위)에 청나라가 오삼계의 반란으로 원군을 청해오자 조정에서는 자강책이 주장되어 북한산성의 축성 논의가 있었다. 이에 1704년 도성의 수축을 먼저 하고 북한산성의 수축은 다음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도성을 모성(母城)으로 삼고 북한산성을 자성(子城)으로 삼아 적의 침입시 도성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산성과 도성 수축을 놓고 어느 것을 먼저 쌓느냐로 격론이 벌어졌는데 결국 도성 수축을 선행하기로 의견이 기울어져 1704년(숙종 30) 3월 25일 공사가 착수되었다. 삼각산에 도성 수축을 선행하기로 정하고 공사는 5군영에 분담시켜 책임을 지게 하였다. 수축의 첫번째 일은 필요한 돌을 떠서 운반하는 일이었다. 성을 쌓는 것은 5개월 후부터 시작되었다.

돌을 뜨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어서 동대문 밖 노원과 주암 등지에서 채석하게 하고 축성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산(四山)의 벌레 먹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기도 민정(民丁)으로서 5군문에 속한 자는 농사를 폐하고 돌을 운반하는 일에 매달려 사상자가 많이 생겨 민원이 많았다. 채석장소가 거의 30리나 되는 먼 곳이어서 한 명이 하루에 한 개밖에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정릉 근처의 구준봉 밖 청수동에서 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여름에 가뭄이 들어 7월에 작업을 일단 중지하게 되었고, 공사 재개에 대한 문제로 갑론을박하였다. 또한 도성 수축을 청나라에 통고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공사 진행에 큰 지장을 가져왔으나 한성판윤 민진후와 병조판서 유득일, 좌의정 이유가 강력히 왕에게 건의하자 왕은 “몇 년을 두고 논의한 끝에 도성 수축을 결정하였는데, 어찌 그것을 방해하는 말이 있다고 하여 변경할 수 있겠는가. 앞서 분부한 대로 수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1705년 6월에 공사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어 1706년 9월까지 도성의 동·서쪽 수축을 마치고 1709년(숙종 35)에 도성 남·북쪽 수축이 끝났다. 그 이듬해 봄부터 성첩 공사가 착수되어 7,081개의 성첩이 이루어졌다.

이 때 도성 수축은 매우 중요시되어 공사의 진행을 균율로써 다스리게 하고, 동역(董役)의 장교와 석공의 이름을 수축한 성벽 석면에 새기게 하여 부실로 후일에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엄격한 규율 하에 공사를 진행시켰다.

숙종 때 수축된 도성의 특색은 상하 모두 약 2척의 방형이고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없이 수직으로 쌓았는데 동대문, 백악 동쪽, 광희문 부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삼선동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그 후 영조는 외적의 침입시 도성을 지키기로 결정



삼선동의 서쪽 경계인 서울 성곽

하고 1743년(영조 19) 11월 3군문에 명하여 도성의 수축을 분담시켰다. 그러나 이때 공사가 착수된 것 같지는 않고, 1745년(영조 21) 7월 다시 3군문에게 도성 수축을 분담시켜 이듬해 7월에 완공하였다. 대원군이 집권한 후 경복궁 중건 때 도성도 수축하였다. 그 후 1879년(고종 16) 8월과 11월에 도성의 성첩 개수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1898년(광무 2) 10월에 남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처음으로 가설되어 1899년 5월 17일에 개통되자 동대문과 서대문 부근의 성곽 일부를 철거하였고, 1907년(융희 원년) 7월 일본 황태자 대정(大正)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남대문 북쪽 성벽을 철거하여 성 내외로 통하는 새 도로가 개통되었다. 즉 일제는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성벽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908년(융희 2) 3월부터 동대문 북쪽 성벽과 동대문 남쪽 5간수문, 남대문 남쪽 성벽의 철거에 착수하고자 했다. 이는 성벽을 모두 철거하려 한 것이었으나 우리 국민들의 반발로 성벽처리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내부(內部)의 지방국과 토목국이 이를 이관받아 그 해 9월 서대문 부근의 성벽 77칸과 남대문 부근의 성벽 77칸이 각각 철거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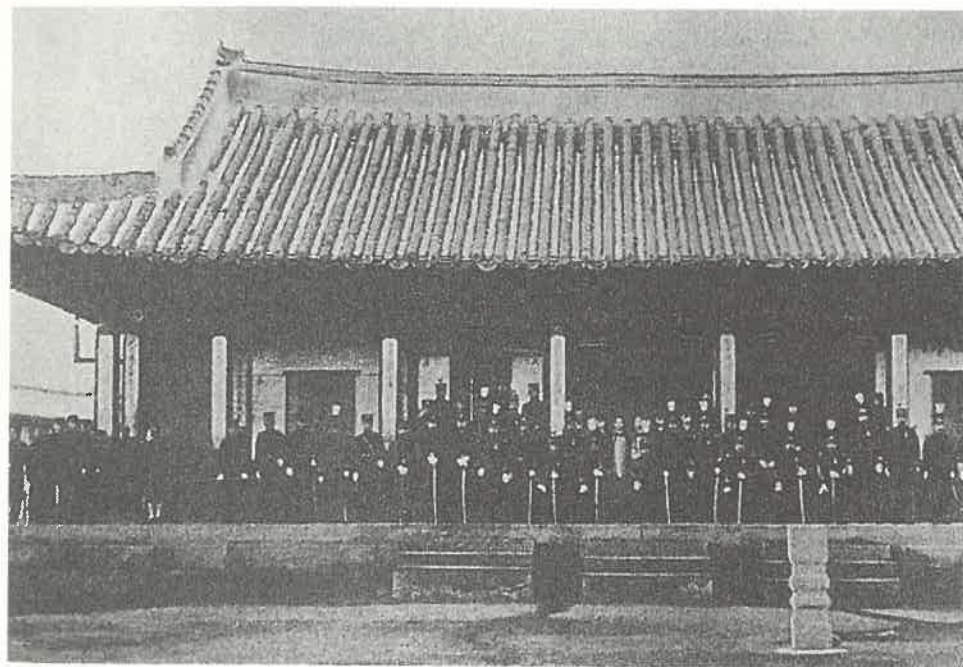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성북구와 종로구를 분할하는 성벽은 많은 훼손을 당해 성북구의 경우 혜화문에서 성북동으로 넘어오는 길을 내기 위해 성벽이 허물어졌다. 동소문에서부터 삼선동 1가까지의 성벽은 성첩이 거의 남아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가 허물어져 아이들이 넘나드는 정도였다.

광복 후에도 도성은 거의 방치되어 오다가 1963·1972·1976년에 서울특별시에 서 개축·보수하여 원형을 되찾았다.

● 삼군부 총무당

삼선동 1가 서남쪽 한성대학교 옆 삼선공원 안에 지방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된 삼군부 총무당(三軍府 總武堂: 삼선동 1가 179-5) 청사가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세워졌던 건물로 1930년에 현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그 후 1942년 일제강점기 말에는 경기도 공무원 연수장으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6·25전쟁 후에는 고아원이 들어섰다가 서울시 직업훈련원의 사무실로도 쓰였다. 이 건물이 낡고 퇴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해체한 후 보수·복원 공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인 1979년 12월 20일에 완공되었다. 1982년 삼선공원이 조성되면서 삼군부 총무당 청사는 이 공원 한복판에 서 있게 되었다. 「총무당」이란 현판이 걸린 이 청사는 건평 72.1평으로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조선 말기의 전형적인 관아건물로써 북쪽에서 보면 5별대 높은 기단 위에 2고주(高柱) 7량(樑) 팔작지붕에 한식 기와를 얹었으며, 막새와를 썼고 용마루 끝과 내림마루 끝에는 용두를 얹었다. 사래 끝에는 토수를 끼웠고 겹처마이다.

조선시대 말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 외척세력을 배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865년(고종 2)에 310년 동안 군국사무를 담당하던 국가의 최고기관인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했다. 그리고 정치는 의정부에서 맡도록 하는 한편 삼군부(三軍府)를 설치하여 치안과 국방 관계를 담당하게 하였다. 삼군부는 조선 초의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계승한 것으로 훈련도감의 신영(新營)·남영(南營)·마병소(馬兵所)로서 국가의 중추적인 관아로 삼았다. 그리하여 청사자리를 광화문 앞의 예조(禮曹: 현재 정부종합청사 자리)가 위치하던 곳으로 정한 뒤 1868년(고종 5)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때 총무당을 정당(正堂), 즉 중심 건물로 삼고 그 좌우에 청헌당(淸憲堂)과 덕의당(德義堂)을 지었던 것이다.



삼군부 총무당의 옛 사진



현재의 삼군부 총무당



삼선교와 삼선시장 일대, 군사들의 열무장이었던 삼선평

그 후 삼군부는 훈련도감·어영청·총융청·금위영·용호영 등 5개 군문(軍門)을 비롯하여 전국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병인양요·신미양요 때에 위세를 떨쳤다가 개항 이후 1880년(고종 17)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 법화사

한국불교 법화종 법화사(2가 233)는 한성대학교 정문 못미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절은 1941년 10월 송인동에서 포교하다가 이전해 왔는데 법화회란 이름으로 적극적인 교회를 펴 왔다. 1946년 3월 법화경을 받들어 신봉하는 사람들이 법화종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뒤 1960년 4월 대한불교 불입종·일승종이 분파되면서 그 해 8월에 김운운사를 법주로 한국불교 법화종으로 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삼선평과 삼선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을 삼선교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옛날 이곳에 성북천

을 건너는 삼선교라는 다리가 있기 때문이다. 삼선교는 지금의 서울은행과 나폴레옹제과점 사이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성북천이 복개되면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삼선교는 삼선평의 이름을 따서 성북천에 놓여진 다리 이름으로 동소문동과 성북동·삼선동의 경계가 되는 곳에 놓여 있었다. 미아로에 놓여진 다리와 그 남쪽에 인도교가 각각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성북천 일부가 복개되어 삼선시장과 상가, 아파트가 들어섰으므로 눈에 띄지 않는다. 45년 전만 해도 이 다리 밑을 흐르는 성북천의 물이 깨끗해서 여인네들의 세탁장이 되었고, 아이들의 물장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다리 밑에 무허가 움막집이 있어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려 물이 넘치면 수해를 입곤 했다.

● 성북천(안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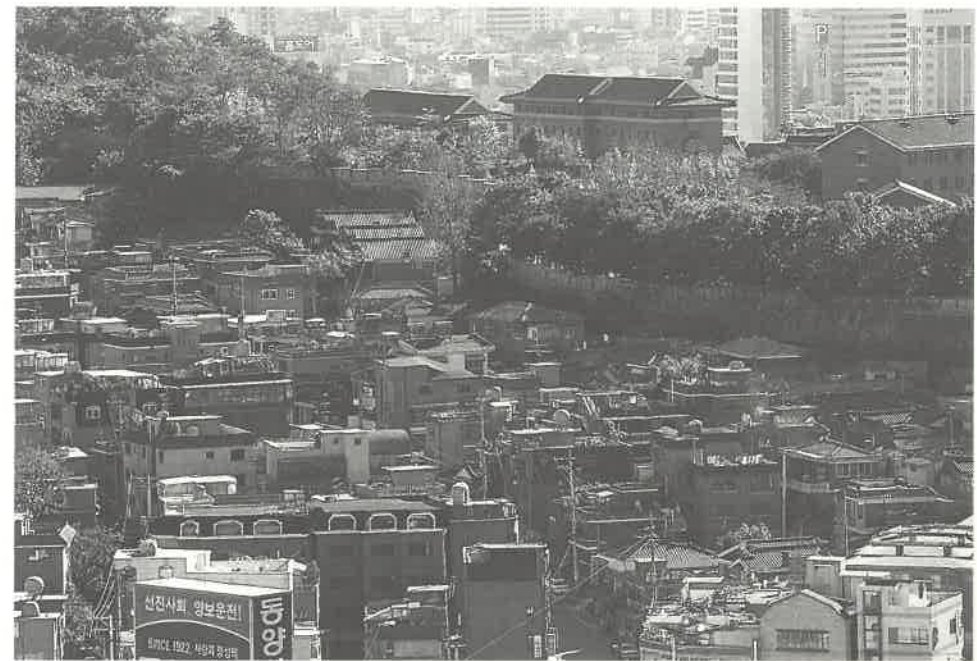
현재 삼선동 5가와 보문동이 만나는 보문 2교까지 복개가 이루어진 상태라 그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성북천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삼선시장을 통해 안감내길로 연결되는 가로지 형태를 살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굽이쳐 돌아 가는 도로가 복개되기 전의 하천의 유로를 알려 주며, 복개되기 전에는 이곳 주민들이 강가에서 빨래도 하였고, 집 없는 부랑인들이 살기도 했다고 삼선시장 상인들은 말한다. 성북천이 혼탁해진 것은 6·25전쟁 후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옥녀봉

동소문동과 맞닿아 있는 삼선교부터 점차 지대가 높아져 남쪽의 1·2·3가에 가서 낙산과 통하게 되는 곳이 과거에 '옥녀봉'이라 부르던 곳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세 명의 신선이 옥녀와 함께 놀았던 곳이라는 전설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성북천이 흐르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때에는 옥녀봉 구릉지대에서 염소들을 풀어 키우기도 했었다.

● 한성대학교

한성학원이 설립된 것은 광복을 맞은 1945년이다. 평소 교육사업에 남다른 집념과 의지를 갖고 있었던 우촌 김의형 박사가 경성여자기예학교를 인수하여 그 해 10월



삼선동 1가의 연립주택가 : 옥녀봉 구릉

5일 한성고등여학교를 개교하면서 시작되었다. 1946년 4월 9일 한성고등여학교(6년제)로 인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5일 학제 변동에 따라 한성여자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가 1952년 5월 한성여자중학교 6학급, 한성여자고등학교 6학급으로 분리되었다.

1972년에는 학원의 숙원사업이던 대학을 창립하였다. 즉 한성여자대학으로 설립되어 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가정학과·의상학과·생활미술학과·비서학과 등 6개 학과 150명 정원의 야간대학으로 출범하였다. 1973년 3월 초대 학장에 우촌 김의형 박사가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한성대학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우촌 선생은 학장 취임과 동시에 학과 증설에 나서 1년도 안 되어 기존의 6개 학과 중 비서학과를 폐과시키는 대신 불문학과·무용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 등 4개 학과를 증과, 인문학부·예술학부·사회학부 등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체계와 면모를 갖추었다.

한성학원의 설립자인 초대 김의형 학장에 의해 대학으로서의 면모와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1977년에 2대 학장으로 취임한 이희순 학장이 팔목할 만한 몇 가지 조



한성대학교

치를 단행, 한성여자대학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우선 '한성여자대학'을 '한성대학'으로 교명을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부터 야간대학에서 주·야간대학으로 바뀐 점도 괄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였다. 1978년에는 증과·증원이 이루어져,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의상학과·생활미술학과·무용학과 등 5개 학과의 정원이 각각 30명에서 10명씩 증원되었고, 경영학과와 무용학과 등 2개 학과는 50명씩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가정학과 대신 행정학과가 신설되어 총 9개 학과에 입학생 수가 380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사학과를 사학과로 학과 명칭을 1977년에 변경하였다. 1987년 산업공학과·전산통계학과·의류직물학과·산업디자인학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하여 총 15개 학과 720명 정원의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경영·행정대학원도 설립하여 본격적인 대학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 방공호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함에 따라 조선도 그에 휩싸인 1944년 무렵부터 조선총독부와 경성부는 성북동·돈암동 등 일대의 산지에 규모가 큰 방공호를 다수



성북구청

구축하였다. 미군의 본토 상륙작전에 앞서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에서였다. 경동고등학교(삼선동 3가 50번지) 북쪽 담 건너편 산허리에도 몇 개의 방공호가 있었다.

이들 방공호는 광복이 된 후 만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의 거주지가 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토막민(土幕民)이 된 것이다. 소설가 김동리(金東里)는 잡지 『백민(白民)』 1947년 3월호에 소설 「혈거부족(穴居部族)」을 발표하여, 이 무렵 사람들의 생활을 동굴생활에 비유하였다. 그 가운데 방공호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선교와 돈암교 사이의 그다지 높지 않은 구릉 옆을 뚫은 10여 개의 구멍들, 그 앞은 앞가릴 만한 것도 없이 허연 신작로가 지나가고 있다. 거적때기로 굴 앞을 막고 지내기 때문에 여름철은 그럭저럭 명랑하고 화창한 편이기도 하지만, 길고 지루한 겨울을 바람막아 줄 것 없이 지내자면 거적때기로는 지낼 수 없어 나무판자를 대야 하는데 그것조차 이곳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름에는 동소문 쪽에서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

고 가끔 미국 비행사가 공중에서 소독약을 살포해 주기 때문에 모기의 극성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다.

① 성북구청

1949년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1950년 3월 30일 동소문동 3가 29번지 3층 석조건물을 청사로 삼아 개청식을 가졌다. 그 후 1957년경 삼선동 5가 411번지 현재 위치로 옮겨와 업무를 보다가 1977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였다.

서울 동북 교통의 요지

동 선 동



동선동의 발자취

동선동은 개운산의 서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동북 방면 교통의 요지를 이루고 있다. 동선동을 지나가는 길로 혜화동에서 미아리고개로 넘어가는 큰길 미아로, 보문동을 지나 돈암교를 연결하는 난계로, 동선동에서 정릉으로 바로 나가는 아리랑로, 돈암동에서 하월곡동으로 이어지는 서라벌로 등이 있어서 동선동은 교통의 요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북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동선동은 조선시대에 한성부 동부 송신방 지역에 속하였으며, 이웃에 삼선평·돈암현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삼선평은 조선시대 군대의 연병장으로 쓰였고, 돈암현은 병자호란 때 ‘되놈’들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쳐들어 왔다고 해서 ‘되너미고개’라는 별칭이 붙은 것을 한자식으로 표현해 돈암현이 된 것이다. 1914년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하여 부·군·면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이 있을 때 이 지역은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가 되었다. 1936년 다시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장되자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는 정릉리의 일부가 포함되어 돈암정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11년 우리의 동명을 일제식으로 모두 고친 것을 광복이 되자 우리 고유의 동명으로 다시 고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경성부정회연합회에서는 우리말 동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종화·유억겸 등을 개정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 운동은 더욱 파급되어 민주의원에서도 조소앙·백상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성의 구급도로명칭(區及道路名稱)에 대한 개정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동선동 일대가 주택지로 형성된 것은 1936년에 서울의 최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영등포와 더불어 돈암지구가 선정되어 택지가 조성되면서이다.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의 시가지계획구역을 고시하고,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에 '총독부고시 제 722호'로 가로망계획과 더불어 5,226만 6,900m²(약 1,581만 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토지구획정리지구(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하였다. 총 10차 30개 지구 중 1차년도 3개 지구 279만 300평에 영등포지구 157만 7,900평, 돈암지구 71만 3,900평, 대현(大峴)지구 49만 8,500평이 먼저 시행되어, 1937년에 시작, 194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 12월 말에는 부내 10개 구획정리지구의 공사진척도 중 가장 앞서는 96%의 공사가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택지로 조성된 안암천 주변의 돈암정(삼선동·동소문동·동선동·돈암동·보문동 포함) 일대가 경성부 내의 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 단체의 종류 이상 근무자들의 주거지로 변신하였다.

광복 후 정부는 일본식 동명 돈암정을 돈암동으로 변경하였으나 한 개의 동으로서는 지역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를 삼선동·동소문동·동선동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동이 당장 실시되지는 않았다. 1947년 말까지는 돈암동 구역 내에 동소문동·동선남부동·동선북부동·정화동·육구동부동·육구서부동의 6개 동회가 있었다. 이 중 동선남부동과 동선북부동은 6개 동의 전체 인구 절반가량이 거주하였다.

1949년 돈암동은 동소문동·삼선동·동선동·돈암동으로 분리되었다. 이 중 동선동은 남쪽으로 삼선동·안암동에 연접하고, 서쪽으로 동소문동, 북쪽으로 돈암동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그리고 신설된 이들 지역은 다시 그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동선동 1·2·3·4·5개로 구분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동장 관할구역인 동회명은 전과 같이 돈암동의 구역 안에 있던 동선남부동·동선북부동·동소문동·육구동부동·육구남부동·정화동 등의 명칭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1953년 말에는 동소문동회(동회 소재지:돈암동 458-652)·육구서부동회(돈암동 471-100)·육구동부동회(돈암동 273-8)·동선남부동회(돈암동 278-3)·동선북부동회(돈암동 408)·정화동회(돈암동 산83-33) 외에 동선동부

동회(돈암동 9)가 하나 더 생겼다.

그런데 1955년 4월, 서울특별시의 동제(洞制)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동회 기구를 강화하여 행정동으로 하면서 구의 구역·명칭 등의 변경이 있었다. 이에 의해 종래의 육구서부동·육구동부동 대신에 삼선1·2·3동회가 새로 출발하였으며, 동선남·북·동부동회가 각기 다른 이름인 동선·남선·서선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또 정화동회가 그대로 행정동으로 남고, 전의 돈암동 지역 중 만곡형으로 남아 있던 지역에 북선동이라는 새 동이 생겼으니, 이것은 동선동의 북쪽을 의미하는 명칭이기도 하지만 선자가 붙은 동·서·남·북 4방위의 하나를 총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이러한 방위 표시의 동명 대신 제1, 제2식의 동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동선동 부근도 동선을 제외한 서선·남선·북선 등의 동명 대신 동선 제1동, 동선 제2동 등으로 바뀌었다.

동선동의 이모저모

● 아리랑고개(아리랑길)

아리랑고개는 돈암사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서쪽으로 동소문동, 동쪽으로 동선동을 지나 돈암동, 정릉길과 교차하는 아리랑시장 앞까지 폭 15m, 길이 1,450m의 가로명이자 고개 이름도 된다. 아리랑고개는 서울 시내 249개 가로명 가운데 길이 아닌 고개로 부르는 유일한 도로다. 아리랑고개의 명칭은 이름 그대로 이 도로에 돈암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유서 깊은 아리랑고개(일명 정릉고개)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그 유래로 1935년 일제강점기에 요리업자들이 고급 요정을 꾸며 손님들을 끌기 위해 민요 '아리랑'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설이 있으며, 또 여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촬영하였다고도 전한다.

최근 성북구는 구 특화사업의 하나로 아리랑길을 영화의 거리, 즉 '한국의 브로드웨이'로 조성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까지 완공 예정인 2차로에서 4~5차로로의 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이 길의 지명 유래에 걸맞는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거리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아리랑길 정상부에는 지상 3층 규모의 '영화 기념관'이 들어서며 중턱 부분에는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과 200~3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이 조성된다. 아리랑길 양쪽 보도는 '세계영화'와 '한국영화'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특색있는 문양 등으로 꾸며서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유치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땅 이름과 역사를 현대적인 문화로



아리랑길과 아리랑고개

재창조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점집

미아리고개를 넘기 전 미아로의 좌우 이면도로에는 역술인들이 모여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점집들이 생기면서 점을 배우려는 시각장애인들이 몰려 지금도 300여 점집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1997년 말에는 점자도서관도 설립되었다.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은 1936년 4월 28일 윤정 리숙중 박사에 의해 창립되었다. 일제의 잔악한 탄압과 민족 문화 말살정책이 한참 극에 달하던 때 리숙중 박사는 민족의 갱생과 국권의 회복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사재를 털어 성신을 설립하였다. 초창기에는 경운동 천도교 기념관을 빌어 임시 교사로 썼다. 경운동 천도교 기념관에서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1937년 8월 시천교 소유의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그 나름대로 학교 교사를 가지게 되었다. 1938년 3월에는 고등과가 특설되어 더



미아리고개의 점집

육 활기를 띠었다.

성신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가정교육을 시도하여 1939년 3월 29일 성신가정여학교를 설립하고, 일본 유학시절부터 뜻을 같이 했던 우당 조기홍 박사를 부교장으로 모심에 따라 성신가정여학교는 명실공히 가사교육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특별히 성신의 가사교육은 민족교육과 직결되어 있었다. 즉 가사교육을 통해 민족의 전통적 예법을 가르치고 그 속에 담겨진 애국애족의 정신을 일깨웠다.

일제강점기 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신은 알찬 교육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리숙중 박사는 1940년 9월 성북구 돈암동 173번지에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1942년 5월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 학교 부지가 모두 바위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지공사부터 애로가 많았다. 1944년 여름에 신축 교사가 일부 준공됨에 따라 견지동에서 돈암동으로 옮겼다. 1945년 3월 재단법인 강제학원을 설립하고 일제의 강요에 의하여 성신여자상업학교로 체제를 바꾸었다.

광복을 맞아 1945년 11월 성신은 다시 인문학교로 학칙을 바꾸어 성신고등여학교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1946년 9월 교육법 개정에 따라 6년제 성신여자중학교로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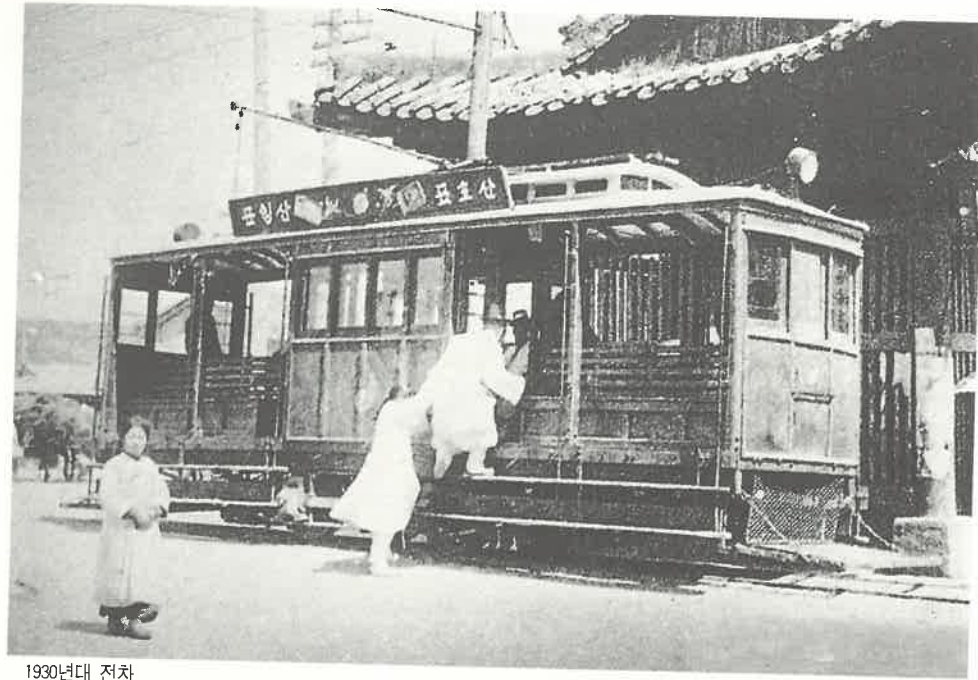


1944년에 완공된 성신여자대학교 본관

편했으며, 1948년 6월에는 재단 명칭도 성신학원으로 바꾸었다. 성신은 민족의 비극 6·25전쟁을 겪고 난 다음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1963년 1월에는 성신학원의 큰 전환점을 가져온 대학이 설립되었다. 성신여자실업초급대학에는 가정과·경영학과·공예미술과·피복학과의 4과가 설치되었다. 성신학원은 실업 초급대학을 기반으로 하여 1965년 1월 사범대학을 설립했다. 또한 성신학원은 사범대학의 발전과 성신 교육의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부속 교육기관을 계획했다. 그 결과 1월에는 부속초등학교가 1967년 10월에는 부속여자중학교가, 1969년 1월에는 부속여자고등학교가 각각 설립되었다. 1972년에는 대학원이 설치되었다.

1979년 10월 사범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하였으며 1981년 7월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다. 1996년 성신학원은 성신유치원, 성신초등학교, 성신여자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7개 단과대학, 대학원·교육대학원·조형대학원·정보산업대학원·인력대학원에 학생 약 1만여 명, 교직원 600여 명을 거느린 큰 학원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전차

● 전차종점

미아로에 놓인 돈암동 전차 노선은 처음에 충무로 4가에서 창경원 앞까지 운행되다가 1939년경 홍예만 남은 혜화문을 헐어 버리고 도로를 넓힌 뒤 전차 노선을 돈암동까지 연장하였다. 당시 돈암동 전차종점은 지금의 동선동 1가 1번지 성신여대 전철역 부근, 돈암사거리 일대였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버스종점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69년 3개월 13일 동안 연장 2억km로 서울 거리를 누비면서 연 40억 명의 승객을 태웠던 전차는 1968년 11월 29일 오후 8시를 기해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다.

● 패션거리

옛날 전차종점이 있던 곳이 이제는 강북지역의 패션거리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서 성신여대 앞은 카페골목에서 패션거리로 부상하면서, 1990년대에는 10대들의 천국이라는 제2의 명동 거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돈암사거리에서 정릉으로 이어지는 아리랑고개와 미아삼거리와 연결되는 미아리고개 방향, 문화전통의 거리인 삼선교·혜화동 방향에 둘러 싸인 강북지역의 주



성신여대 지하철역 주변. 옛 버스종점과 전차종점

요 상권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줄 점자도서관이 1997년 말 동선동에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은 동선동 4가 279-1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평 502평 규모이다. 점자도서관은 눈의 시력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시설 등 각종 재활시설을 갖추고 맹인 컴퓨터 지도, 점자 소식지, 점자 달력, 점자 소식 테이프 등도 발간한다. 시각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안마 지도와 맹인용 컴퓨터 교육 등 직업 교육도 실시하게 되었다.

돌산과 되너미고개

돈 암 동



돈암동의 발자취

현 재 미아리고개를 전에는 되너미고개라고 칭하였는데 이 고개 이름을 한자로 옮겨 돈암현이 되었으며, 돈암동의 동명은 돈암현이란 고개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돈암동은 북쪽으로 북악산길과 미아로를 경계로 정릉동·길음동·하월곡동과 접하고 있고, 동쪽은 산 능선을 따라 종암동·안암동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은 산 능선을 따라 성북동과 나뉘고, 남쪽은 동소문동·동선동과 맞닿아 있다.

돈암동은 조선 초부터 한성부 송신방(성외)에 속하였는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후 1911년 4월 1일 한성부가 경기도에 예속되면서 경기도 경성부 송신면 돈암리로 되었다. 1914년 4월 1일 다시 일제는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축소시키면서 이동을 삼선평과 통합시키고 경기도에 소속시켜 고양군 송인면 돈암리로 바꾸었다. 1936년 4월 1일 일제는 경성부를 확장하면서 이동을 경성부에 편입시켜 돈암정(敦岩町)이란 일본식 동명을 붙였다. 그 후 1943년 4월 1일 이곳은 동대문구에 속하였다.

서울의 행정구역 축소로 경기도의 관할구역이 되었지만, 돈암리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거주지로 부상하면서 인구의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돈암리를 포함하고 있던 송인면의 인구가 1928년에 4,593호 2만 2,185명에서 1933년에는 7,416호 3만 6,797명으로 5년 동안에 인구는 65.8%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런데 돈암리는 1928년 406호 2,059명에서 1933년에 861호 4,199명으로 103.9%의 증가율을 보여, 송인면의 두 배에 이르는 인구 증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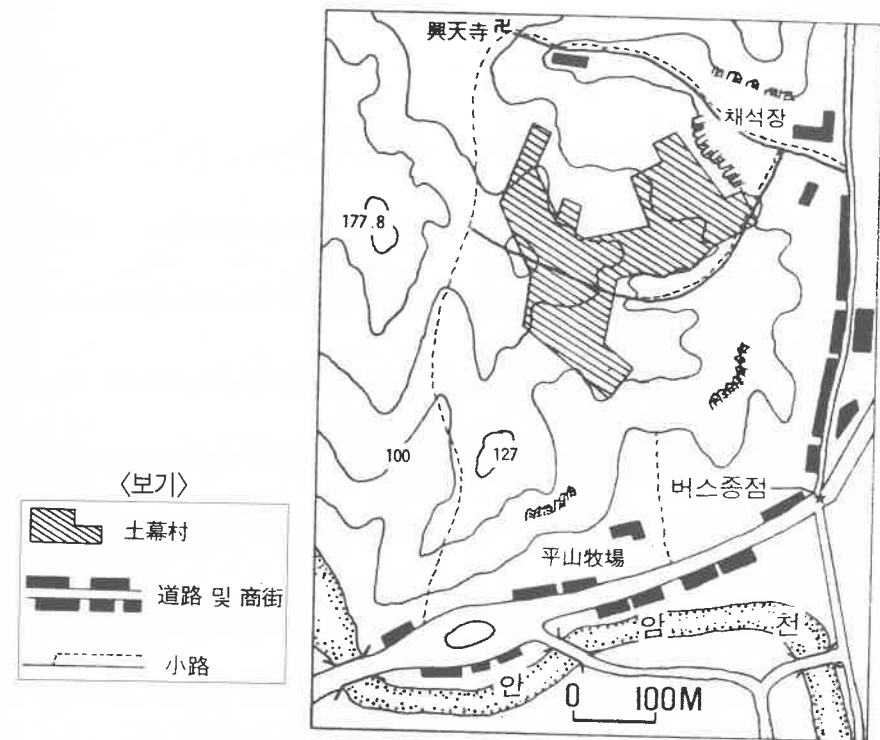
혜화문 밖 돈암동 방면을 본 광경(1894)



1930년대 돈암동 방면

이러한 인구 증가에는 일제강점기에 도시빈민의 하나의 유형인 토막민(土幕民)의 유입이 크게 작용하였다. 토막(土幕)은 토굴과 더불어 일제하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도시 슬럼의 주거형태이다. 이는 한일합방 이후에 실시된 이른바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농토를 빼앗기고 농촌을 쫓겨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하여 형성된 것이다. 특히 경성부의 토막이 대규모로 분포했던 지역은 신당정·홍제정·돈암정 등이었다. 토막은 192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30년대에 들어 급증하여 1935년에는 3,576호 1만 7,320명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서울 인구의 4.8%에 달하는 규모이다. 1939년에 토막수는 절정에 이르러 4,292호 2만 911명에 달하였다. 이는 경성부 또는 조선총독부에서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보다 적게 나타난 것이다.

1940년 당시 토막의 분포를 보면, 신당정이 1,423호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음이 홍제정의 930호, 돈암정의 844호였다. 또 안암천과 정릉천 연변에 1,238호의 대규모 토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돈암정의 토막촌(土幕村)은 해발 100m가 넘는 고지대의 구릉지에 입지하여 구릉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시 변두리의 빈민주거지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그림 1). 이곳은 재개발된 동소문동 한진·한신아파트 일대로서, 지금의 돈암사거리에 버스종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이점이 있었다. 경성부는 토막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토종(淨土宗) 개교원(開敎院)이 개설한 사회사업단체인 화광교원(和光敎園)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토막수용사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1934년에 돈암정의 국유림 2만 4,790평을 화광학원에 대여하여 주로 경성부 동북부의 토막민을 수용하려는 계획이 당국에 의해 수립되었다. 당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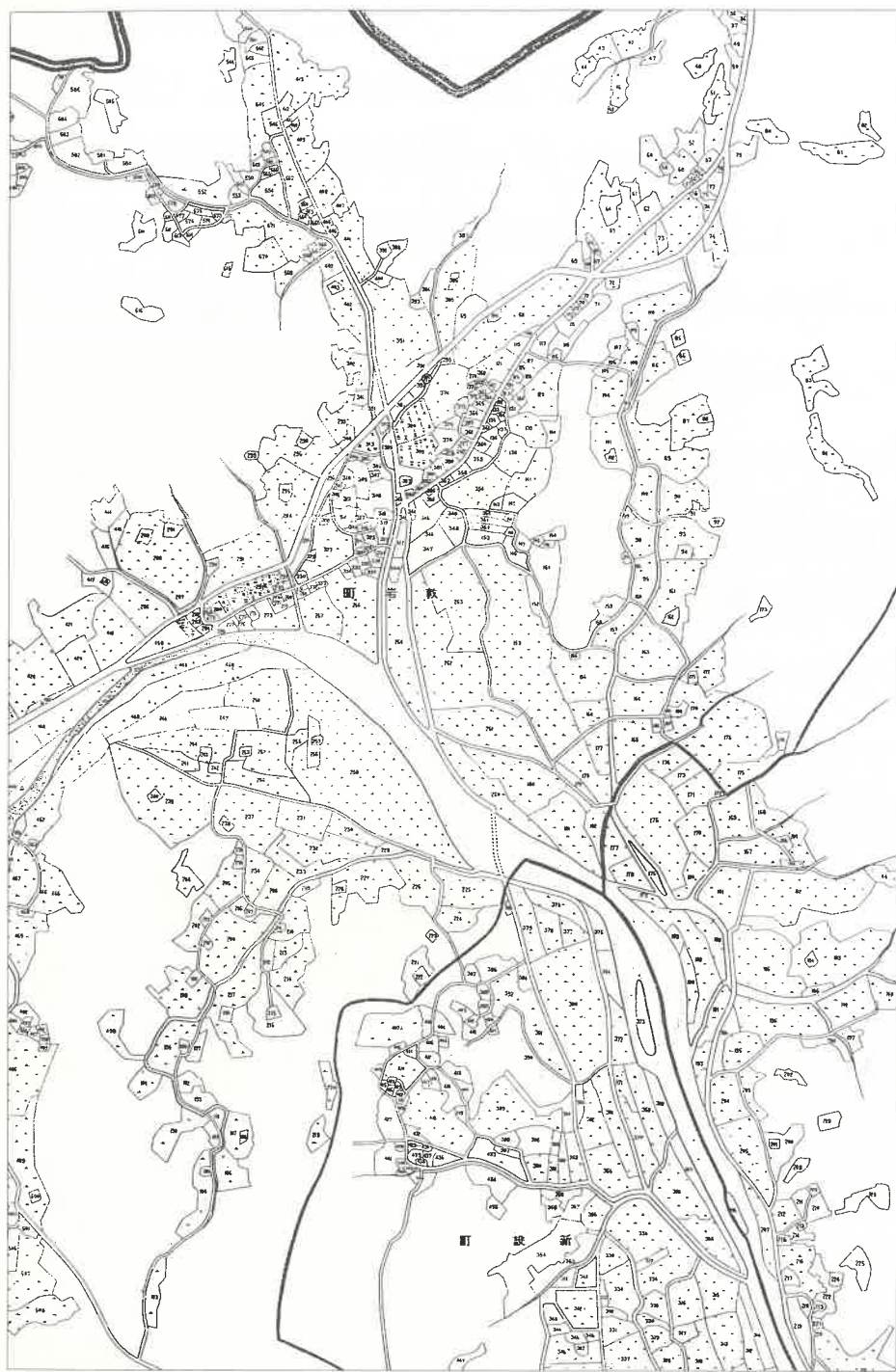


〈그림 1〉 돈암정 토막촌(土幕村)의 분포(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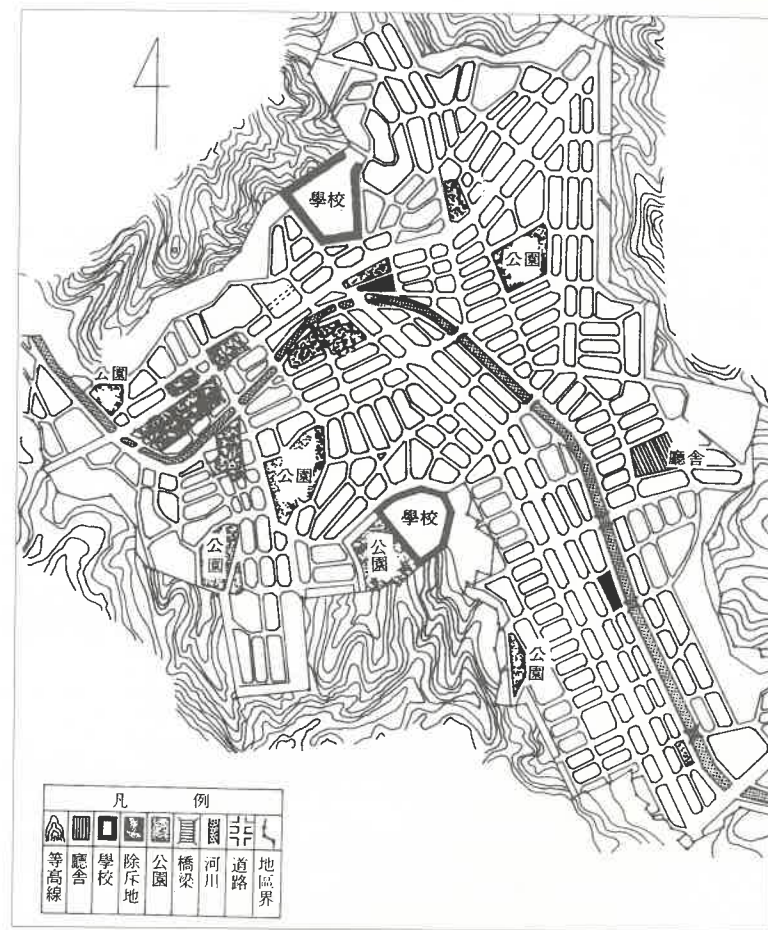
자료 : 南榮佑, 『문화역사지리』(1989),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46쪽

는 약 1,000호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토지가 급경사인 관계로 약 500호의 토막민밖에 수용하지 못했다. 토막민들은 1940년대에 들어 급속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태평양전쟁으로 일본 본토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토막민들을 강제로 일본 북해도 등지의 철도·토목공사장으로 파송한 것, 도시빈민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된 데 기인한다.

더욱이 1936년에 서울의 최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영등포와 더불어 돈암지구가 선정되면서, 돈암동 일대는 서울의 신시가지로 일약 주목받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의 시가지계획구역을 고시하고,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에 '총독부 고시 제722호'로 가로망계획과 더불어 5,226만 6,900m²(약 1,581만 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토지구획정리지구(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하였다. 총 10차 30개 지구 중 1차년도 3개 지구 279만 300평에 영등포지구 157만 7,900평, 돈암지구 71만 3,900평, 대현(大峴)지구 49만 8,500평이 먼저 시행되어, 1937년에 시작하



〈그림 2〉 1930년대의 돈암동 일대



〈그림 3〉 1930년대 돈암지구 구획정리계획 평면도

자료 : 岡田貢, 敦岩町區劃整理地とその今昔, 『京城土木建築業協會報』, 2~10쪽,
서울특별시 성북구, 『城北區誌』, 322쪽에서 재인용

여 194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경성부 영선과(營繕課)의 요시다(吉田正夫)라는 직원이 1941년 4월호에 기고한 「주택정책에 관한 일고찰」이라는 글에는 1940년 12월 말 현재 경성부 내 10개 구획정리 지구의 공사 진척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돈암지구의 정리공사는 96%로 소개되어, 동시에 시작한 영등포지구의 90%보다 6%나 앞서고 있었다. 이에 따라 택지로 조성된 안암천 주변의 돈암정 일대가 경성부 내의 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 단체의 중류 이상 근무자를 목표로 선전을 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기록을 통해 지금의 삼선동·동소문동·동선동·보문동·안암동 지역이 중류층 주거지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광복을 맞아 서울시에서 일본식 동명을 개칭할 때 돈암정은 돈암동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5일 성북구를 신설함으로써 이 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 돈암동이란 법정동명은 동소문 밖에서 미아리고개까지의 일대를 일컫던 대표적 지명으로 그 구역은 매우 넓었다. 즉 1949~1961년까지 존재했던 동소문동, 삼선 제1·2·3동, 동선동, 남선동, 북선동, 정화동사무소 관할구역이 모두 돈암동 지역이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이 지역 일대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소문동, 삼선동 1~5가, 동선동 1~5가 등이 분동되어 현재는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에 걸친 산록의 대부분 지역만 돈암동이 되었다. 동장 관할구역인 행정동 관계를 살펴보면 광복 후 1946년 동선북부동회, 정화동회가 현 돈암동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1951년 11월 23일 돈암동은 동선동부동회가 증설되어 7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졌고, 1955년 4월 18일 동제(洞制)가 실시되면서 동소문동, 삼선 제1·2·3동회, 동선동회, 남선동회, 서선동회, 북선동회, 정화동 등 9개 행정구역으로 되었다. 이 때 동사무소 관할구역은 현재 동선동 2가와 3가 일부가 동선동회 관할구역이고 현재 동소문동 5가, 동선동 1·3가 지역이 남선동회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동선동 4·5·7가 지역이 서선동회 관할구역, 동소문동 6·8가 지역이 정화동회 관할구역이 되었다.

1962년 12월 1일 동명과 구역을 제정하였는데 이 당시 돈암동 지역도 행정동 또는 동장 관할구역이 법정동으로 대부분 분동되었다. 즉 삼선 제1·2·3동장 관할구역이 삼선동 1·2·3·4·5가로, 서선동·동선동·남선동장 관할구역이 동선동 1·2·3·4·5가로, 그리고 정화동·북선동장 관할구역이 현 돈암동 구역이 되어 돈암동의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현재 돈암동 지역은 돈암 제1·2동으로 행정동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돈암동의 이모저모

● 미아리고개

미아리고개라 부르는 되너미고개는 적유령(狄踰嶺)으로도 부르며 병자호란 때 오랑캐, 즉 되놈이 서울에 침입할 때 이 고개를 넘어왔으므로 '되너미고개'라 불렀다. 또한 이 고개는 여러 가지 그 명칭의 유래가 전하는데, 남쪽인 돈암동 쪽에서 길 읊동을 지나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길목인 이 고개가 끝나면 고개가 없으므로 끝에 이른 고개, 마지막 고개라는 뜻으로 되너미고개라고 불렀으며, 또 돈암동 쪽에서 길 읊동 쪽으로 오를 때에는 경사가 몹시 심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므로 다시 요기를 해야 된다는 뜻인, 밥을 되먹는 고개라는 말이 변하여 되너미고개라고 불렀다고도 전해 온다. 되너미고개의 경사가 가파랐기 때문에 이 길은 도보로 가는 사람만 이용했고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우마차 등은 종암동의 말행길을 이용하였다.

이 고개는 지금은 여러 차례 깎여져 낮아지고 그 폭도 넓어졌지만 예전에는 몹시 험준했다. 1950년 6·25전쟁 때 공산군이 탱크를 앞세워 이 고개에서 아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6월 28일에는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다. 3개월 후 9·28 서울수복 때 쫓겨가던 공산군이 이 고개를 넘어 퇴각하면서 많은 애국 인사를 북으로 끌고 간 후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한 많은 미아리고개'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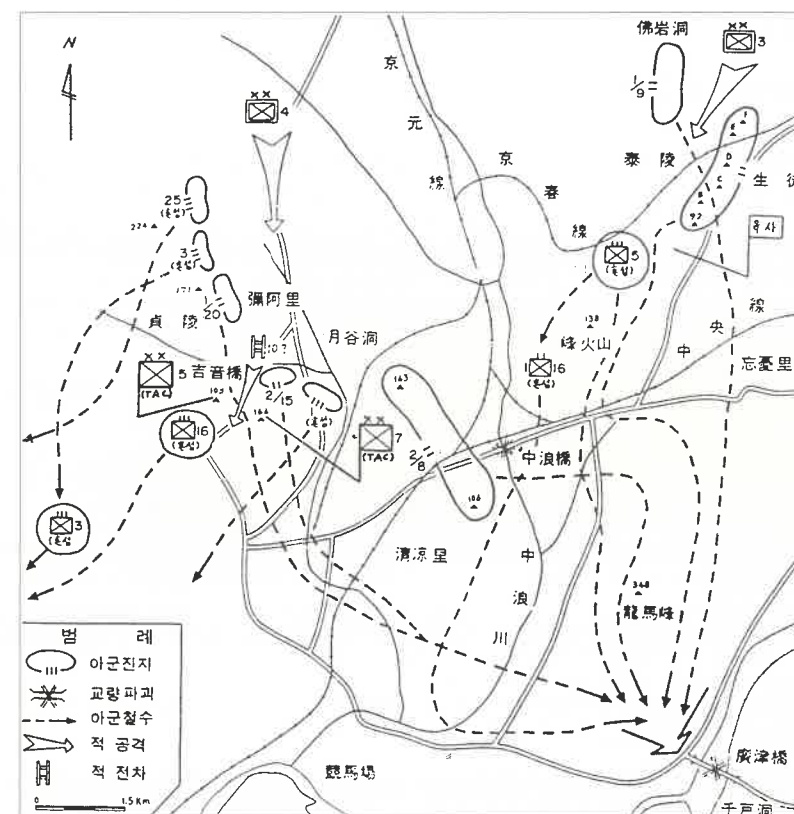
6·25전쟁 당시 기습남침한 북한 공산군은 탱크를 앞세워 3일 만에 의정부를 통과한 뒤 창동에 이르러 미아리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6·25전쟁이 발발하



옛 미아리고개



미아리고개



〈그림 4〉 6·25전쟁 때의 미아리 저지선

자 육군본부는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에 임하고 있던 제5사단 이응준 소장에게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려 서울 미아리 지구 전투사령관으로 부대 배치를 서두르게 했다. 이리하여 이응준 사단장은 미아리로 나가 의정부 방면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고, 청량리 북방에 배치할 제8연대의 1개 대대도 통합 지휘하여 수도 서울을 방수하도록 명령받았다. 상황이 급변하여 의정부가 함락되자 육군본부는 수색에 진출한 15연대 2대대를 급히 미아리고개에 배치하여 창동선을 보강케 하였다.

6월 27일 오후 2시에 창동 저지선이 붕괴되어 수도의 사수가 춘각을 다투는 위기에 직면하자 육군본부는 모든 가용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미아리 부근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하게 하는 한편 이에 앞서 제1사단으로 하여금 서북쪽에서 밀려드는 공산군을 저지하게 하였으나 창동선은 지탱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과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분산된 병력을 수습해 1개 연대 병력으로

태릉~하월곡동~미아리~정릉 간에 급히 진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병력과 장비 및 탄약 등이 부족하고 더구나 격랑을 헤쳐온 혼성부대의 병사들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북한 제1군단의 주력은 의 정부를 침탈한 뒤로 그 여세를 몰아 서울을 점령할 기도 하에 속공을 획책해 조기에 미아리선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6월 27일 오후에 미아리선에 배치된 제20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남침하는 적의 전차(戰車)를 저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차량장벽을 마련했다. 따라서 미아리 저지선에는 전방으로부터 축차 철수한 3,000명의 혼성병력과 제8연대 예하의 1개 대대 500명과 제3사단 공병대대 및 각 직할부대 등이 방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적전차가 시내에 돌입할 것에 대비하여 시내 요소에는 장애물도 설치하여 미아삼거리와 길음교, 그리고 돈암동 전차종점 부근에 수도경비사 장병들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차량 장벽이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창경원 입구와 안국동~종로입구~광화문~남대문~삼각지, 그리고 용산우체국 앞에도 수도경비사령부 및 육군본부 장병들에 의해 차량 장벽이 설치되었다.

이 장애물은 화물차량과 버스 등을 동원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정렬케 한 다음 차바퀴의 공기를 빼고 주요 부품을 제거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주위에 철조망 등을 쳐서 전차의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였다. 즉 서울 방수를 위한 최후저지선에 배치된 장병들은 서울을 절대로 적의 수중에 넘겨줄 수 없다는 데서 오로지 정신(挺身)코자 하였고, 총참모장이 “27일이면 B-29 100대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날 밤만을 지탱하면 전세의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공산군은 이 날 오후 5시에 이르자 38도선 돌파시와 다름없이 전차를 앞세워 진로를 타개하는 한편, 우세한 화력으로 작전의 주도권을 잡아 집중돌파를 꾀하였는데 이번에는 전선 후방으로 편의대를 투입하여 중암동과 돈암동 일대에서 신호탄을 발사하여 심리전을 꾀하면서 그들 상호간의 연락을 취하는 듯하였다.

이와 같이 침공한 공산군은 10여 대의 전차와 일부의 기마병을 앞세워 경원국도를 따라 미아리로 돌입하다가 수유리 부근에서 제20연대 박기병 대령의 저항에 부딪쳐 그 선봉이 꺾이게 되자 일몰과 더불어 접촉을 끊고 한걸음 뒤로 물러선 듯하다. 이 날 자정을 전후해서 다시 일군(一群)의 전차대가 폭우를 뚫고 길음교로

밀려들었다. 이 전차대는 보병의 엄호도 없이 단독으로 심야에 침공하였는데 길음교를 넘어선 뒤로는 거의 무인지대를 휩쓸듯이 시내로 침입하였으니 이 때가 6월 28일 새벽 1시였다. 27일 초야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적의 기습 기색이 보이지 않자 당시 여러 지휘관들이 판단하기를 적의 야습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다음 날 새벽의 작전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이 때 사방은 지척을 분간키 어려운 암흑인 데다 각 진지를 지키는 장병의 대부분이 그 동안 불면불휴에서 온 피로가 겹쳐 잠들고, 일부 병력은 비를 피해 진지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인지대와도 같았다.

적은 이러한 허점을 찔러 6월 28일 새벽 1시를 전후해 10여 대의 전차로 미아리전선을 돌파하고 서울 침투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아군의 저항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암흑 속이기는 하나 전차의 굉음을 들은 병사들이 많아 길음교와 미아리고개 오른쪽에 배치되었던 제15연대 제2대대 안광영 소령 예하의 장병에 의해서 발각되어 저지사격을 받았다. 또 김계원 중령이 지휘하는 105mm 곡사포의 포격을 받기도 했다.

● 흥천사(新興寺)

정릉의 서남쪽 산등성이 돈암동에 있는 신흥사는 일찍이 정릉을 지금 중구 정동에 조영하면서 함께 지어 원찰로 삼았던 흥천사의 후신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1395년(태조 4) 신덕왕후 강씨가 죽자 능지를 정릉에 정하여 조영하고, 1397년 그 원당으로 능 동쪽에 170여 칸의 절을 세워 흥천사라고 했으며, 조계종의 본산으로 삼았다.

초창기에 이 절은 좌선하는 것으로 항규(恒規)를 삼았다. 1398년 6월 태조의 명으로 삼층사리각과 사리탑을 절의 북쪽에 세웠고, 7월에는 우란분재를, 8월에는 신덕왕후의 천도회를 베풀었다. 그러나 1403년 태종이 이 절의 노비와 전지(田地)의 양을 감하게 했고, 1408년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화엄종에 귀속시키는 한편, 태평관(太平館)을 철거한 뒤 그 노비와 전지를 이 절에 이양했다. 1410년 태조의 유지(遺旨)를 좇아 중수했고, 이듬해에는 사리각을 중수했다. 1424년(세종 6)에는 교종(敎宗)에 속하게 되었다. 1435년 사리각을 중수했고, 1437년 세종의 명으로 중수했으며, 1440년 9월 대장경을 봉안했다. 1441년 3월 중수공사가 끝나자 5일 동안 경찬회(慶讚會)를 개최했으며, 1443년 4월 세종이 회암사(檜巖寺) 주지로 있던 천봉 만우



홍천사

(千峰 卍雨)를 이 절에 머무르게 했다. 또한 1447년 세종이 안평대군을 시켜 사리각에 불골(佛骨)을 봉안하게 했다. 1469년(예종 1) 명나라 왕과 왕후가 불번(佛幡)을 만들어 보냈으므로 봉안했고, 1480년 절을 다시 중수했으며, 1504년(연산군 10) 내원당(內願堂)을 이 절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이 해 12월 불타고, 1510년(중종 5)에는 사리각까지 불타 완전히 폐허가 되자 그 땅을 탐내는 자도 많이 생겼다. 그 때의 대종(大鍾)은 덕수궁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69년에는 선조의 명으로 함취정(含翠亭)의 옛터로 절을 옮겨 지었는데 1794년(정조 18) 승려 성민(聖敏)·경신(敬信) 등의 발원으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짓고, 이름을 '신흥사'라고 하였다. 그 뒤 1846년(현종 12)에는 구봉 계장(九峰 啓壯)이 칠성각을 지었고, 1849년 성혜(性慧)가 적조암(寂照庵)을 창건했다. 1853년(철종 4) 계장이 대웅전을, 1855년 순기(舜淇)가 명부전을, 1865년(고종 2) 큰방과 요사채를 짓고 이름을 다시 '홍천사'라고 했다. 1865년에 홍선대원군은 친히 절의 성내(城內) 원찰의 사명(寺名)과 같은 「홍천사」의 편액을 써서 걸게 하였다. 1885년 큰방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적·유물로 현존하는 건물은 <극락보전>(서울특

별시 유형문화재 제66호)을 비롯하여 <명부전>(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7호)·용화루·칠성각·독성각·만세루·승방·큰방·일주문·종각 등이 있다.

● 산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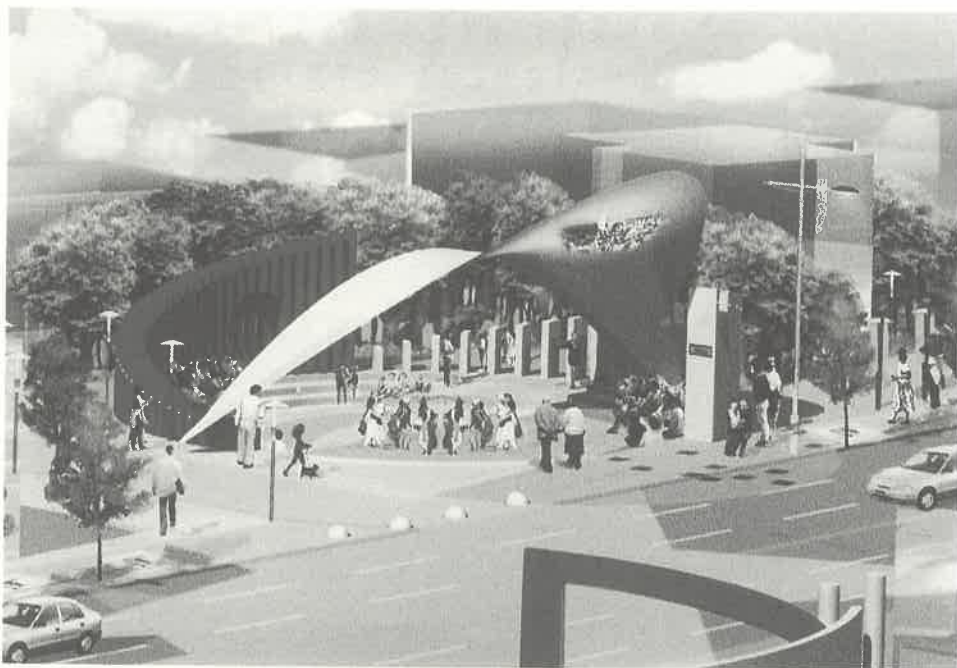
돈암동 606의 56에는 산신당이 있었다. 당의 구조는 벽돌로 쌓았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로 덮었고, 당의 둘레에는 원새끼로 꼰 금줄이 쳐져 있다. 당의 크기는 매우 작는데 가로 2m, 세로 2.5m 정도 된다. 당 안에는 전면에 산신의 화상이 걸려 있고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옛날에는 기와를 엮은 1칸 크기의 당이었다고 하나 퇴락해서 새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산을 끼고 있는 마을에는 대부분 산신당이 있었다고 볼 때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당에는 산신의 신상이 그려져 있다. 가운데에 붉은색 관복을 입고 수염과 눈썹이 흰 산신이 앉아 있다. 오른손에는 긴 지팡이를 쥐고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있다. 산신 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산신 무릎 위에서 뛰어 내리는 형상이다. 산신의 뒤에는 거대한 고목이 그려져 있으며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시중을 드는 동자인 듯한 인물이 한 사람씩 앉아 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붉은색 과일을 손으로 받쳐 들고 산신 쪽을 향해 앉아 있다. 당 내의 제단은 흰 종이로 덮였으며 제단 앞에는 작은 상이 있고 약간의 향이 있으며, 당 입구에는 불상이 놓여 있다. 제일은 음력 10월 1일이다. 제주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제상에 모여 유례식(儒禮式)으로 치제한다. 제수는 우두와 삼색과실·포 그리고 시루떡을 쓰며 생선 종류는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제주의 선정은 매년 통장이 정결하고 신수가 좋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연로한 분을 제주로 선정했다고 한다. 선정된 제주는 제사 경비를 추렴하고 제물 구입을 지시하는 등 마을 토착인과 함께 제를 주관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산신당 주위에 금줄을 쳐서 잡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특히 주민 중 부정한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제의 목적은 마을의 편안함과 주민의 무병장수에 그 뜻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어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 영화의 거리와 춘사기념관

돈암동의 발전을 위해 성북구에서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있다.



영화의 거리 조감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 선생이 영화 '아리랑'을 촬영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아리랑고개를 영화의 거리로, 춘사를 기념하는 영화기념관을 돈암동 538-185에 대지 954m², 건물 1,060m²(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영화관람실·문화사랑방 등이 있다. 또한 영화의 광장·야외공연장(200~300석 규모)·기념비·벽화 등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특색 있는 가로등과 보도 조성으로 기념가로를 꾸며, 특화된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편안한 바위에 자리한 역사의 동네

안 암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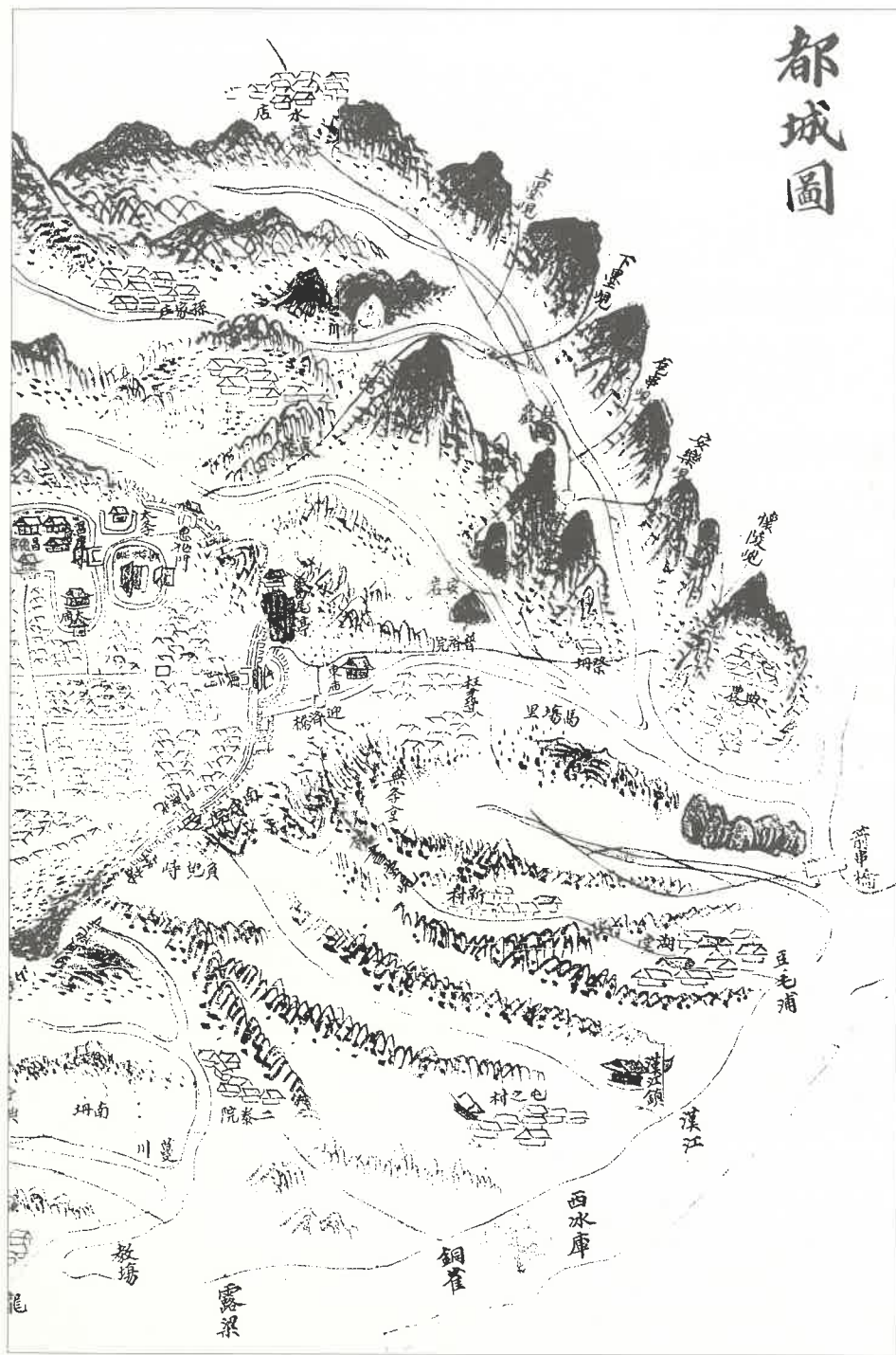


안암동의 발자취

안암동은 문헌에 나타나는 서울의 동명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그러나 안암(安岩)이라는 동명 유래가 문헌상으로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곳에 오래 살아온 노인들의 전하는 말로는 지금 안암동 3가에 있는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어 20여 명이 앉아 편히 쉴 만하고 그 바위 이름을 ‘앉일바위’라 하였으며, 그것을 한자로 ‘안암(安岩)’이라 옮겨 쓴 것이 안암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뒷산에서부터 개운사(開運寺)를 돌아 남쪽으로 뻗어온 안암산록(山麓)을 중심으로 한 덩마위·북마위 등의 바위는 종암(鍾岩)·고암(鼓岩) 등의 지명·동명을 남겨 전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록 아래에 있는 넓은 바위가 앉일바위로 불려지고 그 앉일바위가 안암동의 동명을 만드는 지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고지도에도 안암을 강조한 지도들이 있어, 전해 오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1395년부터 수릉(壽陵), 즉 자신의 능지를 정할 만한 산지를 찾아 과천·광주 등 산수 좋은 곳을 왕래하였는데, 9월 28일에는 안암동에 거동하여 수릉을 정할 만한 곳을 구경하고, 또 주종소(鑄鍾所)에 거동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안암동은 태조의 묘지터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1396년 8월에는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가 세상을 떠난 이틀 후인 15일에 태조가 흰 옷에 흰 관을 쓰고 능지(陵地)를 친히 보러 안암동으로 나갔으니, 그가 일찍부터 안암동 산록의 지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달



〈그림 1〉 19세기 초 《동국여도(東國輿圖)》의 〈도성도〉에 보이는 안암(安岩)

21일에 다시 안암동으로 나가 산지(山地)를 정하고 이튿날에 땅을 파 보니 뜻밖에 물이 솟아나서 중지하고, 그 다음 날 취현방(聚賢坊), 즉 지금의 중구 정릉으로 나가서 농지를 정하였다고 한다. 다음 해인 1406년 9월에는 태종이 안암동(安岩洞) 검교 호조전서(檢校 戶曹典書) 김식(金軾)의 집을 수리하게 하여, 김식의 집으로 이어(移御)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태종도 안암동 일대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이곳이 산수가 아름답고 풍수지리적으로 산릉터에 적합하게 여겨진 데서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안암동의 지명이 보이는 것이 1396년(태조 5) 4월 서울의 5부 방명(坊名)을 정하기 전부터였다는 점도 흥미를 끈다.

안암동은 조선시대에 한성부의 성 밖 지역에 속하였으며, 승려들이 많이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1년(태종 11) 6월 9일에 승도(僧徒)들의 초막(草幕)을 철거시킨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안암·사을한 등 성북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병조(兵曹)에서 승도(僧徒)들의 초막(草幕)을 헐어버리자고 청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게으른 승도들이 유명한 사사(寺社)에서 살지 아니하고, 역사(役事)를 면하기 위하여 남산(南山)·안암(安岩)·사을한(沙乙閑) 등지에 초막(草幕)을 얹고 재(齋)를 베풀어, 남녀를 모아다가 소나무와 잡목들을 베고 그 뿌리까지 캐내는 데 이르고 있사오니, 청컨대 초막들을 모두 철거해 버리시고, 정업원(淨業院) 이외에는 산속의 여승방(尼僧房)을 금지하여 이것 또한 모두 철거해 버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후 안암동에는 안암사(安岩寺)라는 절도 생겼다. 그러나 안암사는 1470년(성종 1) 9월 26일 예조의 건의에 따라 철거되고 백성들이 경작하는 농토로 변했던 것을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조에서 도성의 안팎을 순행하여 살피고, 경작을 금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편의한 조목을 만들어서 아뢰기를, (중략) “국초에 도읍을 세울 때에 산과 물의 향배를 살펴 사사(寺社)를 건립하고 산수의 부족함을 도와서 재변을 진압하고 물리쳤는데, 그 후 사찰로서 복세암·안암사(安岩寺)·정일암·향실암·수정암·망성암·은암·일출

암·대고산사·소고산사·입암사·도장동사·정업원(淨業院)과 같은 것이 세워졌고, (중략) 이 때문에 “주산에서 내려오는 맥과 용호(龍虎), 곧 좌청룡 우백호와 안산, 곧 앞산의 지맥이 휴손되어 매우 미편합니다. 청컨대 모두 철거하게 하고 부득이 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땅을 골라서 옮겨 짓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다만 관청에서 창건한 사찰과 사당은 다른 곳으로 옮겨 짓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후 15년이 지난 1484년(성종 15)에 귀인(貴人) 권씨(權氏)가 안암사(安岩寺)를 국도(國都)의 비보(裨補)라 하여 왕에게 중건하기를 청함에 따라 왕이 이를 허락하고, 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민전(民田)을 지급하게 하자, 안암사 중창의 부담함을 아뢰는 상소가 빗발쳤다. 그러나 왕은 굽히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 근거로서 안암사의 옛터에 탑이 있고 남은 구역이 있음을 들고 있다. 안암동 지역은 사냥터로도 쓰였다. 1464년(세조 10) 9월 19일에 왕과 신하들이 안암동 일대에서 사냥을 하고, 어가(御駕)가 광평대군의 별장의 북쪽 냇가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니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주육(酒肉)과 과채를 바쳤다고 조선왕조실록은 전하고 있다. 1480년(성종 11) 11월에도 사냥을 한 기록이 있다.

안암동 일대가 사냥터로도 이용되었던 것은 이곳에 일반인의 경작을 금하고 나무를 심어 산맥을 보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1470년(성종 1) 9월 26일 예조에서 도성 안팎을 순행하여 살피고, 경작을 금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편의 조목을 만들어 바쳤는데, 그 가운데 제1조목으로 “광평대군 집의 북쪽 고개에서 주산(主山)에 이르기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1866년(고종 3)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 「한성부(漢城府)」조에는 동부 송신방 안암동계로 되어 있다. 1895년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있으면서 한성부의 행정조직이 부(府) 대신 서(署)로 고쳐질 때에는 방(坊) 아래 계(契)를 확장하고 각 마을을 계 안에 포함시켰다. 이 때에 종래 송신방의 12계를 동문외계(東門外契)와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의 2계로 크게 구별하여 개편하고 모든 마을을 2개의 계(契)에 속하게 하였는데 이 때에는 안암동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지금 안암동 내에 있는 원리·궁리·상리·중리 등 마을이 동문외계에 속해 있었다.

1911년에는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고, 성 외 지역은 8면제(面制)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안암동은 송신면(崇信面) 안암리(安岩里)가 되었다. 1914년에는 서울

의 행정구역을 축소함에 따라, 다시 이들 성외면의 많은 지역을 경기도 고양군으로 편입하였는데 이 때 송신면과 인창면(仁昌面) 중 도성에 가까운 지역을 제외한 많은 지역을 합하여 고양군의 송인면(崇仁面)으로 개편하니 송인의 면명(面名)은 송신(崇信)·인창(仁昌)의 두 지역 이름을 합한 것이었다. 따라서 안암동 일대도 전의 안암동계 관내의 안암리·부석리·궁리·원리 등 지역을 합하여 고양군 송인면의 안암리가 되었다.

1934년에 보성전문학교가 안암리 1·2번지로 이전하면서 안암동 일대는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어서 1936년 4월에는 경성부의 관할구역을 확장변경하는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8호에 의하여 종전 경성부의 186 동정(洞町) 외에 새로이 고양군 및 시흥군(始興郡)·김포군(金浦郡) 관내로부터 많은 지역을 편입하였는데 이 때 안암동도 경성부로 편입되고 안암리는 안암정으로 개칭되었다. 1943년 4월 경성부의 구제(區制)가 실시됨과 함께 안암동은 동대문구 관하에 속하였다. 지금의 안암동 구역은 대개 1914년 4월에 소위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하여 전국의 부·군·면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시행할 때, 경성부 송신방에 속하였던 안암리(安岩里)·부석리(剖石里)·궁리(宮里)·원리(園里) 등의 마을을 합하여 고양군 송인면의 안암리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중 안암리로 일컫던 마을은 옛날부터 안암동의 중심지였으며, 부석리는 전부터 돌을 떠내던 곳, 즉 채석장이 있으므로 하여 얻어진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말로 ‘돌뜨기말’로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45년 10월에는 일본식 동명 안암정을 안암동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1·2·3·4·5가로 구분하여 지금에 이른다. 1949년 8월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될 때에는 인근의 종암동·돈암동 등 지역과 함께 성북구에 이전되었으며, 이 때 안암동은 다시 1·2·3·4·5가로 구분되었는데, 북쪽으로 동선동과 인접한 지역이 1가가 되고, 그 남쪽으로 2·3·4가는 함께 서쪽으로 보문동과, 동쪽으로 안암동 5가에 인접하였으며, 그 중 4가는 남쪽으로 동대문구의 용두동과 경계를 이루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뒷산을 연결하는 안암산로를 중심으로 한 안암동 5가는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고려대학교 앞을 연결하는 안암로 이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다.

참고로 동장 관할구역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1955년 4월에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종전의 동회제도 대신 행정동이 설치되었으며 안암동은 동암·남암·서암의

3개 동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3개 동의 관할지역을 보면 동암동은 안암동 5가 일원, 남암동은 안암동 3·4가 일원, 서암동은 안암동 1·2가 일원이었다. 이러한 동암·남암·서암의 동명은 안암동 전체 지역을 동·남·서로 가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암동 동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안암동 3가에 있던 ‘앉일바위’, 즉 안암을 중심으로 그 동·남·서의 방위 칭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동암·남암·서암의 행정동명은 그 후에 안암 제1동·제2동으로 고쳐졌으며, 1977년 9월 1일 동 관할구역 개편이 있을 때 다시 안암동 1개동으로 조정·결합되었다. 이보다 앞서 1975년에는 대통령령 제78816호와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하여 10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의 구 관할구역 변경과 동의 명칭 및 구역획정이 있었으며 동대문구와 성북구 간에 여러 곳의 구역 변경이 있었다. 이 때 안암동 4·5가의 일부인 안암교에서 고려대학교 이공대 앞에 이르는 안암동 동남지역 일대가 동대문구의 용두동과 제기동으로 개칭되기도 하였다.

안암동의 이모저모

● 제터고개

제터고개는 안암동 5가와 동대문구 제기동 사이에 있는 안암로 큰길의 나지막한 고갯길로서 옛날 제사 드리던 터가 있는 부근이라 하여 얻어진 이름이며, 그 부근 마을 이름 또한 ‘제터’로 불려 왔다. 동대문구 제기동의 동명도 실은 이 제터고개 부근의 제단기지(祭壇基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그 제단은 부근에 있는 선농단(先農壇)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따로 자연촌락 전래의 제사를 드리던 곳이 있었다고도 한다.

● 학더미

학더미라는 지명은 북바위(鼓岩) 부근 논 가운데 있던 더미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즉 옛날 이곳의 논이 매우 비옥하여 세 마지기(3斗落)에서 나는 쌀로 10여 식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주인이 곡식을 더 많이 내어 먹으려고 논 가운데에 있는 큰 더미를 파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더미를 파 들어가자 속에서 학이 나와 날아가고, 그 후로는 비옥하던 땅이 박토(薄土)로 변하였다고 전해 온다.

● 궁말

궁리·원리 등의 마을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廣平大君) 및 그의 아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대를 이어 살고 있던 마을,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

의 묘소 영명원(永明園)이 있던 마을을 뜻한다. 그 중에서도 지금 안암동 3가에 있는 마을은 우리말로 ‘궁말’로 부르며, 또 광평대군 일가의 사당이 있어서 ‘사당말’로도 부르는 궁리 또는 중리는 광평대군의 세거지였을 뿐 아니라 태조의 일곱째 아들인 무안군(撫安君) 방번(芳蕃)과 그 부인 왕씨를 위시하여 광평대군과 그 부인 신씨 및 광평대군의 아들 영순군과 그 부인 최씨 3세대를 봉사하는 사당이 있어서 유명하였다.

무안군의 이름은 방번인데 태조의 일곱째 아들로써 세자 방석(芳碩)의 형이다. 태조는 여덟 아들을 두었는데 정종(방과)·태종(방원)을 위시한 여섯 아들은 첫째 왕비 신의(神懿)왕후 한씨의 소생이고, 방번·방석과 경순(慶順)공주의 3남매는 제2왕비인 신덕(神德)왕후 강씨의 소생이었다. 정안군(靖安君) 방원(芳遠) 등은 나이가 장성하고 조선조 개국에도 공이 컸다. 그러나 태조가 조선왕조를 개창(開創)할 때에 신의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신덕왕후가 개국에도 내조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태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태조도 현 왕후인 신덕왕후의 소생으로 세자를 봉(封)하여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형인 무안군 방번은 성질이 좀 거칠기 때문에 대신들의 건의로 아우 의안군(宜安君) 방석이 태조의 즉위와 함께 세자에 책봉되니, 형제 선후의 경우에서 볼 때 모순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안군 등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은 불만이 없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왕후 소생 왕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 대신들도 두 패로 나뉘이니, 불만은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398년(태조 7) 8월에 정안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왕자들과 하륜(河崙)·이숙번(李叔蕃) 등 일파가, 세자를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남은(南閼) 등이 반란을 도모한다고 군병을 동원하여 대궐문을 파수하고 정도전·남은 등 대신들을 습격, 살해하여 세자를 내쫓고, 태조도 양위를 하기까지 하니 이를 ‘무인정사(戊寅定社)’ 또는 ‘왕자의 난’이라고도 한다. 이에 세자 방석은 물론 세자의 형 무안군 방번과 경순공주의 부마도 살해당했다.

이러한 일에 희생된 무안군 방번이나 세자 방석은 아무런 죄도 없는 원통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태조는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 항상 두 아들의 참해(慘害)를 슬퍼하면서 절에서 명복을 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1406년(태종 6)에는 장본인인 태종도 무안군에게 공순(恭順: 후의 章惠)이라는 시호를, 의안군에게 소도(昭悼)라는 시



안암동 3가 전경 : 광평대군의 세거지

호를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1437년에 하교하여 후사(後嗣)가 없는 이들 형제를 위하여 그의 다섯째인 광평대군(廣平大君)을 공순공 방번의 후사로, 여섯째인 금성대군(錦城大君)을 소도공 방석의 후사로 정하고 각기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였던 것이다. 그 후 숙종(肅宗) 때에는 다시 무안대군으로 추봉(追封)되기도 하였다.

무안군의 뒤를 이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은 이름은 여(瑀), 자는 환지(煥之), 호는 명성당(明誠堂)으로 부왕인 세종대왕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광평대군은 1425년 5월생인데 『세종실록』을 보면 1437년(세종 19) 7월에 왕이 동교로 나가 농사 현황을 구경하고 수레(車駕)를 보제원(普濟院) 북쪽 광평대군의 새집에 멈추었다고 한다. 이 1437년은 곧 대군의 13세 때요, 대군이 무안군의 후사로 되던 해이다. 광평대군이 이곳 안암동에 새집을 짓고 거처하게 된 데에는 이곳이 그의 양부(養父) 되는 무안군과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광평대군은 이곳 안암동 ‘궁말’에서 그 해 양부인 무안군의 사당을 짓고 그 후 7년간을 거처하였고, 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증좌의정(贈左議政) 신자수



영명원의 옛터

(申自守)의 딸인 부인과의 사이에 영순군 부(溥)를 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1444년(세종 26) 12월에 불행히도 20세의 약관으로 두진(痘疹)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광평대군 후에도 아들 영순군을 위시하여 후손들이 무안군을 봉사하며 대대로 살았다. 광평대군이 세상을 떠난 40년 후 1483년(성종 14) 3월에는 대왕대비(세조 비 貞熹왕후 尹氏)가 운양궁에서 승하하고 재궁(梓宮)인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4월 24일에는 영순군의 집에 빈소(殯所)를 정했다고 하였다. 영순군은 정희왕후의 조카이다.

지금도 안암동에서는 광평대군 일가의 주택과 사당이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위쪽의 마을을 웃말(上里), 아래쪽의 마을을 아랫말(下里)로 부르기도 한다.

● 애기릉 터(영명원 터)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자리에 있는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의 묘소가 있었다. 원 이름은 영명원(永明園)인데, 속칭 '애기릉'이라 하며 1949년에 수원으로 옮기고, 고려대학교 이공대학이 들어서 있다.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 영명원 터

● 안감내길

안감(安甘)내길은 안암로와 교차하는 대광초등학교 앞을 기점으로 하여 돈암사 거리에 이르는 폭 15m, 길이 1,670m의 지선도로다. 따라서 안감내길은 안암동을 남북으로 종단하여 성북구청 뒤를 거쳐 돈암천주교회 앞으로 하여 동소문동 5가에 이른다. 안감내길의 명칭은 안감천의 옛 명칭인 안감내에서 유래한다. 안감내 다리에 전해지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안암동은 옛날 채소를 심어 문안(시내)에 갔다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암동 남쪽에 안암내라는 개천이 흐르고 거기에 안감내라는 다리가 있었다. 옛날 이 마을에 안감이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채소를 문안으로 가져다 다 팔고 집으로 돌아 오다가 동대문 밖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점잖은 영감이 술을 마신 다음 술 값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었다. 영감이 술집 주인에게 “내가 문 밖에 소풍을 나왔다가 그만 돈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 내일 술값을 가져다 주겠소” 하였다. 주인이 이에 “아니,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외상술을 주겠소. 어서 술값을 내고 가시오”하면서 욕설

까지 하였다. 안감은 몇 푼 안 되는 술값 때문에 노인이 야단맞는 것을 보고 “그 술값은 내가 낼 테니 그 노인은 보내시오”하고 술값을 치렀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채소를 팔러 문안에 들어오거든 자기집을 찾아 달라 하고 자기 집의 위치를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안감이 문안에 들어가 채소를 다 팔고 영감이 사는 집에 찾아 갔다. 솥을 대문이 있는 큰 집으로 꽤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주인을 찾았다. 그 영감이 나와서 반가이 맞으면서 주안상까지 차려 대접하고, 전 날에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자신에게 베푼 은공을 갚겠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안감이 사양을 해도 영감이 계속 다그치니까 안감이 안암동은 서쪽으로는 성북동에서 흐르는 개천이 있고, 동쪽으로는 영도사(지금의 개운사)에서 흘러내리는 개천이 있는데, 비만 오면 두 개천의 물이 흘러 안암동은 섬같이 되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개천에 다리나 하나 놔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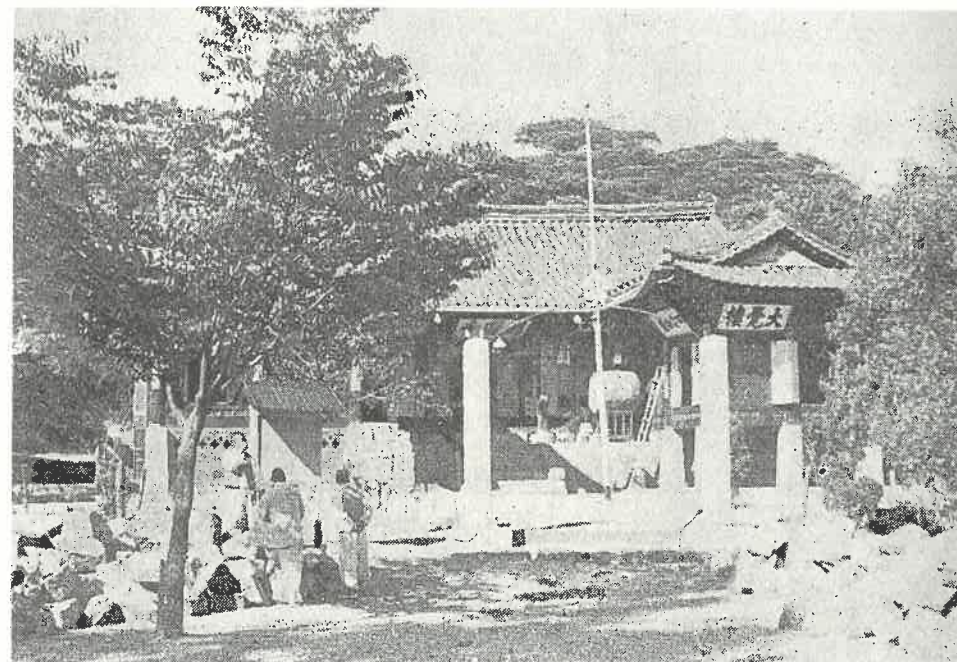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이라면 자기의 이익 추구에만 집착하는 데 반해 이 사람은 채소장수로서 동네 일을 말하는 데 감동했던지 영감은 꽤히 승낙하고, 동네 앞에 다리를 놓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감내다리라 이름 붙이고 이 개천을 안감내라고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 개운산과 개운사

개운산(開運山)은 남쪽으로 안암동, 동쪽으로 종암동, 서쪽으로 동선동, 북쪽으로 돈암동으로 둘러 싸여 있다. 개운산의 남쪽 산록에 개운사(開運寺)가 있다. 개운사의 원래 이름은 영도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고종이 이 절에 머물렀을 때 개운이란 이름을 새겨 놓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자 이를 기리기 위해 개운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나라의 운명을 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개운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의 개운사 현관이 걸린 큰방과 대현루(大賢樓)를 위시하여 응진전(應眞殿)·산령각(山靈閣)·종각(鍾閣) 등의 많은 건물들이 있어 총총히 들어 선 노송과 앞에 있는 두 그루의 노향목이 또한 속계(俗界)의 티끌을 차단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앞에 새로 지은 양식(洋式)의 승가대학(僧家大學) 건물은 불교계의 현대화를 말해 준다.

이 절의 역사는 멀리 조선의 한양전도(漢陽奠都) 초기로 올라가서 1396년(태조 5) 왕사(王師) 무학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에는 안암산록의 남쪽지역인



1939년의 개운사



현재의 개운사

지금의 고려대학교 이공대 부근에 짓고 이름을 영도사(永導寺)라 하였다. 1779년 (정조 3) 5월에 원빈(元嬪) 홍씨(洪氏)가 세상을 떠나자 그 부근인 현재의 고려대 이공대 자리에 묘소를 정하고 영명원(永明園)이라 하였는데, 절이 원묘(園墓)에서 가깝다고 하여 이곳으로 옮겨 짓고, 이름도 개운사로 고쳤다고 한다.

개운사는 조계종 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로 있지만 일제강점기부터 불교개혁과 진보의 흐름을 주도해 온 종단개혁운동의 중심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독립과 불교혁신을 위한 승려들의 결집체인 만당이 이곳에 자리잡고 불교 내 독립운동과 혁신운동을 주도했다. 1911년 한국 불교를 일본의 조동종에 합류시키려는 이회광의 기도를 오성월·한용운과 함께 저지한 근대의 고승 정호 스님(속명 박한영)이 이곳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는 불교 내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통일민주국가 건설을 꿈꾸던 불교혁신동맹이 이곳에 등지를 틀었다. 이 흐름이 이어져 1950~1960년대 대처승제를 조계종단에서 몰아내는 등 불교계 일제 잔재 청산에 앞장섰고, 1980년대에는 사민주화 운동을 불교계에 접목시키기도 했다.

종단개혁운동의 보루인 개운사에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학인 승려 교육장인 중앙승가대가 위치한 것도 이러한 절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중앙승가대는 불교개혁과 발전을 위해 승려들의 전문 교육장의 필요성을 느낀 젊은 학인 승려 5명이 주체가 되어 1979년 보현사에 세운 뒤 1981년 개운사로 옮겼다. 1991년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지금은 절 뒤쪽만 남기고 모두 인가가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길이 산곡 중으로 깊이 들어가고 주위에 송림이 무성하여 경내(境內)가 그윽하고 아늑하여 수도승은 물론 세속의 티끌을 잊으려는 시인, 묵객들이 때로 찾아 정적·평온의 경내를 마음껏 즐겼다고 한다. 조선 말기 고종대의 문호로 유명한 종차(綜此) 황오의 다음과 같은 개운사 시 또한 그러한 경내의 한 면을 말해 준다.

희미한 등불 뜰 앞을 비치는데

종경(鍾磬) 소리 들려오니 일만(一萬) 시름 부서진다.

먼 길손 줄음 없으니 밤새소리 들려오고

작은 중은 말 없이 봄 하늘의 별만 쳐다본다.



보타사 대웅전 뒤의 마애석불

한편 개운사의 전 이름은 창신동의 영도교(永渡橋)라는 다리 이름과 같고, 또 영도교는 영도사 승려들이 지었으므로 영도(永導) 또는 영도(永渡)의 다리 이름이 생긴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런데 『성종실록』을 보면 왕이 양전(兩殿), 즉 덕종비(德宗妃)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와 예종비(睿宗妃) 장순왕후(章順王后) 한씨의 전교(傳敎) 및 귀인 권씨의 요청에 따라 안암사를 중창(重創)하였는데, 이 때에 중창한 안암사가 창신동의 영도사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안암동에 있던 다른 절을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알 길이 없다.

개운사 동쪽 골짜기, 즉 안암동 7·8번지에는 칠성암·대원암 등의 암자도 있다. 개운사의 암자(칠성암)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화강암 암벽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9호 지정된 <마애불(磨崖佛)>이 있다. 높이 5m, 폭 4.3m의 거대한 보살상으로, 얼굴이 풍만하고 어깨가 넓고 장대하여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대한 마애불의 축조는 안암동 개운산 일대가 고려시대에도 종교적 명소로 존중되고 호족세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안암동 5가 1번지에 자리잡은 고려대학교는 90여 년간 민족 교육의 빛나는 역사를 지켜 오고 있는 사학의 명문이다. 고려대학교는 대한제국시대인 1905년(광무 9) 당시 항일구국운동에 몰두하던 전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에 의하여 보성전문학교로 출발하였다. 그 후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지도자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1932년에 인촌(仁村) 김성수(金性洙)가 운영을 맡으면서 발전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1934년에는 현재의 안암동 본관이 신축되고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서 민족 교육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는데 이 무렵의 건물인 고려대학교 본관과 구 도서관은 사적 제285호와 제286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말 침략주의 일제의 악랄한 탄압은 1944년 4월 학교 이름마저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고치고, 이른바 해외 개척을 위한 실과교육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광복을 맞이한 후 1946년에는 정법대학·경상대학·문과대학의 3개 단과대학으로 편성된 종합대학으로 고려대학교를 새로 창립하였으며, 안암동의

광대한 산림과 전답을 사들여 대지를 크게 확장하였다. 1955년과 1959년 두 차례에 걸친 단과대학 및 학과의 개편 또는 신설을 통해 대학원·법과대학·상과대학·문리과대학·농과대학·정경대학의 5개 단과대학을 두게 되었으며, 1963년에는 이공대학이 신설되고, 한국 최초로 경영대학원이 창설되었다. 1971년에는 학교법인 우석학원을 합병하여 우석대학교의 의과대학·문리과대학·법경대학 및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과 부속병원 등을 흡수하였다.

한편 수도권외의 인구 분산과 지방의 고등교육 향상을 도모하려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1980년에는 충북 조치원을 서창동에 조치원 분교를 개설하여, 학교의 교세가 더욱 커졌으며, 1987년에는 조치원 캠퍼스의 명칭을 서창캠퍼스로 제정하였다. 1986년에는 국제교육원을, 1991년에는 국제화 및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제대학원을 신설하였다. 또한 1991년에는 의과대학이 명륜동시대를 마감하고 안암동 신축교사에서 개강함으로써 자연계열 캠퍼스가 한 장소에 모여 안암동시대가 시작되었다. 1998년 현재 91회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1960년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와 부패 폭력 정치에 반대하여 3,000명의 학생이 4·19혁명에 앞장섰던 것은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상에 길이 남을 일이었다.

● 참살이길

참살이길은 안암동로터리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가는 길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휴식 공간, 놀이터로 자리잡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문 앞을 중심으로 즐비했던 막걸리집 '고모집' '마마집' '호질' 등은 사라져버렸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 길의 카페·술집·비디오방 등은 날이 갈수록 기세를 떨치고 있다.

단종비의 애환 어린 동망봉과 탑골

보 문 동



보문동의 발자취

보문동은 보문동 3가 168번지에 있는 보문사의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불가에 의하면 몸체에 온갖 덕을 갖춘 것을 보(普)라 하고, 쓰임이 나타나는 곳을 문(門)이라 하니, 보문(普門)이란 곧 보살이 일체의 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시기를 따라 그 묘용(妙用)을 보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보문대사라고도 한다. 수도 여승들의 거주처인 이 절에 「보문종 보문사」 현판이 붙은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절은 원래 비구니, 즉 여승들이 수도하는 작고 조용한 암자로 소재지가 탑동, 즉 ‘탑골’이었으므로 ‘탑골승방’이라고도 했다.

보문동은 성북구의 남단에 위치하여 북쪽은 삼선동·안암동, 서쪽은 삼선동·종로구 송인동과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안암동, 남쪽으로는 종로구 송인동·동대문구 신설동과 인접하고 있다.

보문동은 조선 후기 한성부의 동부 송신방에 속하였던 지역이다. 18세기의 문헌인 『어제수성윤음』 『호구총수』, 19세기의 문헌인 『육전조례』 등에 송신방 내에 신설계(新設契)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신설동·보문동 지역이다.

그 후 1894년(고종 31) 이른바 갑오개혁 당시의 문서를 보면 송신방 내에 종전의 12계 대신 동문외계와 동소문외계의 두 계가 있고, 여기에 이 지역의 여러 동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문외계는 곧 동대문 밖의 여러 동리를 묶은 계이며, 동소문외계는 동소문, 즉 혜화문 밖의 여러 동리를 묶은 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

서 당시 두 계에 속하였던 동리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동 문 외 계 : 홍수동 · 복차동 · 남교 · 대정동 · 편교 · 장평동 · 미전동 · 장거리 · 영미동 · 정자동 · 신리 · 대중암 · 신설동 · 원리 · 궁리 · 상리 · 중리 · 우산각리 · 소중암 · 돈암리 · 삼선평
- 동소문의계 : 성북동 · 소정릉동 · 손가정 · 청수동 · 미아리 · 대수유리 · 가오리 · 우이리

그리고 일제의 한국 강점과 함께 경성부의 성외 8면의 하나인 송신면으로 되었고, 1914년 3월 전국의 부 · 군 · 면 폐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송신면과 인창면에서 도성에 가까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두 면의 지역을 합하여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으로 개편함에 따라 지금의 성북구 · 동대문구와 도봉구의 일부가 고양군 송인면의 22개 리로 분리되어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동대문구 신설동과 성북구 보문동에 해당되는 종전 경성부 송신면의 신설계(동) · 탑동 · 우선리 · 안암신리가 송인면의 신설리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20여 년이 지난 1936년 4월 경성부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전의 성외 8면 지역의 많은 부분과 시흥 · 김포군의 일부 지역이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이 때 고양군 송인면에 속했던 신설리가 다시 서울로 편입되어 일본식 명칭의 신설정으로 바뀌어졌으며 1943년 4월, 당시 경성부의 구제(區制) 실시와 함께 동대문구 관내에 포함되었다.

지금의 보문동이 신설동에서 분리된 시기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현재 보문동 일대를 신동(新洞)이라 하여 1955년 당시에는 남세구를 성북구로 했을 뿐이다. 이 때 신동은 인근 몇 개의 동을 폐합하여 시 · 구 재정시에 신설했다고 한다. 1955년 동제를 실시할 때 신동의 관할구역은 보문 제1동은 보문동 4·5·6·7가 일원으로, 보문 제2동은 보문동 1·2·3가 일원으로 하여 2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일설에는 1946년 10월 일본식 동명인 신설정을 신설동으로 고치면서 그 신설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보문동으로 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까닭은 보문동이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전입되는 등 변천이 있었던 관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출발이 6·25 전쟁을 치른 후 바로 발족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

보문동의 동장 관할구역의 변천을 살펴보면, 지금 보문동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보문동의 행정동이 있기 전에 고사동회가 있기도 하였다. 즉 서울특별시에서 1947년 9월에 발행한 『시세일람』을 보면 신설동에 신설동회와 함께 고사남부동회와 고사북부동회가 있는데 신설동 301번지와 220번지에 사무소를 둔 이 고사남 · 북부의 동회는 1953년도 『시세일람』에도 보인다. 그러다가 1956년 3월에 발행한 『시세일람』(1954)부터는 고사남 · 북부동 대신 보문 제1동 · 제2동이 보이고 그 관할구역은 제1동이 보문 4·5·6·7가 일원, 제2동이 보문 1·2·3가 일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보문동의 출발을 1955년 4월 이전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즉 전기 1954년도 『시세일람』은 1956년 3월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통계 등은 1955년 9월 1일 현재로 하기도 하였으며, 또 각 구 출신 민의원 명단은 1955년 7월 30일 현재로 하였다. 따라서 동 명칭 및 구역표에 있어서도 실은 발행 당시보다 1년이나 앞서 1955년 4월에 있는 동제 실시 이후의 현황을 그대로 수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보문동이라는 동명과 구역이 시작된 것은 앞으로 확실한 자료의 발견이 없는 이상, 『한국지명총람』 보문동조의 설명대로 1955년 4월 서울특별시의 동제 실시와 함께, 경내에 있는 보문사의 이름을 따서 출발하게 된 것 같다.

보문동이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편입된 것은 1975년 10월 1일의 일인데 이 때에는 동대문구와 성북구 사이에 여러 곳의 출입지점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 즉 이 해 9월 23일에 서울시의 구(區)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동대문구의 보문동 1·2·3·4·5·6가는 모두 성북구에 편입되고 보문동 7가도 신설동로터리에서 갈라져 일부는 성북구 보문동 7가로 되고, 다른 일부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편입되었다. 대신 성북구에서 동대문구로 편입된 곳은 석관동의 일부가 동대문구 이문동에, 종암동 일부와 안암동 5가 일부가 동대문구 청량리동과 제기동에, 안암동 4·5가의 일부가 동대문구 용두동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80년 7월 서울시의 인구 과밀동을 분동하고 과소동을 폐합할 때에는 보문2동을 폐지하고 보문1동을 합하여 보문동으로 하였다.

보문동이 본격적인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오래 되지 않는다.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광복 이후 6·25전쟁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보문동의 경관은 6·25전쟁 직후에 허허벌판과도 같았다.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옛날 보문동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곳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고 모래벌판만이 펼쳐졌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보문동을

다른 이름으로 '모래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모래마을은 별판이었지 집이 있던 곳은 아니다.

그러나 보문동 1·2·4·5·7가 일대가 주택지로 형성된 것은 1936년에 서울의 최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영등포와 더불어 돈암지구가 선정되어 택지가 조성되면서이다. 조선총독부는 경성부의 시가지계획구역을 고시하고,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에 '총독부고시 제722호'로 가로망계획과 더불어 5,226만 6,900m²(약 1,581만 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토지구획정리지구(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하였다. 총 10차 30개 지구 중 1차년도 3개 지구 279만 300평에 영등포지구 157만 7,900평, 돈암지구 71만 3,900평, 대현(大峴)지구 49만 8,500평이 먼저 시행되어, 1937년에 시작, 194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40년 12월 말에 돈암지구는 부내 10개 구획정리지구의 공사진척도 중 가장 앞선 96%의 공사가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택지로 조성된 안암천 주변의 돈암정(삼선동·동소문동·동선동·돈암동·보문동 포함) 일대가 경성부 내의 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 단체의 종류 이상 근무자들의 주거지로 변신한 것이다.

보문동은 성북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부진한 편인데 이는 대개 지리적 조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문동은 동쪽에는 안암동 산록, 서쪽은 삼선동 산록 사이에 있어서 지형이 긴 골짜기로 되어 있고, 큰 도로도 신설동에서 돈암교로 나가는 대로가 있을 뿐 사통팔달의 시가지로서의 교통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곡·구릉을 의지하여 인가들이 밀집하여 있는데 탑골·우선동 등의 마을 이름 또한 그러한 지리적 상황의 한 면을 말해 준다. 그러나 지하철 6호선이 안암동에서 보문동을 지나 창신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6호선이 개통되면 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문동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해 한국 현대사의 또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다.

보문동의 이모저모

● 동망봉

보문동 6가와 종로구 송인동 사이 청룡사 앞에 우뚝 솟은 큰 봉우리가 '동망봉'이다. 조선시대 단종이 어린 나이로 숙부인 세조에게 몰려 멀리 강원도 영월로 귀양가 있을 때, 단종비 송씨가 그 서쪽 산록 청룡사(정업원)에 우거하면서 매일 이 봉우리에 올라 동쪽으로 단종이 계신 영월을 바라보았다 하여 산봉우리 이름을 동망봉이라 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 정경을 가없게 여기고 근처에 영빈정을 지어 주었으나 왕비 송씨는 그 집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이 초가 암자에서 18세부터 80세까지 지냈다. 1771년(영조 47) 6월에 왕이 이곳에 거동하여 친필로 쓴 「정업원 구기」라는 비를 세우고, 이 동망봉사의 바위에도 「동망봉」 세 자를 친필로 써서 새기게 하였다고 한다. 이 동망봉의 동쪽 보문동 6가 지역에는 동망산신각이 있는데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 마을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다. 산신각은 일찍이 단종이 영월로 귀양가 있을 때 단종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단종 대비마마는 곧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로서 단종대왕의 어머니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종비가 대비마마로 잘못 불려져 단종비 송씨가 어머니인 문종 왕후 현덕왕후 권씨로 잘못 전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는 보문동 3가에 있는 미타사의 안내기나 다른 설화에서도 볼 수 있다.



동망봉

일설에는 왕비 송씨가 귀양길에 오른 노산군과 함께 청룡사에 들러 청룡사 안에 있는 우화루에 잠시 머물면서 송비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였다고 하여 사람들은 우화루를 영리정이라 불렀는데 변음되어 영미정이 되었다고 한다. 송비는 단종의 뒤를 따라 영리다리까지 나가서 마지막 작별을 하였으며, 이 뒤부터 영리교라 하였는데 와전되어 '영미다리'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송비는 청룡사에서 나온 이후 바깥 세상과는 인연을 끊고 일념으로 단종을 위해 기도하고 사중의 어려운 일을 돕기 위해 자주물을 들여서 댕기·저고리·고름·끝동 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주물을 들여서 바위 위에 넣어 말리곤 하였으므로 이 바위를 '자주바위'라 하고, 바위 밑에 있는 샘물을 '자주우물'이라 하며, 마을 이름을 자두동이라 부르게 까지 하였다. 야사(野史)에 의하면 송비가 날마다 오르던 동망봉의 풀들은 5백여 년이 지나도록 송비의 한이 맺혀 모두 동쪽으로만 고개 숙였는데 이것은 송비가 단종을 그리던 애달픈 한이 동망봉 기슭에 뻗쳐 동쪽으로만 고개 숙이게 된 것이라고 한다.



보문사

① 단우물

미타사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우물이 하나 있다. 이 우물을 옛날에는 '단우물'이라 했다. 이곳은 주로 사찰의 비구니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담소를 나눈 곳이었지만 현재는 우물터로서의 명맥만 유지한 채 사람들의 이용은 없다.

② 탑골고개

보문동의 위치는 동대문과 맞닿아 있다. 보문동의 험한 고갯길을 지나면 동대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③ 보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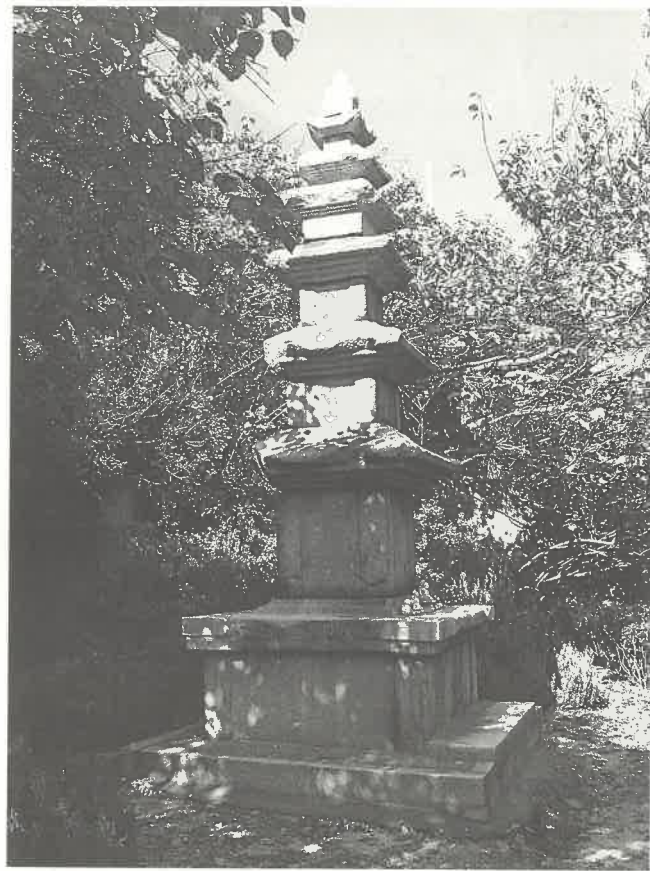
보문사는 고려시대인 1115년(예종 10) 담진국사가 창건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다. 옛날 건물로는 영조대(1721~1776)에 건축된 대웅전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절이 황폐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광복과 함께 주지 송은영이 취임하면서 30여 년간을 불사 중흥과 건물 중창에 전심노력하여 현재는 80여 명의

여승들이 거처하면서 수도생활에 종사하고, 2만 평 대지 위에 보광전·준불장·시자원·호지문·극락전 등이 건립되고, 또 경주 석굴암을 모방한 석굴암 및 사리탑과 높이 15척 5촌, 구경 4척에 달하는 거종 등을 갖추어 대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 1972년에는 대한불교 보문종으로 등록하여 동양 유일의 비구니 종단을 운영하게까지 되었다.

● 미타사

이 보문사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탑골승방’의 역사를 말하는 여승방이 있다. 즉 보문사 정문인 호지문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보통 민가와 같은 기와집 대문 기둥에 ‘미타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이 절에 있는 「미타사기」에는 고려 950년(광종 즉위)에 혜거국사가 처음 창건하여 ‘미타사(彌陀寺)’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되어 있다. 그 후 1047년(문종 즉위)에는 석탑을 조성하여 탑골승방이라고도 불렀다. 다시 1314년(충숙왕 즉위)에 혜감국사에 의해 중건되었다. 조선시대 단종 때에 왕비 송씨에 의해 중수되어 순조와 헌종 때 각각 중수·중창되었다.

대웅전 뒤의 단화각 왼쪽 언덕 위에는 고탑(古塔) 1기가 놓여 있다. 이 탑은 6층으로 되어 있으나 위쪽의 3층과 아래쪽의 3층은 그 시대를 달리하고 있다. 아래쪽의 3층은 그 조성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단



미타사의 대웅전 뒤 단화각 고탑



미타사 대웅전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탑골승방의 유래가 이 미타사의 고탑(古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동제

제사의 이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문동 지역만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제사는 보문동을 지켜주는 산신님이 있는 데서 유래한다. 그의 영험함이 보통이 아니어서 6·25전쟁 때에도 이곳은 폭격을 맞지 않고 잘 보존이 됐다고 한다. 산신의 보살핌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고 믿은 동사무소에서는 마을 한 가구마다 한 숟가락씩의 쌀을 건어 10월 상달에 산신께 고사를 올리고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은 제를 올리지 않는다.

북한산 자락의 능마을

정릉동



정릉동의 발자취

조 선왕조 최초의 국모인 신덕왕후 강비의 능인 정릉이 있어 이름 지어진 마을이 정릉동이다. 그 이전의 지명은 사을한리(沙乙閑里)였는데, 사을한리는 우리말의 '살한이'를 한자음으로 옮긴 것이다. 사을한리는 다시 사아리(沙阿里)로 약칭되기도 하였으나, 신덕왕후의 정릉이 이곳에 옮겨짐으로 하여 '능말', 즉 능동(陵洞)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그러나 선조조에 정릉을 다시 찾을 때에도 이곳이 정릉의 소재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 여러 곳을 찾아 헤매었다는 기록을 보면 이곳에 능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능말'이라는 지명은 현종조에 다시 정릉을 수봉하고, 봉사수호(奉祀守護)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행한 후부터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1866년(고종 3)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 5부 중 동부 송신방에는 안암동계·종암동계 등과 함께 정릉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과 함께 서울의 구역 명칭을 일시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의 5부에서 이를 중서(中署)·동서(東署)·서서(西署)·남서(南署)·북서(北署)의 5서(署)로 고칠 때 동서 송신방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에 성북동·소정릉동·손가정·청수동·미아리·번리·대유수리·가오리·우이리 등의 동명이 보인다.

1911년 4월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하여 경성부가 5부 8면제로 바뀔 때 따라 성외지역(城外地域)인 송신방은 송신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4월에는 다시 부·군의 명칭 및 행정구역을 고치면서 경성부의 송신면과 인창면의 각 일부를 합하여 경기도

고양군의 송인면으로 하였으며, 전의 송신방의 대정릉동·소정릉동·손가정·청수동을 합하여 송인면 정릉리로 하였다.

1936년에 다시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확장될 때 고양군 송인면의 안암리·성북리·돈암리·제기리·이문리·회기리·휘경리 등 많은 지역이 다시 서울 안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 때 정릉리는 그 일부가 돈암리에 포함되어 서울에 함께 편입되었을 뿐 많은 지역은 인근의 미아리 및 상월곡·하월곡 등의 지역과 함께 고양군 송인면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이들 지역이 서울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45년 이후의 일이었다.

1947년 9월에 당시 고양군 송인면으로 남아 있던 정릉리·미아리·상월곡리·하월곡리의 4개 동리의 주민들은 대표를 선정하여 서울시편입기성회를 조직하고, 편입진정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4개 지역은 서울시와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부분이 시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실정이며, 또 경찰행정은 수도 관할구역이고 일반행정은 시구역 밖인 고양군에 속함은 모순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건이었기에 이들의 진정은 당국자에 의하여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며, 이 결과 194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거하여 정릉동은 물론 다른 고양군 송인면의 남은 지역이 서울시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 때에는 송인면과 함께 같은 고양군의 은평면과 시흥군 동면의 일부도 편입되어 광복 후 처음으로 서울시의 구역 확장이 있었으며, 성북구가 신설된 것도 이 때의 일이었다.

서울시에 편입된 후에도 동리명은 전의 그대로 상월곡리·하월곡리·미아리·정릉리 등으로 통용되었는데 이듬해 3월에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 '서울특별시 동리명칭 중 개정의 건'에 의하여 신·편입지역의 명칭을 전부 동으로 고침에 따라 정릉동으로 되었다.

정릉동은 서울의 북쪽 북한산 연봉(連峰) 밑에 위치하여 그 경계가 깊숙이 들어가 북쪽으로는 북한산성의 대성문·보국문이 있는 성 밑까지 이르며, 남쪽 산 아래에는 인가들이 모여 있는데 동쪽은 도봉구의 미아리(동), 남쪽은 돈암동이며, 북쪽은 도봉구의 수유리(동), 서쪽은 종로구의 평창동·구기동으로 경계를 삼고 있다. 따라서 동의 총 면적은 성북구 각 동 중에서도 제일 넓다. 그러나 지역이 북한산 남쪽 산비탈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거 가능 면적은 넓지 않다. 이러한 정릉동

은 1975년 9월 서울시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따라 도봉구 경계가 있는 정릉동 236의 482, 235번지의 동북쪽 지역은 도봉구 미아동으로 편입되었다.

한편 1955년 4월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1955. 4. 18. 공포)에 의하여 종래의 동회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행정동제를 실시함에 따라 정릉동은 정릉 제1동과 정릉 제2동으로 나뉘었는데 정릉동 중 정릉천의 지류, 소하천을 경계로 하여 그 서남방의 지역을 정릉 제1동으로, 정릉 제1동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을 정릉 제2동으로 하였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면적 확대 및 인구 증가에 따라 1970년에는 행정동의 일대 개편 증설(增設)이 있었다. 같은 해 5월 6일자로 동장 정원에 관한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면적과 인구가 적은 117개 동이 64개 동으로 통·폐합되고, 56개의 큰 동은 113개 동으로 분리·증설하게 되었는데, 정릉동은 종전의 제1동·제2동에서 제3동·제4동이 증설되어 4개의 행정동으로 되었다.

한편 1973년에 성북구에서 도봉구의 분리·증설이 있은 후, 1975년 10월에는 강남구의 증설 등 서울시에 다시 대폭적인 구·동의 관할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이 때 정릉4동의 일부가 도봉구 미아7동으로 개편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렇게 새로 편성된 구역 안에는 아직 옛날 동명이 남아 전하기도 한다. 즉 정릉이 있는 부근 마을을 지금도 '능말'이라 부르니, 신덕왕후의 능이 있는 마을을 뜻하는 이름이요, 물이 맑은 마을이라는 청수동, 손씨가 많이 살았다는 손가정(孫哥亭)의 마을이 정릉3동에 동·서로 마주 앉아 있다. 또 정릉3동에는 동구(洞口)에 바위가 문설주처럼 서 있다 하여 바위를 '문바위', 마을을 '문바위굴(골)'로 불러오는 곳이 있으며, 배같이 생긴 모양의 바위가 있다 하여 바위를 '배바위', 바위가 있는 마을을 '배바위굴(船岩洞)'로 불러오기도 한다. 또 옛날부터 소나무와 시냇물이 어울려 좋은 경치를 아룬 것을 사랑하여 찾아 노는 사람들이 「송계동천(松溪洞天)」 네 글자를 바위에 새겨 전한 데서 이름을 얻은 송계동이 있다. 그리고 현재 고명중학교 앞은 서울 시내의 인분(人糞)이 모여지던 곳이다. 이렇게 모인 인분은 창동으로 운반되어 농사짓는 데 거름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곳을 예전 사람들은 '똥통골'이라고 불렀다. 현 정릉1동 중앙탕이 있는 주변 일대에는 예전에 양광대라고 부르던 곳이다.

정릉동의 산을 보면 정릉1동의 우성아파트 자리는 예전에 뽕뽕산이라 부르던 곳이었다. 그 당시의 이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돌이 많은 곳이었으며, 동네 아이들

의 놀이터로 이용되었다. 지금의 기산아파트와 경남아파트 자리도 모두 산이어서 개발되기 전에 이곳은 겨울철에 땀감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하천은 정릉골을 발원으로 한 물은 지금의 북부 간선도로 공사하는 자리를 거쳐 종암동과 안암동을 지나 중랑천의 한 지류가 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지금의 길음시장 쪽(버스정류장)에 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금방 넘쳐 건널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하천이 복개되기 전에는 물이 맑아 이 개울에서 목욕하는 인파가 많았다. 그리고 정릉2동 과출소 앞 하나은행 쪽에는 만수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매워져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다리는 매우 낮아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물이 다리 위로 넘쳤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인 정릉1동의 16번지 일대는 예전에 호박밭이 많은 구릉지대였다. 또한 배밭골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에 배밭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배밭은 지금의 평창동 지역까지 뻗어 있었다고 한다.

정릉1동 16번지 일대는 6·25전쟁 이후 평안북도 철산의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정부는 이곳에 영국식의 철판으로 된 집을 열 채 정도 지어 피난민들을 수용하였다. 피난민들은 대개 기독교를 많이 믿었다고 한다.

정릉1동의 16번지 일대에는 일제가 집터를 갈라 놓았다가 광복 후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원조로 집을 지어 개인에게 팔았던 지역이다. 그 당시 자재는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었고 시멘트는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집 짓는 데 사용된 모래는 그곳에 있던 것을 사용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 집의 형태는 그 당시 정부의 부흥부(復興部)를 주축으로 하여 안암동 5가(개운사 일대)에 7채의 집을 시범적으로 지었던 것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산 72번지 일대에는 모두 판잣집이었다.

수도시설로는 정릉1동 전야약국 자리에는 예전에 공동수도가 하나 있었다. 그 시절엔 집집마다 펌프가 있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식수는 공동수돗물로 충당하였다.

예전에는 정릉동 16번지 안에 택시회사가 6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는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배바윗골 근처에는 지금까지도 무속인들이 천제당 등을 짓고 모여 살고 있다. 1960년대 초 독섬이 홍수로 침수되었을 때 정부는 그곳 주민을 지금의 정릉3동으로 이주시켰다.

지금의 길음시장 뒤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리고 정릉4동 716번지 일대(삼



배바윗골 산신제

덕단지)는 6·25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전사한 군인들을 묻기 위해 묘지터를 잡아 묘지로 쓰다가,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여 지금의 동작동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정릉1동 16번지 일대에는 갑진초자라는 유리 공장이 있었고, 아리랑시장에는 유일초자라는 유리 공장이 있었다. 그리고 정릉1동 16번지 안에는 미군부대의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당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남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먹기도 하였다.

정릉동 사람들에게 전해 오는 전설로 여기 정릉동 여신이 자신들을 도와준다고 믿으며 매해 산신제를 지내는데, 만약 정릉을 떠나면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하여 다시 정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릉의 여신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정릉3동 주민을 주축으로 매년 10월에는 배바윗골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정릉동의 이모저모

● 청수장

북한산 남쪽에 위치한 정릉동은 석가봉·성덕봉·화룡봉·잠룡봉·형제봉 등의 여러 봉우리가 높이 솟고, 남쪽을 향하여 작고 큰 능선이 뻗어 내려온 사이로 깊은 골짜기, 맑은 시냇물이 곁들여서 가는 곳마다 산수풍경의 조화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시냇물이 맑고 좋다 하여 '청수(淸水)'의 동명으로 부르는 청수동의 계류를 따라 올라가면 청수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유원지의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여름철이면 피서·청유(淸遊)를 위하여 찾아 드는 인파가 길을 메운다. 일찍이 3·1운동 때 48인의 한 사람으로 만년에 세상을 등지고 산수를 찾던 우정(偶丁) 임규(林圭)는 정릉 계곡에서 심정을 달랬다.

한 그릇 물을 마시며 동자의 예절을 생각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옛사람 은혜 감사한다.
간신히 걸어서 정릉 골짜기에 이르니,
숲속의 서늘한 바람 불어 정신을 상쾌하게 한다.

또 청수동 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등산로가 북한산성의 대성문·보국문을 지나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로까지 이어지는데, 보국문을 넘어서면 동북쪽으로 노적봉·만경대·백운대·인수봉 등 북한산의 웅장하고 기묘한 봉우리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또 시인 고은(高銀)도 이곳 청수장 계곡을 읊은 아름다운 시 「청수장에서」를 남겼다.

내가 더 무엇이 되어 여기에 남았는가
청수장 수년을 보낸 빈 마음
때로는 모르는 것을 너라고 불러
물소리 이루어 앉아 있어도
살아온 것만큼 헛되고 오래인 것이
다만 물소리로 물을 흐르게 한다
네 앞에서 낮익으면 익을수록 슬프구나
어둑어둑한 나뭇잎새 저마다 잠들어서
네 몸 안에 둔 느티나무도 잠이 든다
이제 내가 더 무엇이 되어 남았는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여기저기 살아온 것은 없고
남은 것은 여기서 몸 하나로 남았는가
깊은 밤 돌아다 보면 더욱 깊어서
물소리는 저 혼자 흐르는 물을 제법 따라가는가

새벽이면 청수장 끝에 자리잡은 약수터에 사람들이 물려들고 여름철이면 더위를 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이 골짜기도, 무분별한 행락질서도 한 원인이겠으나, 그 많은 사람들을 미처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여관·식당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바람에 날로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

● 문바위

정릉4동, 지금 대일파출소 입구에는 문설주처럼 서 있어 문바위라 하는 큰 바위가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을 '문바위굴(골)'로도 불러왔는데, 이곳 주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이 바위를 다치거나 깨면 큰 재앙을 받는다고 하여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으며, 또 바위의 혼을 달랜다고 하여 해마다 음력 10월 초가 되면 동민들이 모여 제

사를 지내며 신령시하여 왔다. 그러나 1972년 5월에는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를 크게 넓히면서, 마을 입구를 막았던 이 문바위를 깨고 길을 넓혔기 때문에 지금은 문바위의 밑부분만이 남아 옛날을 회상하게 한다.

● 정릉

처음에 정릉(貞陵)은 지금의 중구 정동에 있었으나 1409년(태종 9)에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태조 비 신덕왕후 강씨에 관한 일화는 ‘버들잎 아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해 온다.

집이 곡산군(谷山郡)의 깊은 산골인 운중면(雲中面)의 용봉하(龍峰下) 용봉동(龍峰洞)이었는데, 왕비 강씨가 처녀시절에 집 앞 용연(龍淵) 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청년 장군 이성계(후의 조선 태조)를 만나게 되었다.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던 이성계가 목이 말라서 이곳을 찾아 물을 먹으려고 하자 강씨는 바가지에 깨끗한 물을 떠서 버들잎을 띄워 올렸다. 이성계가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으니, 강씨의 말이 “보아하니 구갈(口渴)이 심한 것 같은데, 급히 물을 마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버들잎을 붙여서 천천히 마시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이성계가 처녀의 예지에 감동하여 그 집을 찾게 되었으며 아내로 맞이하게 되니 그가 곧 태조의 제2왕비인 신덕왕후였다.

당시 고려의 풍습대로 향리에 향처(鄉妻) 한씨를 두었던 이성계는 이를 인연으로 하여, 본관이 신천(信川)으로 황해도 곡산 출신이며, 판삼사사 증상산 부원군 강지성(康之成)의 딸인 강씨를 경처(京妻)로 삼게 되었고, 이로써 강씨는 조선 건국 후 첫 왕비가 되었다. 고려 말의 권문세족이었던 강씨의 친가는 이성계의 권력형성과 조선 개국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구나 1392년 이방원(태종) 및 정도전·남은·조준 등이 태조를 추대하여 새 왕조를 개창할 무렵에는 제1왕비인 신의왕후 한씨는 이미 유명(幽明)을 달리하였기에 현비(顯妃)로 책봉되었다. 신덕왕후 강씨는 1396년(태조 5) 8월 13일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득분(李得芬)의 집에서 승하한 후에는 존호를 신덕왕후, 능호를 정릉이라 정했다.

태조는 사랑하던 왕비를 잃자 매우 슬퍼하여 조화와 시전(市廛)을 10일간 열지 않았으며 친히 흰옷(白衣)을 입고 능지(陵地)를 구하였다. 처음 능지를 정한 곳은

안암동이었으나 산역(山役)을 시작할 때, 물이 솟아 나왔으므로 채택되지 못했고, 취현방(聚賢坊) 북원(北原), 지금의 정동에 능지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홍천사(興天寺)를 왕후릉의 원찰(願刹)로 삼아 조계종의 본산으로 하였다. 태조는 대궐에서 정릉의 아침제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고, 이 홍천사에 자주 들러 법도를 마련했다고 한다. 태조가 매일 아침마다 종소리를 들었던 이 홍천사 대종은 1504년(연산군 10) 12월 화재가 나서 절이 불타고 1510년(중종 5) 사리각까지 불타 완전히 폐허가 되었을 때 홍인문(동대문)을 거쳐 광화문의 종루로 옮겨졌다가 일제강점기에 창경궁으로 옮겨졌으나 그 후 덕수궁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남아 있다. 처음 있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취현방에 있던 정릉이 지금의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진 것은 1409년(태종 9) 2월의 일이었다. 이 때의 천릉(遷陵)의 이유로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올린 상소에,

의정부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옛 제왕(帝王)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貞陵)이 성 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使臣)이 묵는 관사(館舍)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라고 하여 의논한 끝에 실천한 것이지만, 실체는 신덕왕후에 대한 태종의 사감(私感)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406년(태종 6)에는 의정부의 계청(啓請)에 의해 도성 안에 있는 정릉의 영역(塋域)이 너무 광대하다 하여 능에서 100보 거리 밖에 있는 지역은 전부 철거하여 주가(住家)를 짓게 한 일도 있었다. 또한 태종은 정릉을 옮긴 지 한 달이 지난 그 해 4월에 능의 정자각을 헐어서 태평관의 북루(北樓) 3칸을 짓고 정릉 옛 자리를 평평하게 하여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석물(石物)을 모두 묻어버리게 하였다. 1410년(태종 10) 여름에 큰 장마가 져서 도성 안 종로거리가 모두 침수되고, 광교에 있던 흙다리가 무너졌을 때, 정릉 구묘(舊墓)의 석물들을 실어다 돌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이 때 석교에 사용한 12지신상(神像)을 새긴 석재 등은 상당한 미술품으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으로 수장된 것이다.

정릉은 동소문 밖 사을한리(현 정릉동)로 옮긴 후에는 수백 년간을 왕후릉이라기 보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주인 없는 무덤에 불과했다. 더구나 1410년 생모인 신



태조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

의왕후 한씨를 태조의 유일한 정비(正妃)로 태조와 함께 그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여 신덕왕후를 후궁의 지위로 격하시킨 후에는 능묘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드리기로 정해진 의례마저 폐지되니 직손(直孫)이 없는 정릉에는 명절 때가 되면 가다가 뜻있는 왕족의 부인(夫人)들만 찾을 뿐, 분묘에는 풀이 무성하고 석물은 무너져 일반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누구의 묘소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릉을 사흘한리로 옮긴 지 170여 년이 지난 1581년(선조 14)에 정릉 봉심(奉審)의 의논이 조정에서 일어났다. 그 동기는 다음과 같다. 선조의 선왕(先王) 능행(陵行)이 있는 날 함경도 덕원에 사는 강순(康純)이라는 사람이 어가(御駕) 앞에 나타나 소장(訴狀)을 올렸다. 이 소장에는 “소신은 판삼사 강원성(康元成)의 후손으로서 군역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능묘를 봉사하는 사람들의 예에 의해 군역에서 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 정부 관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울곡 이이 같은 이는 “신덕왕후는 종묘에 배향해야 할 일인데 이유 없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이는 윤기(倫紀)에 관계되는 일입니다!”라고 하여 왕에게 존숭(尊崇)하는 행사를 할 것을 요청하여 조정의 의논 끝에 마침내 예관(禮官)을 보

내어 능침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돌보지 않은 지 오래된 묘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마침 변계량이 지은 『춘정집(春亭集)』 중 정릉조천제문(貞陵造遷祭文)을 발견하여 이에 따라 부근을 파서 지석(誌石)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후는 재취(再娶)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능침을 수봉(修封)하고 한식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치고 말았다.

다시 1669년(현종 10) 송시열의 계청(啓請)에 의해 신덕왕후를 종묘에 배향하고 능묘는 봉심(奉審)기로 하였다. 예조참의 이준구가 봉심하여 정릉의 현황을 보고하고, 영중추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등의 계청에 의하여 능의 수봉은 물론, 재실(齋室)을 중건하고 수호군을 정급(定給)하는 일 등을 차례로 진행하였으며, 뒤이어 다시 송시열·정태화 등 중신·문관들의 상소·정청(庭請)에 의하여 왕후에게 순원(順元) 현경(顯敬)의 숭호를 올리고 그 해 10월에는 종묘에 신위를 배향하게 되니, 사흘한리 천이(遷移) 후 정릉은 26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본연의 면모와 예우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신덕왕후가 태묘에 배향되던 날, 정릉 일대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마을 백성들은 그 비를 신덕왕후의 원(冤)을 씻어주는 비라 하여 세원지우(洗冤之雨)라고 했다.

● 봉국사

정릉에서 북동쪽 산너머에는 역시 정릉의 원찰인 봉국사가 있다. 이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1395년(태조 4) 무학 자초(無學自超)가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창건했다는 설이 있다. 당시 무학대사는 약사여래를 봉안하고 약사사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1468년(세조 14) 중건했으며, 1669년(현종 10) 태조의 제2왕후 신덕왕후의 황폐화된 묘소를 능묘로 복원하면서 왕실의 원찰로서 이 절을 지정하고 나라를 받든다는 뜻에서 봉국사로 고쳐 불렀다. 그 뒤 조선 말기 이전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으로 불에 탄 것을 이듬해 한계(漢溪)와 덕운(德雲) 스님이 중창했다. 1898년 운담(雲潭)·영암(永庵)·취봉(翠峰) 스님 등이 명부전을 중건했고, 1913년 칠성각을, 1938년에는 염불당을 신축했다. 1979년 일주문 곁에 아담한 2층 건물을 지어 아래에는 천왕문을, 위에는 일음루(一音樓)라는 종루를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적·유물로 현존하는 건물은 만월보전(滿月寶殿)을 비롯하여 염불당·용왕

각·명부전·삼성각·독성각·요사채 등이 있다.

● 경국사

봉국사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계류(溪流)를 따라 삼각산 동쪽 중턱에 있는 또 다른 정릉의 원찰로 경국사가 있다. 이 역시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고려 1325년(충숙왕 12) 자정(慈淨) 국존 자안(子安)이 창건하여 청암사(淸岩寺)라고 했다. 1330년경 부암 운묵(浮菴 雲默)이 머물면서 천태종의 중풍을 크게 떨쳤으며, 1331년 신자 채홍철(蔡洪哲)이 선방(禪房)을 증축하여 선승(禪僧)들의 수도를 적극 후원했다. 1352년(공민왕 1) 금강산 범기도량을 참배하고 남하한 인도 스님 지공(指空)이 주석한 뒤부터 큰스님들의 수도처이자 호국안민을 위한 기도도량으로서 전승되었다. 조선 1507년(중종 2) 억불정책으로 법당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퇴락한 채 빈 절로 남아 있다가, 1545년(인종 1) 왕실의 도움으로 중건했다. 1546년 명종의 즉위로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자, 왕실의 시주로 건물을 전면 중수하고 낙성식과 함께 국태민안을 위한 호국대법회를 열었다. 그 때 부처님의 가호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한다는 뜻에서 '경국사'로 이름을 바꿨다. 그 뒤 1693년(숙종 19) 연화 승성(蓮華 昇誠) 스님이 건물을 중수하고, 천태성전(天台聖殿)을 신축했으며, 1737년(영조 13) 낙암 의눌(落巖 義訥) 스님이 주지에 취임했고, 1793년(정조 17) 천봉 태흘(天峰 泰屹) 스님이 크게 중수했다. 1842년(헌종 8) 한국불교 계맥(戒脈)의 중흥조인 대은 낭오(大隱 朗昨) 스님이 관음전을 신축했다. 1864년(고종 1) 왕의 등위축재(登位祝齋)를 열었고, 1868년 호국대법회의 개설과 함께 삼성보전과 산신각을 신축했으며, 왕실에서는 중을 회사하기도 했다. 1878년(고종 15) 함홍 치능(涵弘 致能) 스님이 예조의 도움으로 각 요사를 중수했고, 1915년 기송 석찰(基松 錫察) 스님이 극락보전을 중수했다. 1912년 단청과 탕화의 대가인 보경 보현(寶鏡 普賢) 스님이 주지에 취임한 뒤 1979년까지 퇴락한 건물을 중수했다. 그의 후임으로 가산 지관(伽山 智冠)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1980년대에 활발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창건 이래 한국 계율의 맥을 이어온 도량이며, 정토사상에 입각한 기도도량으로도 유명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찾았던 곳이며, 부통령 시절에 방한했던 미국의 닉슨(Nixon, R. M.)은 그의 회고록에 이 절을 참배

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이 절에서 찍은 사진을 수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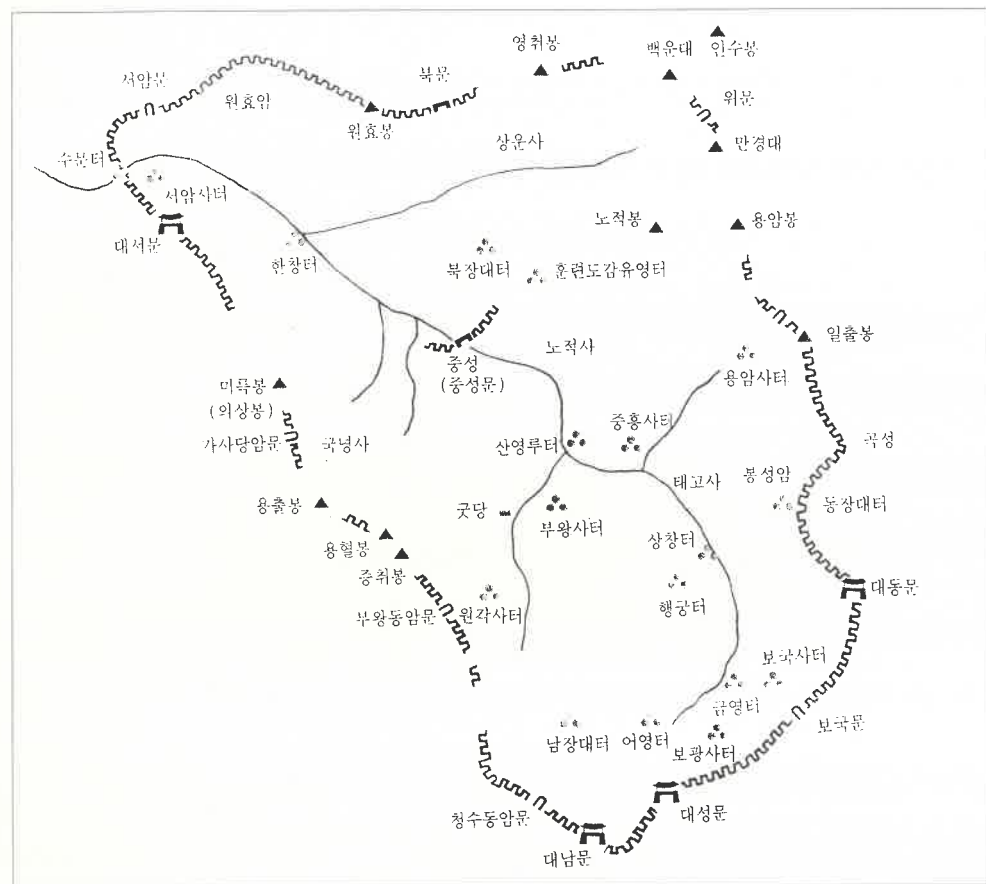
유적·유물로 현존하는 건물은 극락보전·영산전·명부전·관음전·삼성보전·천태성전·산신각·봉향각·시방선원(十方禪院)·부림정사·동별당·요사 등 17동의 건물이 있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하여 목각탱화(보물 제 748호)·한중탱화·팔상탱화 등이 봉안되어 있다.

● 성저오리 정계비

조선 초기에 관할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높이 76cm, 너비 42cm, 두께 24cm이다. 정릉동 403번지 6호 청수장 유원지로 올라가는 큰길가에 있었던 이 정계비의 건립연대는 미상이나 정계석 정면에 「성저오리 정계입표 경인삼월 일(城底五里 定界立標 庚寅三月 日)」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1410년(태종 10)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 초기 한성부의 관할구역을 정할 때에 도성에서 사방 10리까지로 하였는데, 이 때 정한 관할구역은 동쪽으로는 양주 송계원(松溪院)과 대현(大峴), 서쪽으로는 양화도(楊花渡)와 고양 덕수원(德水院), 남쪽으로는 한강과 노도(露渡), 북쪽으로는 북한산으로 하였고, 도성으로부터 5리 되는 지점에 성저오리 정계비(城底五里 定界碑)를 세웠다. 조선 초기에 많은 방명표(坊名標)와 정계표를 세웠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이 성저오리 정계비는 1970년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으로 옮겼고, 그 자리에는 시멘트로 된 유지표(遺址標)를 세웠으나, 현재는 유지표도 없어져 성저오리 정계비가 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북한산성

북한산은 봉만·계곡이 수려하여 풍광으로도 유명하지만, 주위 20여 리에 달하는 석성(石城)이 있어 더욱 널리 알려졌다. 북한산성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토축산성으로 사적 제162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다. 현재 대서문(大西門)이 남아 있고 장대지(將臺址)·우물터·건물터로 추정되는 방어시설의 일부가 있다. 삼국 사이의 쟁탈대상지로 백제가 위례성에 도읍을 정할 때 도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백제 132년(개루왕 5)에 축조한 것이다. 여기서 백제의 주력군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고, 근초고왕의 북진정책에 따라 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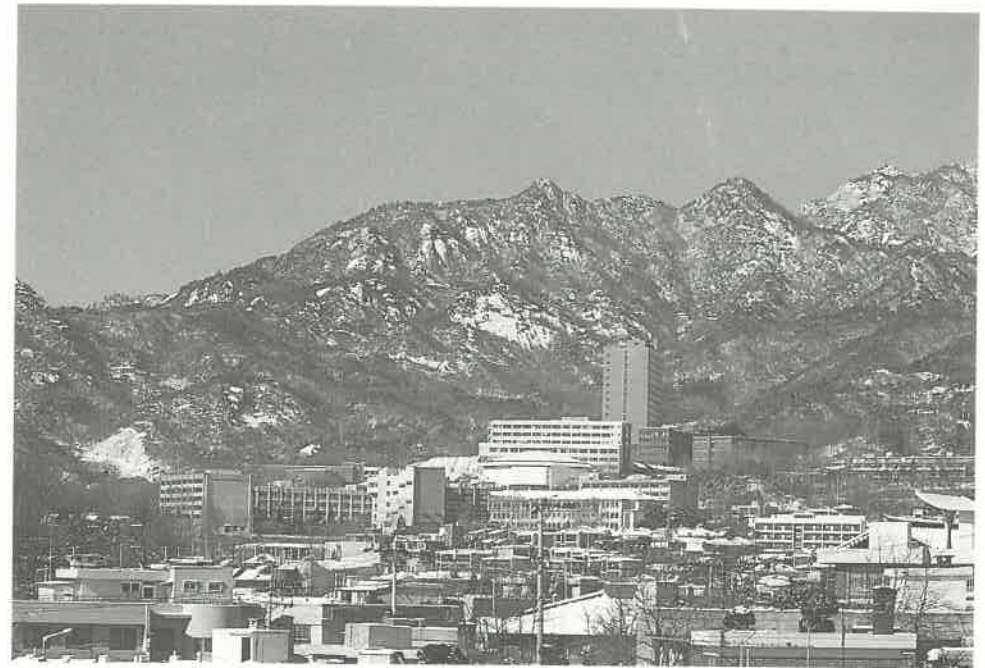


〈그림 1〉 북한산성 내의 유적 분포

자료 : 조면구, 『북한산성』(1994), 대원사, 17쪽

군(北征軍)의 중심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북한산을 포위·함락시켜 475년 개로왕을 죽이고 백제의 도성을 유린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는 공주의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의 남진을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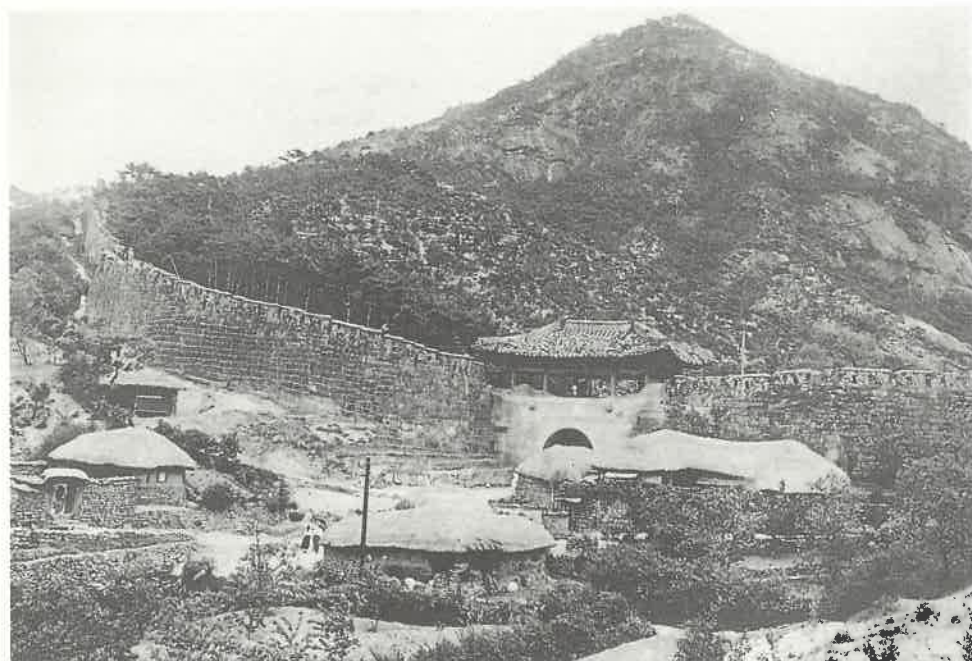
그러나 553년(진흥왕 14)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어기고 백제의 영토인 한성(漢城) 지역을 점령하였다. 진흥왕의 북한산순수비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세워진 것이다. 603년(진평왕 25)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하자 진평왕 자신이 1만의 군사로서 이를 구원하였다. 또한 661년(태종 무열왕 8) 5월에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인 장군 생해(生楷)와 함께 20여 일간 포위하여



정릉에서 바라본 북한산 보현봉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 때 성주(城主) 동타천(冬陀川)은 2,800명의 군민(軍民)과 함께 필사적으로 이 성을 방어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군의 도전을 받고 있던 때이므로 만약 고구려에게 함락되었다면 삼국 통일계획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자 현종은 고려 태조의 재궁(梓宮)을 옮겨 오고 성곽을 증축하였다. 1232년(고종 19) 이곳에서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1387년(우왕 13) 개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외침을 자주 당하자 도성의 외곽성으로 축성론(築城論)이 일어나 1659년(효종 10) 송시열(宋時烈)에게 명하여 수축하게 하고, 1711년(숙종 37) 왕명으로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하여 둘레 7,620보의 석성이 완성되었다. 성의 규모는 대서문·동북문(東北門)·북문(北門) 등 16개 성문과 시단봉(柴丹峰) 위의 동장대(東將臺)·나한봉(羅漢峰) 동북에 남장대·중성문(中城門) 서북에 북장대가 있었다. 또한 이듬해에 지은 130칸의 행궁과 140칸의 군창(軍倉)이 있었다. 성 내에는 승군(僧軍)을 위한 136칸의 중흥사(重興寺)를 비롯한 12개의 사찰이 있고, 99개소의 우물과 26개소의 저수지가 있었다.



옛 대성문



현재의 대성문

현재의 북한산성에는 삼국시대의 토성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나 대개 1711년(숙종 37)에 쌓은 것으로 성곽의 여장(女牆)은 허물어졌으나 성터는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는 수도 한성의 방위 또는 유사시에 들어가 수호하기 위하여, 당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 3군문의 군사와 한성부민 및 각 사찰의 승도들을 동원하여 쌓은 것인데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평지에는 높이 14척, 산상에는 높이 6척 내지 10척으로 쌓고 아주 절험한 곳에는 3·4척의 여장만을 쌓아 방어 수호에 적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 주위에는 역시 지리적인 형편에 따라 대·소의 문 14개를 설치하였는데, 이 중 대남문(大南門)·대성문(大成門)·보국문(輔國門)·용암문(龍岩門)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김구 주석 가족묘

경국사 남쪽에는 광복 후 1948년에 중국 중경과 상해에서 환장(還葬)하였던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가족으로 모친 곽낙원, 부인 최준례, 장남 김인의 묘소가 있어 지나는 사람들로 감회 깊게 하였는데 최근에 남양주시 금곡 가족묘지로 이장하였다.

● 정릉약수(정심약수)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 북쪽 골짜기에 있는 샘물은 옛날부터 위장병과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정릉약수'로 불렸으며, 또 샘물이 석벽 뚫린 사이에서 나온다 하여 '환벽천(環壁泉)'으로 이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6·25전쟁 후에는 이 샘물 부근도 황폐하였는데, 전란에 남편을 잃고 병고중에 있던 한씨(韓氏) 여인이 꿈속에서 신덕왕후의 계시를 받고 심력(心力)을 다하여 약수터를 돌보고 물을 마시면서 몸이 완쾌된 후로 약수는 다시 유명해졌다. 최근까지 '정심약수(正心藥水)'로 부르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길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 줄을 이었으나 지금은 그 명성만 남은 채 메워지고 터만 남아 있다.

● 북악터널과 북악로

북한산 남쪽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정릉동이니 만큼 교통에는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 그 동안 정릉동의 진입로는 남쪽의 미아리고개를 넘어서 정릉천을 따라 올라오는 도로가 대중을 이루고 서쪽으로 아리랑고개를 넘어오는 길이 있을 뿐이었

기 때문에 정릉동에서 서쪽으로 세검정·홍제동 등지로 가려면 남쪽 큰길로 나가서 도심지를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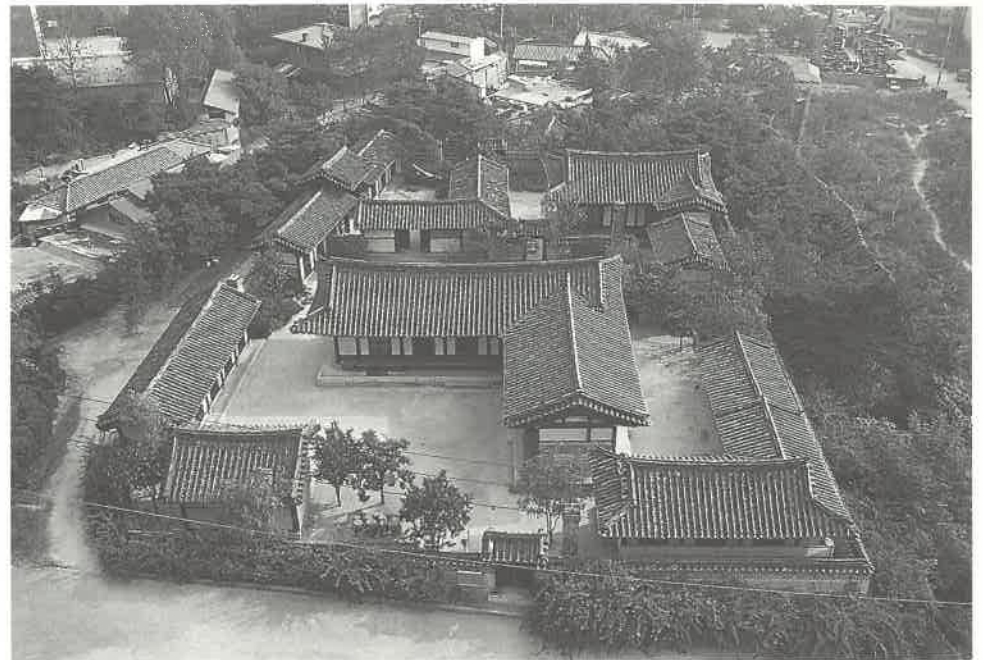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1970년에 정릉동·세검정(평창동) 간의 북부순환도로 개설계획을 세우고 1970년 6월에 비봉 아래쪽 바위산 연장 810m, 너비 12.5m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성북구 정릉동까지 북악산을 관통하는 터널인 '북악터널'을 뚫어 서대문구 홍은동, 종로구 부암동·평창동 지역에서 성북구 정릉동, 도봉구, 동대문구 방향에 이르는 동서지역간의 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정릉동에서 세검정을 지나 은평구 불광동 방면으로 이어지는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1971년 7월에는 폭 12.5m, 높이 6.25m의 터널과 함께 총연장 6,050m의 정릉동~세검정간 순환도로가 완성되니 북부 서울 동서교통의 맥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 북부순환도로는 정릉동 남쪽 아리랑고개 부근에서 북악을 지나 효자동~사직동을 연결하는 '북악로(북악산길)'와 함께 서울 북부지역의 일대 교통혁명이라고도 했다.

북악산길은 서울 분지의 북쪽을 이루는 북악산의 능선을 따라 자하문에서 정릉의 아리랑 고개에 이르는 관광도로로 길이 약 10km, 너비 10~16m, 1968년 9월에 개통되었으며, 자동차로 약 30분이면 완주할 수 있다. 이 드라이브코스 연변에는 서울의 옛 성터, 자하문·팔각정·풀장 등이 있으며, 부근의 신흥사·북한산 등과 어울려 대도시 부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드문 수려한 경승지가 많아서 서울의 손꼽히는 유람지 중의 하나이다. 이 도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팔각정에는 넓은 주차장과 2층 휴게실이 있어 잠시 쉬면서 파노라마처럼 전개된 서울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다.

● 한규설가

지방민속자료 제7호인 한규설 대감의 집이 중구 장교동에서부터 옮겨와 1980년 12월 20일에 완공하여 1981년 3월 9일 국민대학교로 등기 이전되어 있다.

한규설(韓圭畲)은 1848년(헌종 14)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1930년에 타계한 조선 말기의 무신이며 애국지사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순우(舜佑), 호는 강석(江石)으로, 부사 승렬(承烈)의 아들이며, 충융사(攄戎使)를 지낸 규직(圭稷)의 동생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28세에 진주병사에 발탁되었다. 1883년(고종 20) 전라좌수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우병사, 1885년 금군별장



한규설가

(禁軍別將)을 거쳐 우포도대장에 임명되었는데, 이 무렵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던 유길준(兪吉濬)을 연금형식으로 보호, 그로 하여금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완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뒤 친군우영사(親軍右營使)·상리국총판(商理局總辦)·기기국총판(機器局總辦)을 거쳐 1887년에 형조판서, 이어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고, 그 뒤 다시 우포장·형조판서·한성부판윤·친군장위사(親軍壯衛使)·연무공원관리사무(鍊武公院辦理事務)를 차례로 역임하고, 1894년 총어사(攄禦使), 1896년 법무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에 임명되어 사법집행의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독립협회가 결성되자 그 활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1898년에는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에 임명되고, 다시 법무대신으로서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의 탄압으로 만민공동회의 기세가 꺾이자 독립협회는 해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직에서 해임되었다. 1901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이어 이듬해 다시 법무대신에 임명되었다가 의정부찬정을 거쳐 1905년 의정부참정대신이 되어 내각을

조각하였다. 이 해에 일제가 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을사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이를 끝까지 앞장서서 반대하였고, 일제의 갖은 협박에도 굽히지 않아 결국 덕수궁 수옥헌(漱玉軒) 골방에 감금당한 채 본관(本官)을 면직당하였다.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뒤 곧 징계에서 풀려나 중추원고문·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일제에 의한 강제 한일합방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가 주어졌으나 받지 않았다. 이후 칩거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이상재(李商在)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창립하고 이를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期成會)로 발전시켰다.

이 집은 1890년대의 건물로 추정되며, 건평은 61.58평으로 솟을대문·사랑채·별채·안채 및 사당까지 같은 대지 위에 세워진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가옥이다. 안채는 간반통에 3칸의 안방과 전면 3칸, 측면 2칸의 대청, 그리고 한간통에 2칸의 건넌방이 있으며 ㄱ자로 꺾이어 부엌과 찬방이 있다. 사랑채는 ㄱ자형으로 침방·사랑방·사랑마루로 구성되고, 사랑방 전면에는 툇간이 있다. 뒤채는 4칸의 광과 부엌·방·마루방들이 ㄱ자로 꺾이어 있는데, 용도는 광과 별당으로 사용된 듯하다.

● 국민대학교

정릉동 861-1번지 북악터널 입구에 자리한 국민대학교는 민족수난기에 조국광복운동을 이끌어 온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가 이승만·김구·김규식·조소앙 등을 고문으로 한 ‘국민대학설립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946년 9월 1일 재단법인 국민대학관(현 학교법인 국민학원의 전신)을 모체로 야간대학 국민대학관으로 발족하였다. 보인상업고등학교 교실 두 칸을 빌려 출발한 국민대학관은 1948년 종로구 창성동으로 이전하여, 정규대학인 국민대학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주간부로 인가되었다. 1971년에 북한산 국립공원 기슭인 지금의 정릉 언덕으로 캠퍼스를 옮겼고, 1981년 6개 단과대학을 가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른다. 1998년 현재 문과대학(4개 학과)·사회과학대학(3개 학부)·법과대학(2개 학과)·경상대학(3개 학부)·공과대학(4개 학부)·조형대학(6개 학과)·사범대학(3개 학과)·삼림과학대학(2개 학과)·자연과학대학(2개 학부)·예술대학(2개 학부, 1개 학과) 등 총 10개 단과대학, 14개 학부, 18개 학과가 있다. 이 밖에도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으로 교육·경영·행정·정보과학·산업기술·디자인·정치·스포츠산업·국제통상·문예창작·산업재산권 등 12개 대학원이 있다.



국민대학교

● 서경대학교

서경대학교는 민족자주 건학이념에 따라 김구 선생의 제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대용 한판섭이 1947년 2월 22일에 중구 장충동 2가에서 2개 학부와 5개 학과로 개교한 한국대학에서 비롯되었다. 그 해 10월에 4년제 정규 야간대학으로 정식인가를 받았으나, 6·25전쟁 등 1950년대의 어지러운 현대사 속인 1954년 9월 30일에 폐교하였다. 1955년에 국제학원에서 재단을 인수하면서 학교명도 국제대학으로 바꿨다. 그 후 재단이 감리학원과 이화학당·삼문학원·명지학원 등 계속 이양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는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서경대학교가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한 것은 학교법인 성한학원(설립자 김성민)을 새로 맞이하면서부터이다. 우선 1988년 3월 1일에는 교사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현 위치인 정릉동으로 이전하여 학교 설립 이후 40여 년 만에 최초로 대학의 부지·건물 및 시설물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0년에는 사회과학원을 설립하고, 1992년 4월에 4개 학부, 18개 학과의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다. 같은 해 6월에는 법인 명칭을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으로 변경하고, 9월에는 국제대학교에서 서경대학



서경대학교

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현재 서경대학교는 22개 학과, 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6개 부속기관, 10개 부설연구소 등이 있다.

● 양광대

현재 정릉1동 중앙탕이 있는 주변 일대를 '양광대'라 부른다. 즉 길음시장에서 정릉천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파출소 뒤쪽의 넓은 공터를 이처럼 불렀다.

긴 골짜기를 품은 삼태기

길 음 동



길음동의 발자취

길 음동(吉音洞)의 동명은 기리목골을 한자로 고쳐 쓴 데서 연유한다. 기리목골은 의정부 방면에서 혜화문(동소문)을 통과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미아리고개의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의정부 쪽에서 도성 쪽으로 넘어오는 이 고개는 경사가 완만하고, 정릉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골짜기가 길게 형성되었고, 따라서 골짜기가 길게 놓여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기리물골 또는 기레미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는 이 동명의 유래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면 지금 길음시장이 있는 길 쪽으로 무릎이 닿을 정도로 물이 많이 차고 길이 질다고 하여 기리미골·지리미골(꼴) 등으로 불리다가 길음동이 되었다고 하며, 이 때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길음동은 남쪽으로는 미아리고개를 경계로 하여 돈암1동과, 서쪽으로는 정릉1동, 동쪽으로는 장위동·종암동과 이어져 있다. 길음동은 삼태기 모양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삼태기 모양이기 때문에 물고기(재화)를 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길음동 앞에 개운산(범이 동쪽을 보고 엎드려 있는 형이라 하여 ‘범개미산’이라 부름)이 범(호랑이)의 모양을 하고 삼태기의 입구를 막고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므로 큰 부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 건설 등으로 범개미산이 많이 없어져 삼태기 안으로 물고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형태로 변했다.

길음동은 조선시대에 한성부 동부 송신방의 성외의 한 지역이었으나 1866년(고종

3)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면 한성부 동부 송신방(성외)의 미아리 계에 속하였다.

일본의 침략으로 1910년에 한성부가 경성부로 개칭되어 경기도에 예속되었다. 이듬해 4월 경성부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도성 안은 5부 36방으로, 도성 밖은 모두 8개의 면으로 나눈 5부 8면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길음동 지역은 송신면이 되었다. 1914년 전국 부·군·면 폐합에 따라 길음동 지역은 경기도로 이관되어 고양군 송인면 미아리가 되었다.

광복과 함께 국토분단으로 인한 월남동포 및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 정치·경제·사회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서울의 구역 확장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1949년 8월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신설되었으며, 또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의 미아리·석관리·장위리·번리·우이리·수유리·상월곡리·하월곡리 등의 신편입지구를 신설한 송인출장소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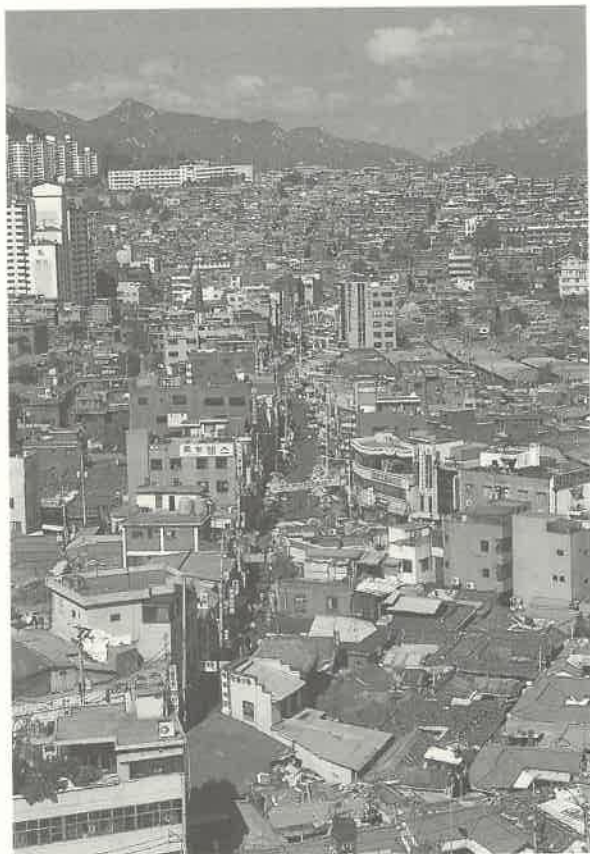
1955년 4월 종래의 동회제를 폐지하고 새로 동을 설치하여 길음동이 포함된 미아리는 미아1동·미아2동·미아3동으로 분할되었다. 1959년 10월 '동의 증가와 일부 동명의 개정'으로 미아동 533-1번지의 낙합교와 정릉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동 567-1번지에 이르는 서부와, 동지점으로부터 동 559-2번지를 경유하여 산 66번지에 이르는 유도로 이남의 지역을 경계로 한 도로 동북방 및 미아동 낙합교로부터 동 531번지의 구릉 이서지역의 전 미아1동 지역을 길음동이라 하였다. 또 길음동의 경계도로 동북방 및 산 66번지로부터 성황당고개에 이르는 구릉 서쪽 지역인 전 미아2동 지역을 인수동이라 하였다. 미아동 낙합교로부터 의정부에 이르는 국도 중에서 미아교를 중심으로 하여 동은 미아동 산 29번지에 이르는 소도로 이남 지역과, 서로는 불당곡에 이르는 하천을 연한 동 638번지에서 산 75번지의 능선을 따라 선화당 고개에 이르는 도로를 기점으로 한 이남지역의 미아3동은 송천동이라 하였다.

1970년 5월 동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을 때 길음동은 미아제1동, 인수동은 미아 제2동, 송천동은 미아 제3동으로 바뀌었으며, 1973년 7월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도봉구 미아 제1·2·3동에 각각 속하였다. 다시 1975년 관할구역의 변경과 동 명칭 및 구역확정이 있을 때 도봉구 미아동 일부가 성북구로 편입되어 길음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7년 9월 인구 증가 및 행정사무

의 증가로 종래의 길음동은 길음1동으로, 인수동은 길음2동으로, 송천동은 길음3동으로 동명이 개칭되었다.

길음동은 1950년대 도심지의 개발로 인한 철거민의 집단이주와 6·25전쟁으로 인한 월남 피난민들의 정착지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보인 동이다. 주로 빈민층이나 월남 피난민,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큰 돌산' '작은 돌산'에서 채석일과, 가죽공장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주민들은 전한다. 그래서 명동 대부분의 구두는 이곳에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길음동의 이모저모



옛 인수천. 길음시장이 있는 골목에서 길음2동으로 올라가는 길

● 인수동(길음2동)

길음2동의 옛 이름은 인수동이다. 인수동이란 동명은 지금의 길음시장이 있는 골목에서 길음2동으로 올라가는 길이 원래는 인수천이라는 개울이 흐르고 있었으므로 이 개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인수천은 '큰돌산'이라 하는 마을 뒷산의 채석장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개천으로 정릉천과 합류되거나 지금은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큰돌산이라는 이름은 지금의 신안아파트, 길음초등학교 지역이 화강암지형이라 돌들이 많은 데서 연유하며, 이 지역에 주택이 밀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석사업이



옛 앵두나무골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채석을 하지 않는다. 또 길음2동 제풍맨션 뒤쪽, 길음슈퍼 쪽이 예전의 '작은돌산' 이었다고 한다.

● 길음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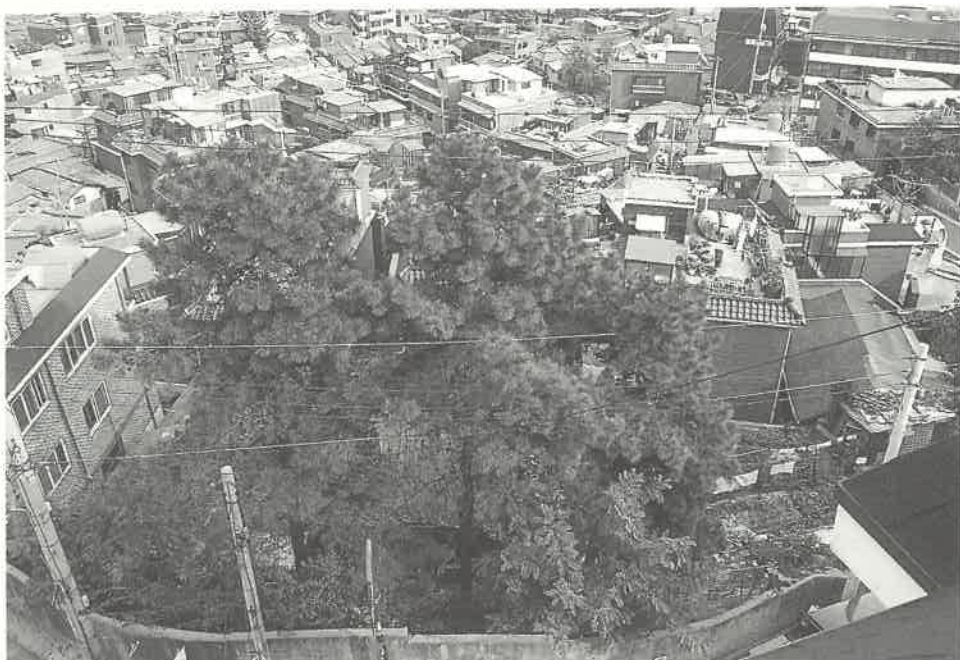
원래는 호박밭이었는데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이다가 지금의 길음시장이 되었다. 길음시장 가운데로 난 길로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개천이 흘렀다고 한다.

● 앵두나무골(함도리)

큰돌산 아래에는 앵두나무 과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처의 마을을 '앵두나무골' 또는 한자로 '함도리(含桃里)' 라고도 부른다. 미아초등학교 뒤로 앵두나무가 많았으나 관리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개간으로 인해 6·25전쟁 전후에 없어졌다.

● 앵두물(두꺼비우물)

앵두나무골에는 '앵두물', 혹은 '두꺼비우물' 이라 하는 우물이 있었다. 이 우물은



앵두나무 뿌리가 빨아들인 물이 고여서 생긴 것으로서 물맛이 달아 마치 앵두로 빚은 술을 먹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멀리 시내에서 온 사람도 이 물을 떠 마셨다고 한다. 또 수량이 워낙 풍부하였으므로 도심의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하여 왔어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수도가 점점마다 설치되면서부터 이 우물의 수질이 변해 사용하지 않게 되고 황폐해졌다. 더구나 주택건설로 인해 우물을 매립하여 평지로 만들었으므로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 송천동(길음3동)

길음3동으로 개편된 송천동은 이 동의 911번지 일대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 약수터가 있었기 때문에 송천동이라는 동명이 붙여졌다. 소나무 앞에 있던 우물은 30년 전쯤에 한 할아버지가 실족하여 빠졌고, 수도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메웠다. 송천동에 해당되는 지역은 속칭 미아리 공동묘지라고 부르던 곳으로서 1914년 4월에 경성부 공동묘지로 설치되었다. 1957년의 축척 1:12,500의 서울지도를 보면, 당시까지도 지금의 길음3동 동사무소와 파출소 북쪽 일대가 공동묘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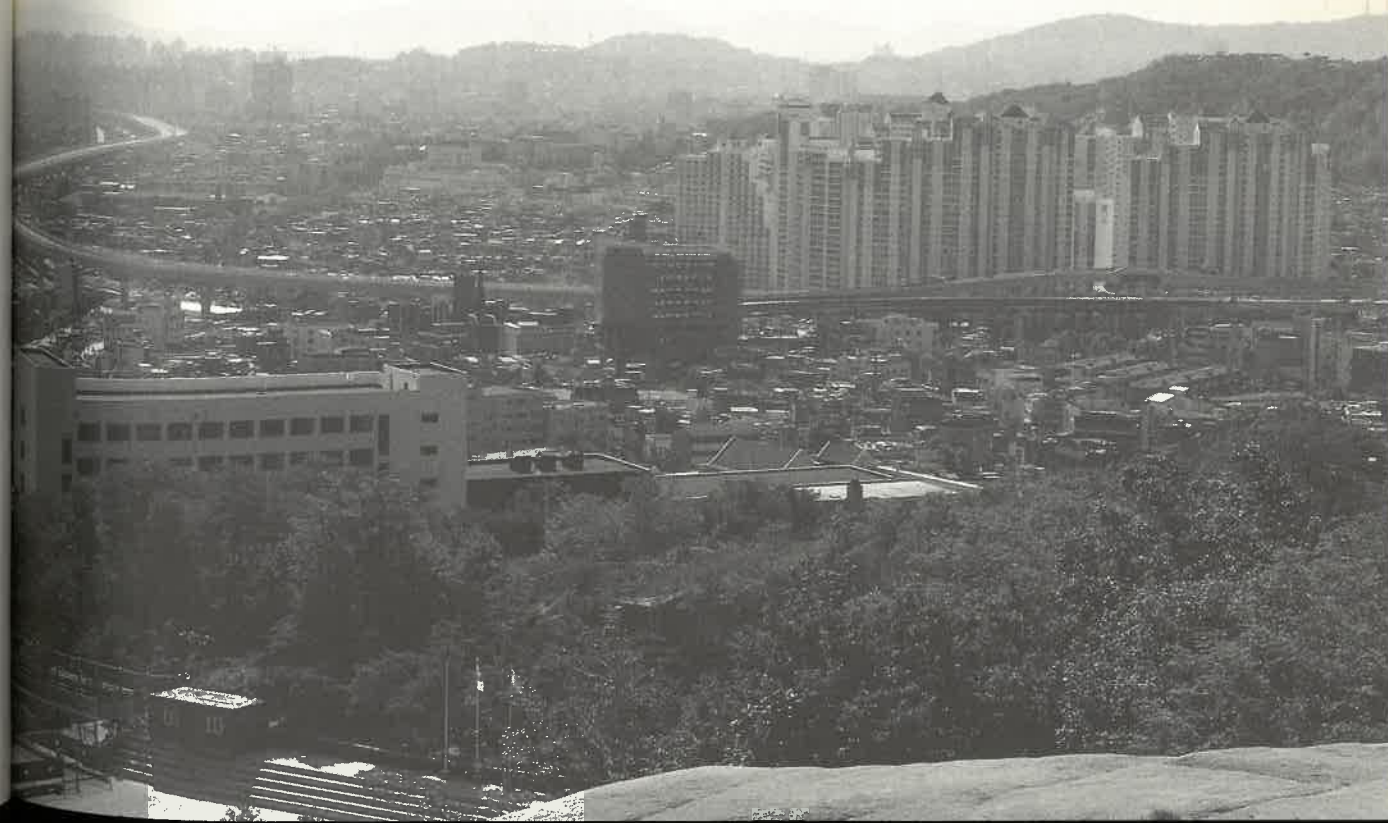


〈그림 1〉 지금의 길음3동 일대에 있던 공동묘지(1957년 서울지도, 축척 1:12,500)

되고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1). 그러나 광복과 함께 남하하는 북한동포 및 해외에서 귀국하는 해외동포 등으로 인하여 주택난이 뒤따르게 되자 1950년대 중반 이곳의 공동묘지는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곳은 무허가건물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조성되어 주택지로 바뀌었다.

북바위 마을

종 암 동



종암동의 발자취

종암동의 동명은 고려대학교 뒷산에 북(鼓)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이를 한자로 '종암(또는 고암)'이라고 부른 데서 연유한다. 종암동은 고산로(古山路)를 중심으로 하여 왼쪽은 종암1동이, 오른쪽은 종암2동이 되며 동쪽으로는 정릉천을 경계로 하여 하월곡동·장위동·청량리동·제기동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돈암동·안암동과 접하며, 서쪽으로는 동선동과, 그리고 북쪽으로는 길음동·미아동으로 둘러 싸여 있다.

종암동은 1866년(고종 3)에 편찬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면 동부 송신방(성외)의 종암동계로 되어 있었는데 1894년 갑오개혁 때 한성부(漢城府) 동서(東署) 인창방(성외)(仁昌坊(城外)) 동문외계(東門外契)의 대종암(大鍾岩)·소종암(小鍾岩)으로 바뀌었고, 다시 1895년에 지방제도의 공포에 따라 종래의 8도제 대신 전국이 23부 336군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성부가 한성군으로 되었다. 이듬해 8월에 또다시 지방제도가 개혁되어 한성군은 한성부로 되었는데, 이 때 종암리는 한성부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됨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같은 해 10월 1일에는 지방관제마저 일본식으로 바뀌어지면서 한성부는 경성부로 고쳐져 경기도 소속이 되었다. 1911년 4월 1일 행정조직이 개편되었는데 이 때 종암리는 성 밖의 지역으로 고양군의 송신면에 속하였다.

1914년 4월에는 전국의 부·군·면의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 지역도 동명이 변



종암동 일대의 소나무길(1939)

경되었다. 이 때 종암리는 송인면의 신설리·돈암리·안암리와 인창면의 용두리·제기리·청량리·회묘리·이문리·회경리·전농리·답십리 등과 함께 고양군 송인면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해 9월 동부·서부·북부·용산의 4개 출장소가 설치되어 종암리는 경성부의 동부출장소의 관할하에 있게 되었다. 이듬해 6월에 동부·서부·북부출장소가 폐지되고 대신 이들 출장소에서 관할하던 지역을 경성부가 직접 관할하게 되자 종암리도 경성부의 직할로 되었다.

1936년 4월, 경성부의 관할구역이 대폭 확장되면서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의 일부와 한지면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되었다. 이 때 대종암리·소종암리는 종암리로 통합되어 경성부로 편입되었고, 일본식 동명으로서 종암정(鍾岩町)이라 개칭되어 다시 설치된 동부출장소의 소속으로 되었다.

1943년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동부출장소는 동대문구와 성동구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종암정은 안암정·돈암정 등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던 13개 지역과 함께 동대문구로 되고, 금호정·신당정 등의 9개 동은 성동구의 소속이 되었다.

1946년 일본식 명칭인 정·정목(丁目) 등이 우리말인 동(洞)·가(街) 등으로 바뀔에 따라 종암정도 종암동으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종암동은 고양군 송인면에서 새로 편입된 지역인 석관리·장위리 등의 9개 지역과 동대문구의 성북구·돈암동·안암동 1~5가 지역 등과 함께 성북구의 관할이 되었다.

참고로 동장 관할구역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1955년 4월 서울시의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동회제도가 폐지되어 종암동회는 종암동사무소로 개칭되었다. 1970년 5월 동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종암동은 종암1동과 종암2동으로 분동되었고, 다시 1978년 10월 10일 동 명칭 및 구역 확정으로 종암동의 일부가 하월곡동으로 되었다.

종암동의 이모저모

● 종암

『한경지략』에는 종암(鍾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흥인문 밖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 부근에 있는 벼논이 기름지고 살지므로 세상에서 좋은 토지를 말할 때에는 꼭 종암 논을 손꼽는다. 박동량(朴東亮)이 지은 『기재잡기(寄齋雜記)』에 보면 서평부원군 문정공(文靖公) 한계희(韓繼禧)는 정승 한상경(韓尙敬)의 아들이며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澮)의 재종형이다. 한 당내에서 부(富)와 귀(貴)가 혁혁하였으되 한계희만은 혼자 청렴을 지켜서 조식으로 나물밥을 먹을 정도로 늙어서는 더욱 심하였다. 하루는 문중회(門中會)를 한명회의 집에서 열었는데 좌중에서 모두 말하기를 “한계희는 나이 벌써 많은데 살림이 간구하니 어떻게 도와 줄 방법이 없을까요” 하니 한명회의 말이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 하고 아이를 불러서 종이와 붓을 가져 오게 하여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여러 일족들의 좌석에 참례한 사람의 이름을 썼다. 위에는 한계희의 청렴하고 간소한 덕망을 서술하고, 다음에는 한 문중이 구조하지 못한 실책과, 끝에는 하찮은 물건으로 정리에 맞지 않다는 말을 쓰고, 흥인문 밖 종암 밑에 있는 벼논 10석(石) 지기를 준다고 문서를 썼다. 이래서 노소가 모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취한 몸을 붙들고 밤에 각기 돌아갔다. 일문의 충후한 마음씨라 할 수 있다 하였다.



옛 북바위 전담 일대

● 북바위 전담과 설렁탕

북바위밭을 한자로 고암전(鼓岩田)이라 한다. 지금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북쪽 산 아래에 있는 주택가가 이곳이다.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변했지만 광복이 되던 1945년 무렵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논과 밭이 듽성듬성 있어서 주민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주·부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며, 주택이 들어서기 훨씬 전에는 더 많은 논과 밭이 있어 굳이 다른 곳에서 채소나 곡식을 들여오지 않아도 이곳에서 소출되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웃 마을까지 공급되었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이나 『한경지략』과 같은 책에는 북바위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북바위 부근에 있는 논과 밭은 소출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일찍이 태종이 미행(微行)을 나갔는데 우의정인 박은(朴堧)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 박은은 퇴청하여 늦은 저녁상을 받고 있었는데 간장 그릇 하나와 조밥이 한 사발 담긴 것이 전부였다. 이

때 도승지가 와서 태종의 행차가 있음을 알렸다. 박은이 황송해 하면서 곧 임금의 맞아 들이려 했으나 너무 급해 씹지도 않고 삼킨 좁쌀이 목에 걸려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임금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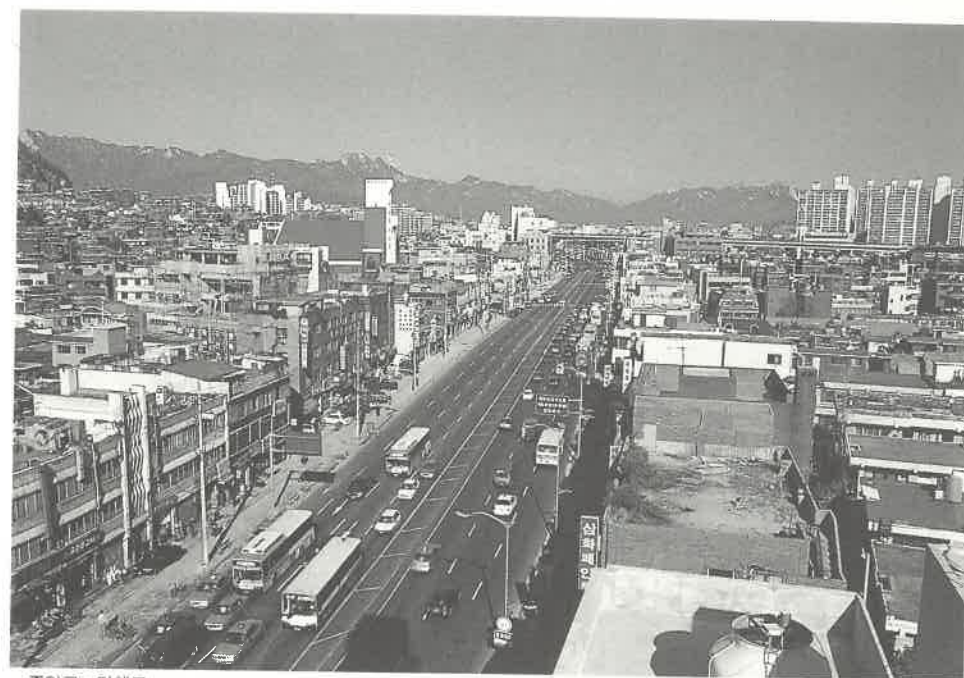
이에 왕이 노하여 박은을 꾸짖자 박은은 사실대로 아뢰었으나, 왕이 “한 나라의 재상으로 조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한가”라고 의심하며 사람을 시켜 들어가 보게 하니 사실이였다. 이에 왕은 그의 청빈함에 놀라고 감탄하면서 특별히 동대문 밖 고암전(鼓岩田)을 하사하였다. 왕의 이 같은 은혜에 박은은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하며 더욱 나라에 충성하였는데 유관(柳寬)과 더불어 청빈한 재상으로 꼽는다.

그러나 『한경지략』 각동조(各洞條)에는 “낙산 밑의 백동(栢洞)은 태종 때 공신 박은(朴崧)의 옛집 터이다. 백림정(栢林亭)이 있었으므로 백동이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 북바위 전담은 농부의 자격을 결정하는 의미로도 쓰였다고 한다. “북바위 전담을 아느냐?”고 물어서 대답을 못하면 “농군으로서 그것도 모르는 것을 보니 가짜 농군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여 동리에서 쫓겨났다고 전해 온다.

한편 설령탕의 유래가 북바위 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하는데 임금이 친경(親耕)을 하기 위해 직접 행차하여 농부에게 “북바위 전담을 아느냐”고 물어서 안다고 하면 “진정 그대는 농부이구나”라고 흠족해 하며, 곧 북바위 아래서 잡은 소로 끓인 설령탕을 수행한 대신은 물론 인근 마을의 주민들에게까지 주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북바위 밑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모두 이곳에 피신해 있다가 날이 개인 후에 다시 일을 계속하였는데 그러한 일이 있는 후에는 반드시 소나 돼지를 잡아서 북바위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만약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물난리를 당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제사 지내는 일이 계속되어 왔으나, 점차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전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변하여 다만 1년에 한 번 동의 무사와 안녕을 위한 동제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북바위에 얽힌 노래로 ‘해창리 북바위’라는 노래도 있었다고 한다.



종암로 : 말행로

● 종암로

종암로는 원래 고산로의 일부였는데 1966년 11월 26일 서울시가 최초로 시내 무명의 46개의 도로에 대한 가로명을 제정할 때 고산로라 명명했고, 그 구간을 왕십리로터리~미아삼거리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고산로를 종암삼거리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산자로(왕십리로터리~종암삼거리, 길이 3,250m)와 종암로로 구분한 것이다. 종암로의 명칭은 이 도로가 지나는 중심지인 종암동명에서 유래한다.

● 안말(종암1동)

종암1동의 경찰서가 있는 쪽을 ‘안말’이라 불렀는데 비교적 부촌이었다. 안말에서는 산신제를 아기씨당과 할머니당에서 지냈으나 10년 전에 중단되어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을 동네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고려아파트 뒤편에 아기씨당과 할머니당이 존재한다. 또 옛날에는 경주 김씨와 경주 정씨가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집성촌이었지만 사이가 원만치 않아 한 동리에 살면서도 서로 외면하고 생활하여 통혼조차도 없었다

고 하나, 지금은 집촌적인 성격이 없어져 여러 종류의 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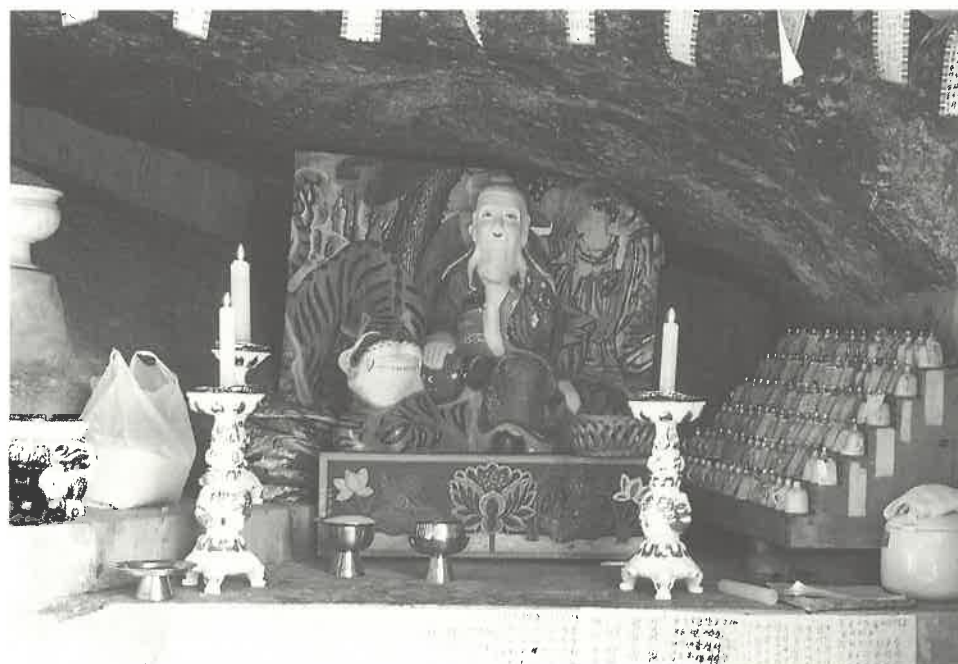
● 작은말(종암1동)

작은말에서는 6·25전쟁 이전부터 산신제를 지냈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뒷산의 산치성바위에 매년 음력 10월 1일날 떡과 쇠머리(이 때 쇠머리는 꼭 황소머리로 준비한다)를 준비해서 산신제를 지내며 이 날은 동네 할머니·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점심 대접을 한다. 산신제에 드는 비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과 성북구의 보조금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산신제가 중간(1987~1988년)에 끊긴 적도 있었는데 산신제가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동네 할머니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산신제를 안 지낸다면서 화를 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많아서 무당에게 물어보았더니 돌산의 기(氣)가 너무 강해서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을의 향토 행사로 자리잡은 산신제가 다시 행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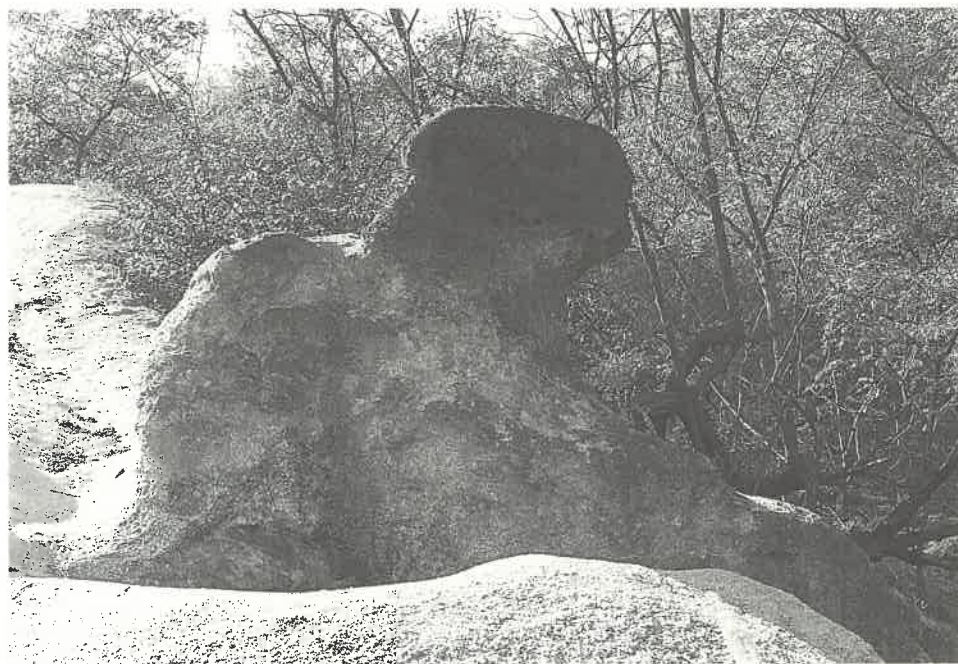
● 모랫말(종암2동)

종암2동을 모랫말이라고 부른 까닭은 종암1·2동을 나누고 있는 정릉천이 본래는 종암2동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는데 상류 쪽에서 운반되어 온 모래가 하천 바닥에 쌓여 점차 하상(河床)이 높아졌고, 따라서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은 범람하여 정릉천 주변은 언제나 모래밭으로 변하였기 때문에 '모랫말', 혹은 '모랫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특히 이곳에서 나오는 모래는 소금기가 전혀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모래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하수관이나 전봇대 등을 만드는 공장이 주변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의 종암여자중학교 자리에 있던 제관 공장인 중앙산업은 이곳의 모래로 만든 제관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 1960년대의 건설공사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하천이 모랫말을 가로질러 흐를 때 하천 제방을 따라서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그 하천을 '사(沙)포사 개천'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1930년경 그 이름은 없어졌고 그냥 개천이라 불렀다. 일제가 종로에 전차를 건설하면서 그곳의 철거민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지금도 무허가



안말의 아기씨당과 할머니당



산신제를 지내는 작은말의 산치성바위(말바위)

건물이 남아 있다. 또한 모랫말은 바닥이 모래였기 때문에 우물을 파기도 쉬웠으며 어느 곳을 파도 물이 잘 나왔다고 한다. 우물은 7~10집마다 하나씩 있었고, 우물의 위치는 특정 지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었다.

종암2동 7·9·10번지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유풍피혁 공장이 크게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본인 군화를 비롯한 가죽제품을 만들었다. 또 모랫말에는 아교 공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겼을 것이라고 한다.

모랫말은 하천 주변의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논과 밭, 미나리밭이었다. 밭 중에서는 호박밭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 정릉천

하천에는 다리가 전혀 없어서 종암1동과 종암2동의 왕래가 적었다. 물이 적을 때는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건너 다니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고 꼭 하천을 건널 일이 있으면 길음교를 이용하기 위해 많이 돌아가야 했다고 한다. 홍수가 나면 모랫말의 피해가 굉장히 컸지만 그에 비해 종암1동 안말의 피해는 적었다고 한다. 또한 정릉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동덕여대로 가는데 이곳을 건널 방법이 없자 종암교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복개되어 없어지기도 했다. 홍수가 나면 정릉천으로 돼지·닭 등이 떠내려 오기도 하고 하천이 오염되기 전에는 물고기도 잡아 먹고 빨래도 할 정도로 깨끗하였다.

종암1·2동을 나누고 있는 정릉천이 본래는 종암2동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는데(그림 1), 1955년경 하천을 지금의 모습으로 돌리면서 하천 바닥이나 농경지가 주거지로 바뀌어 갔다. 1963년에는 주거지를 헐고 종암시장을 만들었다.

● 큰해창·작은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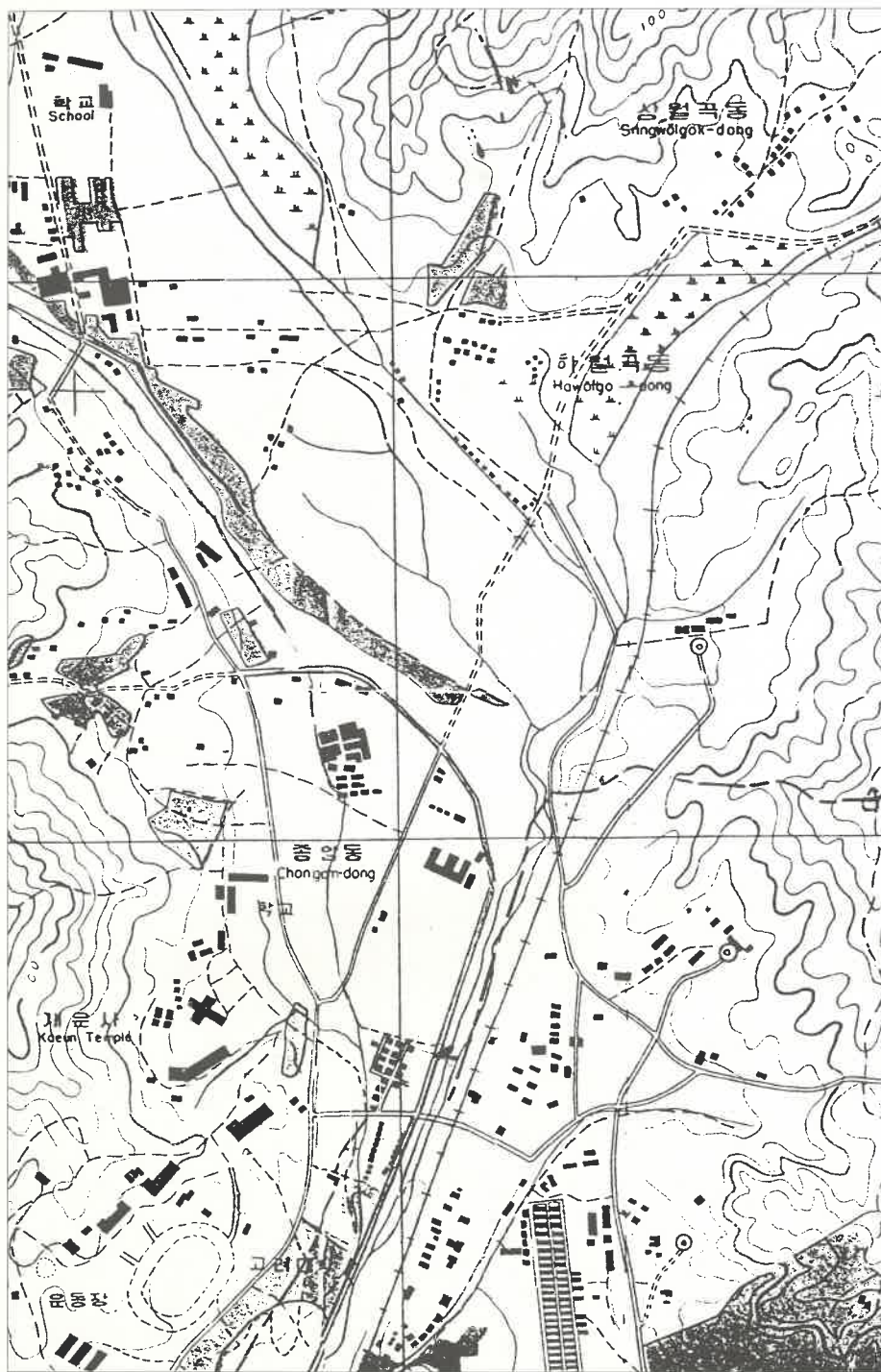
안말은 다시 지금의 승례초등학교를 분기점으로 하여 학교의 앞쪽은 '큰해창', 뒤쪽은 '작은해창'이라고도 부른다. 해창(海昌)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조선 18대 현종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남편인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의 묘가 있다 하여 해창이라고 부르는데, 작은해창이란 북바위처럼 생긴 작은 바위가 학교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북바위', 혹은 '작은해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옛 정릉천



정릉천. 1955년 물길을 돌려, 모랫말이 주택가로 변했다.



〈그림 1〉 정릉천의 1950년대 유로. 중암2동의 중앙을 가로 지르고 있다.

● 진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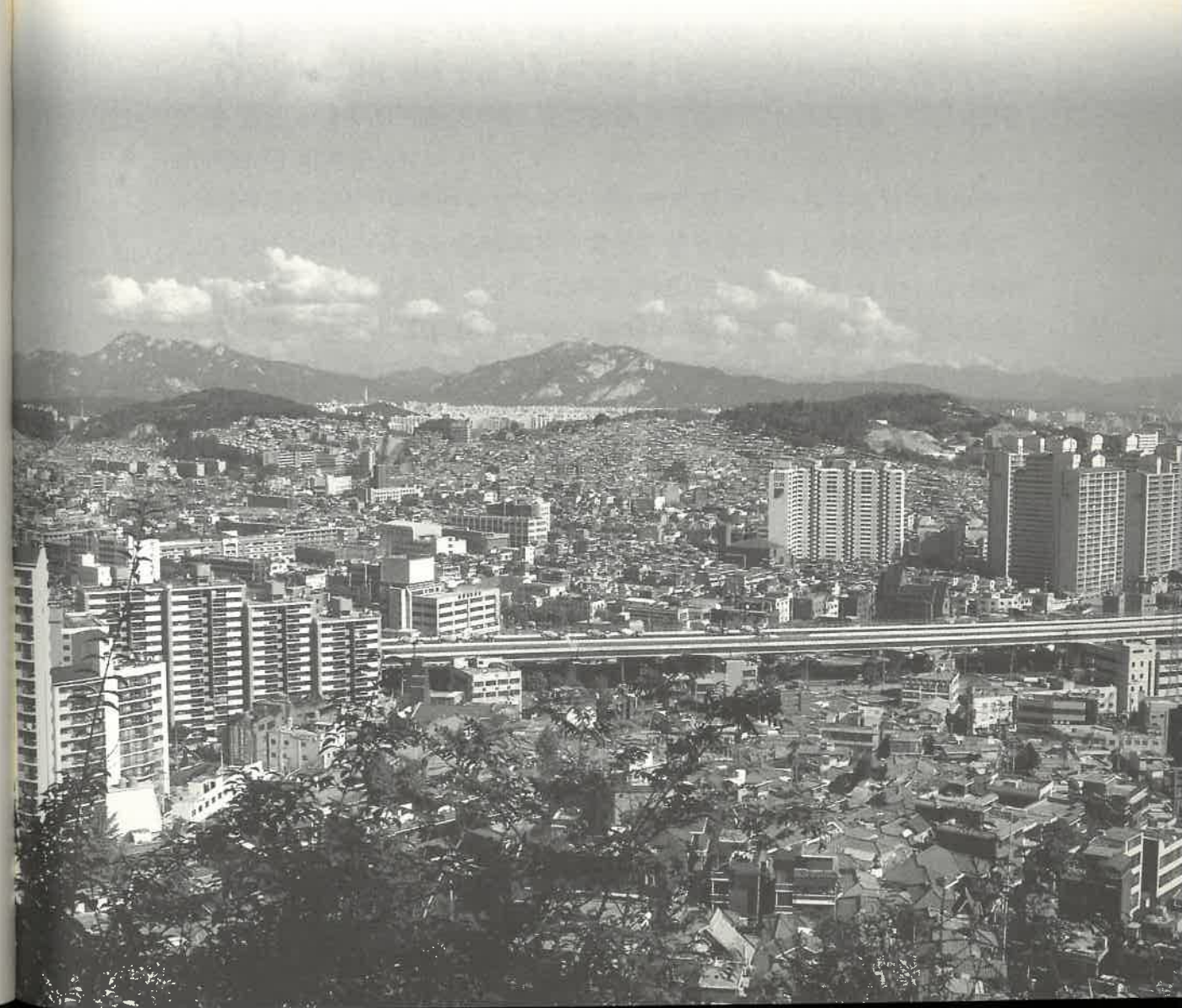
중암아파트가 위치한 뒷산의 이름은 진석산(陣石山)이다. 이 산은 본래 이름이 없던 돌산이었으나 산의 주인이 진씨(陳氏) 성을 가졌고 산 또한 전체가 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주인인 돌산이라는 뜻에서 '진석산'이라 불렀다. 진석산의 돌은 집 지을 때 석재로 사용되었는데 석질은 물론 쌀뜨물빛을 띤 색깔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세도가 당당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진석산의 석재를 이용했다고 하며, 조선총독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곳의 석재를 일부 사용하였다. 1960년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진석산에서의 채석을 허가했으나 그 후 창신동에 소재한 역청공장(瀝靑工場)이 면목동으로 옮겨가고 이 일대가 완전히 주택지로 변함에 따라 진석산의 채석작업도 중지되었다.

● 고산로

중암1·2동을 연결하는 고산로(古山路)의 가로명은 《대동여지도》《청구도》《수선전도》 등의 지도를 만들어 조선 최고의 지리학자로 꼽히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선생의 호를 따서 붙였다. 왕십리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미아삼거리까지 계속되는 이 길은 총연장이 4,040m인데 특히 미아동에서 중암동을 통과하는 길을 '말행길' 또는 '큰길'이라고 부른다. 의정부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둘 중의 한 가지 길을 택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중암동을 통과하는 말행길로서 마장동을 지나 동대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미아리를 지나 길음교를 건너서 미아리고개와 삼선교를 통과하여 혜화문을 통해 들어오는 길이다. 이 중 후자의 길은 좁은 데다가 산길이어서 도보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전자의 길은 넓어서 말을 이용하거나 달구지 등이 다닐 수 있으므로 말을 타고 다니는 길이라는 뜻에서 말행길이라 하였다. 또한 말행길은 정릉천이 범람하면 이 길마저도 물에 잠겨서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하여 수로(水路)라고도 불렀다.

반달 모양 산등성이에 자리한 다릿골

상월곡동과 하월곡동



상월곡동의 발자취

상 월곡동의 동명은 지금의 하월곡동에 있는 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 하여 그 산에 연해 있는 마을을 '다릿굴(골)'이라 부르는 데서 연유되었다. 이 중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을 '웃다릿굴(上月谷里)', 아래지역을 '아랫다릿굴(下月谷里)'이라 불렀다.

상월곡동은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동부 송신방의 성외 지역으로 있었는데 1864년(고종 2)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의하면 한성부 동부 송신방 성 밖의 월곡리계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때 한성부의 5부를 5서로 고침과 동시에 실제의 행정단위인 계와 동을 늘여서 47방 288계 775동으로 하는 동 행정구역의 변천이 있었다. 이때 월곡동은 한성부(漢城府) 동서(東署) 인창방(성외)(仁昌坊(城外)) 동소문외계(東小門外契)의 월곡상리(月谷上里)·월곡하리(月谷下里)로 나뉘는 데 따라 웃다리골인 월곡상리는 상월곡동 지명이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10월 1일 지방관제를 개혁하여 종래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예속시켰다. 이듬해 4월 경기도령 제3호로 경성부의 행정구역을 개정하여 도성 안은 5부 36방으로 하고, 도성 밖은 8면으로 하는 이른바 5부 8면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상월곡동이 속한 인창방은 성밖 지역에 해당하므로 인창면이 되었다.

1914년 경기도 도내 각 면의 명칭과 구역을 새로 제정할 때에 5부 8면제는 폐지되고 대신 8면 중에서 일부는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하고 일부는 경성부에서 관할하였

다. 이 때 상·하월곡동은 통합되어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월곡리가 되었다.

1949년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동대문구에서 성북구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의 상·하월곡리, 미아리, 정릉리 등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성북구에 소속되었다. 다시 대통령령 제160호에 따라 성북구에 승인출장소를 설치하였는데 동 출장소에서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에서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상월곡리·하월곡리를 비롯해 석관리·장위리·미아리·수유리·우이리·번리 등을 관할하였다.

참고로 동장 관할구역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동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의 변경'에 의해 장석동의 일부와 상월곡리의 일부가 합쳐져 상월곡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73년 서울특별시조례 제780호로 승인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상월곡동은 성북구의 직할로 되었다. 1978년 서울특별시조례 제1286호로 동 명칭 및 구역획정이 있자 상월곡동의 일부가 장위동으로 편입되었다.

상월곡동은 동쪽으로는 석관동, 서쪽 및 남쪽으로는 하월곡동이, 북쪽으로는 장위동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화랑로가 이 동을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다.

경기도의 관할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역사가 짧은 상월곡동은 편입되기 이전에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서울시의 발전과 함께 인구의 팽창으로 옛날 농지로 사용하던 곳의 거의 모두가 주택지로 바뀌었다. 동의 위치로 보아 시내 중심가와 떨어져 있는 이 동에 주택 단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는 1960년대 이후 시내 중심가의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된 주민들이 이곳으로 집단 이주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곳의 주민들은 대체로 영세한 상업에 종사하는 계통과 예로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계통의 두 가지로 원주민의 성격을 대별할 수 있다.

옛부터 특별한 특산물 없이 벼농사로 생계를 꾸렸으며 6·25전쟁 이후 불법적으로 각 지방으로부터 몰려든 사람들은 외부에 노동을 나감으로써 생계를 이어 나갔다. 따라서 고유한 풍속이나 노래·시 등은 없었으며, 주로 빈민계층이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인이 두 가구에 불과했고, 6·25전쟁 때도 별로 큰 피해는 없었고 이 일대에는 소나무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상월곡동은 동대문 밖을 나와서 성북역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옛날에는 아침 일찍 동대문을 나선 길손이 이 동이 있는 곳에 이르면 대개 점심 때가 되므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주막이 많이 생겨났다. 경원선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의 일대는 주막거리로서 옛 길손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았던 곳이다.

앞으로 월곡동 77번지 일대가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다. 성북구는 1960년대 철거민 이주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월곡동 77번지 일대 3만여 평을 재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이곳이 상업지역인 미아삼거리의 물론 올해에 개통예정인 정릉천변 도시고속화도로, 또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6호선과도 가까이 입지적으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건립규모는 10~20층 31개 동으로 총 2,759가구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1999년 7월에 착공, 200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상월곡동의 이모저모

● 마른대미고개와 성황당나무, 그리고 푸석산

마른대미고개란 화랑로를 따라 상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 평지가 시작되므로 고개가 바로 끝난다는 뜻으로 바로 '대미고개'라 불렀는데 발음 관계상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마른대미고개'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 고개 마루턱에는 동네의 재앙을 막아주는 수호신인 서낭님(성황님)이 들어 있는 커다란 소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성황당나무'라고도 불렀다. 일명 '서낭나무'라 부르는 이 나무는 동네의 재앙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곳 서낭나무에게 아들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옛 이야기도 같이 전해 온다. 그러나 고개가 깎이고 주택이 들어서면 바람에 고개는 흔적조차 없다.

또 성황당나무가 있는 고개 전체를 '푸석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성황당나무인 소나무가 워낙 크고 또 사철 푸르기 때문에 산 전체가 푸르러 보인다 해서 푸석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푸석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있는 석관동 쪽의 마을을 '푸석골', 혹은 '들곶이말'이라고도 부른다. 푸석골은 여흥(지금의 경기도 여주) 민씨들의 집성촌으로서 동네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 푸석산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산제를 지내고 3년에 한 번 큰 굿을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이 점차 모여 살게 됨으로써 여흥 민씨들의 집성촌적인 성격도 차츰 퇴색되었고 산제나 동제의 풍속도 사라졌다.



마른대미고개



화랑로

● 다릿굴고개

다릿굴고개는 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또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라 해서 '밤나무굴' 혹은 '밤굴(栗洞)'이라고 부른다. 그 이웃에는 배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마을이라 해서 '배나무굴' '배굴(梨洞)'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붙여진 곳도 있으나, 지금은 모두 주택지로 바뀌어 배나무나 밤나무를 심었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 화랑로

상월곡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화랑로는 원래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가도로 혜화문(동소문) 밖 삼선동을 기점으로 하여 의정부를 연결해 주었으나 1904년 경원선 철도의 부설계획에 따라 성북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후 이곳을 통과하는 서울~원산 간의 철도가 폐지되는 대신 아스팔트로 포장된 총길이 3,700m의 도로를 만들어 '화랑로'라 명명하였다.

하월곡동의 발자취

월 곡동 동명의 유래는 두 가지로 전해 온다. 하나는 하월곡 3·4동의 산지형이 반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월곡이란 이름을 붙였다 하고,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미아삼거리에 신근술이라는 술밭이 많아 풍치가 수려했기 때문에 당시 이곳에 주막이 밀집하여 있었다. 지방에서 소를 몰고 서울로 들어올 때에는 신근술에서 숙박을 하고 소를 매어 놓았다가 장위동 노변 도살장에서 소를 매도한 다음 돌아갔는데 소장사들이 달밤에 도착하여 잔월(殘月) 아침에 흥정했기 때문에 월곡이라는 동명이 생겼다고 한다. 전자는 풍수지형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고, 후자는 인공, 즉 생활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후자는 조선 후기 객주집 등 상업활동이 활발하던 그 때에 동명이 붙여진 것으로 보아 시대상으로는 전자가 동명 유래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이 동역의 연혁을 살펴보면, 1396년(태조 5)에 5부(동·서·남·북·중) 52방으로 구역을 확정할 때 동부에 소속되었으며, 그 뒤 1751년(영조 27)에 간행된 『수성책자』 중의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동부 인창방 미아리게 내에 소속되어 다릿굴 또는 교곡(橋谷)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 뒤 갑오개혁(1894) 때에는 한성부 동서 인창방(성외) 동소문외계의 월곡하리로 되어 있다.

한일합방이 강행된 직후에는 한성부를 경성부로 고친 다음 이듬해인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월곡리를 경성부 인창면에 소속시켰다가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경기도고시 제7호로 동명과 구역을 자의로 병합·축소시킬 때 율곡·모래마을(일명 바닥마을)·애기능말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다. 성 밖 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에 편입시키고 종전 월곡상리·월곡하리를 병합하여 월곡리로 하였다.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성북구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상·하월곡리를 분리함과 동시에 서울시로 편입되어 성북구 관할 하에 송인출장소를 둘 때 하월곡리는 송인출장소에 소속되었다. 그 뒤 1973년 7월 1일을 기해 송인출장소가 폐지되고 다시 성북구 관할 하에 두었으며, 1975년 10월 1일 구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하월곡동 일부가 도봉구로 편입되고, 다시 같은 해에 동 명칭 및 구역확정을 할 때 미아동 일부를 하월곡동에 편입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월곡동은 동으로는 장위동, 서로는 돈암동, 남으로는 종암동, 북으로는 미아동과 접하고 있다.

하월곡동의 행정동명의 변천과정을 보면, 1955년 4월 18일 이전까지 행정필요상 월곡리 내에 동회를 두었는데 이것은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서 정회를 동회로 개칭하였을 뿐 별다른 변화 없이 내려 오다가 1955년 4월 18일 동회제도를 없애고 동제를 실시하면서 월곡동이라 했다. 1970년 5월 18일 동장 정원 및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하월곡동을 1·2동으로 분동했으며, 그 뒤 인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1973년 7월 1일에 구획이 재조정되었는데 이 때 하월곡3동이 신설되었다. 1975년 10월 1일 동 명칭 및 구역확정을 재조정하여 미아동 일부가 하월곡동에 편입되면서 4동이 신설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마을 산 비탈진 곳에 띄엄띄엄 인가가 몇 가구씩 있었으며 당시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정릉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인근 마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며, 물이 맑았기 때문에 콩나물 재배를 주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 이후부터 농업은 인구 집중현상에 따라 점차 사라지고 이 정릉천변에는 염색·피혁 공장들이 물길을 따라 들어섰다고 한다.

또 6·25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름답리 밤나무가 들어찬 동네로 이름이 높았던 하월곡3·4동에는 전쟁에서 다친 상이군인과 그 식구들이 6,000채가 넘는 무허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현재는 도로변에 군소 상가가 들어섰고 그 밖의 지역은 주택가로 밀집되어 있으나, 배재학당이 원주(原住)인 3·4동 산자락에는 허물어질 듯한 무허가 집들이 뽁뽁이 들어서 있어 항상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생활이 윤택하지 못함을 말해 주고 있다.

하월곡동의 이모저모

● 밤나무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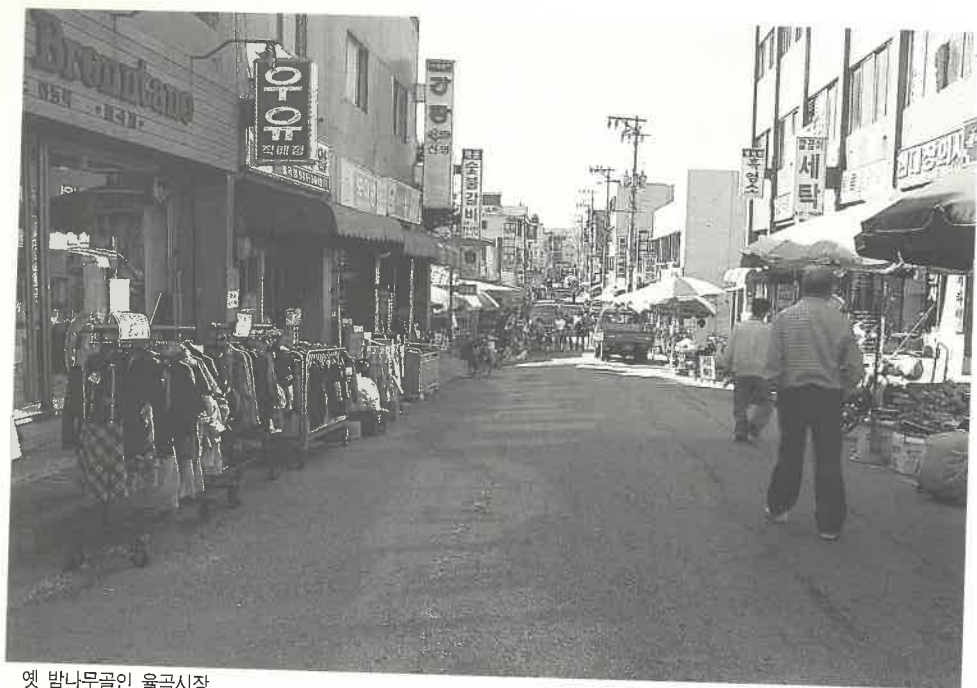
1914년 통합되기 전 자연부락의 하나였던 율곡은 '밤나무골' 또는 '밤골'이라 불렀는데 이 계곡에 밤나무가 많은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율곡시장과 율곡파출소는 이름이 붙여진 연유가 여기서 비롯되며 행정구역상 3동과 4동에 해당된다.

● 모래마을

또 하나의 자연부락인 모래마을은 일명 '바닥마을'이라 불렸다. 이것은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모래마을'이라고 불렸고, 또 사방이 산능선으로 둘러싸여 그 바닥에 평지를 이루었으므로 바닥마을이라고도 불렸다. 정릉천에서 흐르는 물이 맑았기 때문에 콩나물 공장으로도 유명하였다. 그 뒤 콩나물 공장 대신 염색·피혁 공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논·밭으로 농업이 주가 되었고, 미아리 공동묘지 근처에서부터 이 마을 전부에 이르기까지 약 100호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로 현재 하월곡1동 전역이다.

● 애기릉과 귀인묘

애기릉은 조선조 말 고종의 장자였던 완왕(完王)이 12세로 승하, 이곳에 묻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서오릉으로 옮기고 없으며, 이 자리에 동덕여자대학교가 들어섰다. 완왕은 1868년(고종 5) 윤 4월 10일에 태어나서 완화군(完和君)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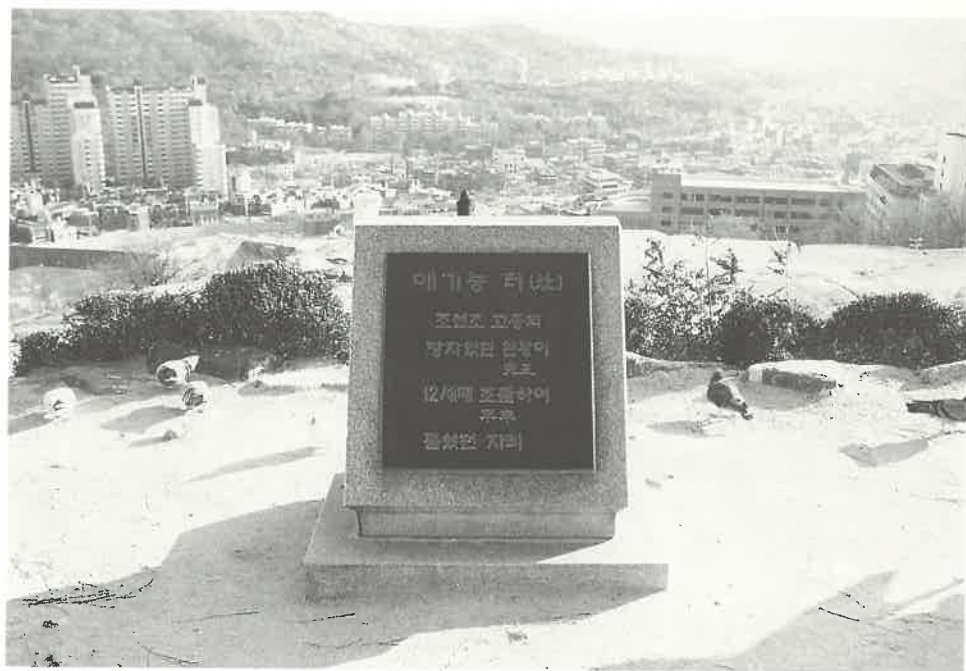


옛 밤나무골인 율곡시장

로 봉해졌다가 1880년 1월 12일에 승하하였는데 그 사인으로는 명성황후의 질투로 독살되었다는 설이 있다. 묘에 딸린 방이 6평, 재실이 7평, 기타 69평인데 이곳에는 완왕의 어머니인 영보당 이씨의 묘도 있었다. 영보당은 이원태의 딸로 1843년(현종 9) 2월 14일에 출생, 1928년 11월 6일 86세를 일기로 이곳에 묻혔다. 또 고종의 후궁인 내안당 귀인 이씨 묘도 이곳에 있었다. 내안당은 1847년에 출생하여 1914년 68세에 타계하여 이곳에 묻혔으며 재실 8평이 있었다. 고종의 또 다른 후궁인 복녕당 귀인 양씨의 묘도 이곳에 있었는데 복녕당은 양언환의 딸로 1882년(고종 19)에 출생, 1929년 47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이들 고종의 후궁들의 묘를 합하여 귀인묘라 하였으나, 지금은 서삼릉 내의 귀인, 숙의묘역으로 옮기고 없다.

● 대한불교 진각종 총본산

하월곡동 22번지 주택가 옆에 대한불교 진각종 총본산이 있다. 진각종은 손규상(孫圭祥)이 1947년 6월 14일에 경북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창교한 불교 중 한 개혁종파로 볼 수 있다.



묘석이 세워진 애기릉 터

불교에는 석가모니불을 교주로 하는 현종(顯宗)[化身]과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교주로 하고 삼밀수행(三密修行)을 주로 하는 밀교(密敎)[법신(法身)]가 있는데 삼밀수행을 주로 하는 것이 곧 진각종이다. 이 비로자나불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이체(理體)로 있는 이불(理佛)로서 우주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데 신(身)·어(語)·의(意), 즉 삼밀을 수행하여 우주를 불격화(佛格化)시키는 것이다. 진리는 무형(無形)한 가운데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즉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비밀적 존재이므로 이를 비불(秘佛)이라 한다. 그리고 이 비불을 교주로 삼기 때문에 비밀불교라 하여 이를 생략해서 밀교라 부른다.

우리나라에 밀교가 처음으로 개창된 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 신인(神印)을 얻어와서 낭산(狼山) 남쪽 신유림에서 사천왕사를 짓고 개종한 것이 최초가 된다.

진각종의 연혁을 개략해 보면, 1947년(진각기 원년) 6월 14일 경북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으로 교화를 시작하여 이어 영일·경주·포항·대구 등지에서 심인당(心印堂)을 개설하였으며, 1949년 12월 4일 교명을 심인불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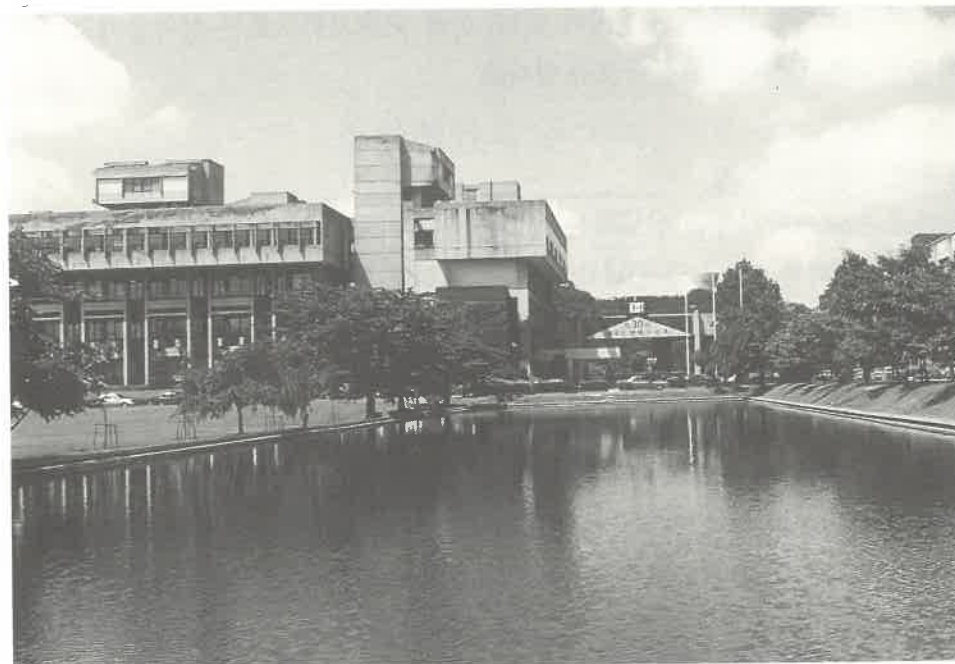


동덕여자대학교

칭하고 법신이불(法身理佛)을 교리로, 육자진언을 본존(本尊)으로 하여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1953년 8월 24일에는 전국 대표 80명이 참석하여 총인회(總印會)를 조직, 대구에 설치하고 교명을 대한불교 진각종으로 정하고 손규상이 대종사로 취임했다. 1954년 1월 27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진각종 유지재단의 설립허가를 얻었고, 1955년 4월 8일 대구 대명동 소재 심인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1966년 1월 17일 중앙 총본부를 현재 하월곡동에 두고 월곡정사(月谷精舍) 및 사무실을 건축하였으며, 1968년 12월 20일에는 통리원 본관 및 종조전(宗祖殿)·종조탑·종조비를 준공, 1977년 3월 3일 강남구 도곡동에 진선여자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 동덕여자대학교

대한제국 말 춘강(春江) 조동식(趙東植)이 국권을 만회하려는 의지에서 1908년 4월 여성 교육기관인 동원여자의숙(東媛女子義塾)을 설립하고, 1910년 4월 동덕여자의숙(同德女子義塾)을 인수·병합하여 교명을 '동덕(同德)'으로 변경한 것이 현재 동덕여자대학교의 모체이다. 동덕여자대학교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50년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월에 종로구 관훈동 151번지에서 개교하였다가 1967년 3월 18일 현재의 하월곡동 23-1번지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위치한 곳은 월곡산 남쪽 언덕인데 속칭 애기릉이라 부르는 고종의 장자 완화군의 묘가 있던 곳으로 송림이 우거지고 풍치가 뛰어난 곳이다.

동덕여자대학교는 1950년에 2년제 초급대학으로 설립, 1952년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하였다가 1957년 4년제 국문학과·상학과·가정학과가 폐지되고, 1962년에 2년제 초급대학으로 재인가되었다. 1963년에 다시 4년제 단과대학 약학부가 부활됨으로써 4년제 단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이어서 1980년에 대학원이 설립되었고, 1987년도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예·체능대학의 4개 단과대를 가진 종합대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95년에 여성학 도서관, 이듬해 디자인대학 및 디자인 대학원을 청담동 디자인연구센터로 이전했다. 1998년 현재 인문과학대학에 3개 학부, 사회과학대학 1개 학부와 1개 학과, 자연과학대학에 2개 학부와 1개 학과, 전산정보과학대학에 1개 학부, 약학대학에 1개 학과, 예술대학에 1개 학부와 1개 학과, 디자인대학에 1개 학부, 공연예술대학에 3개 학과로 총 8개 단과대학에

9개의 학부와 7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산하 교육기관으로는 성덕중학교·동덕여자중학교와 동덕여자고등학교가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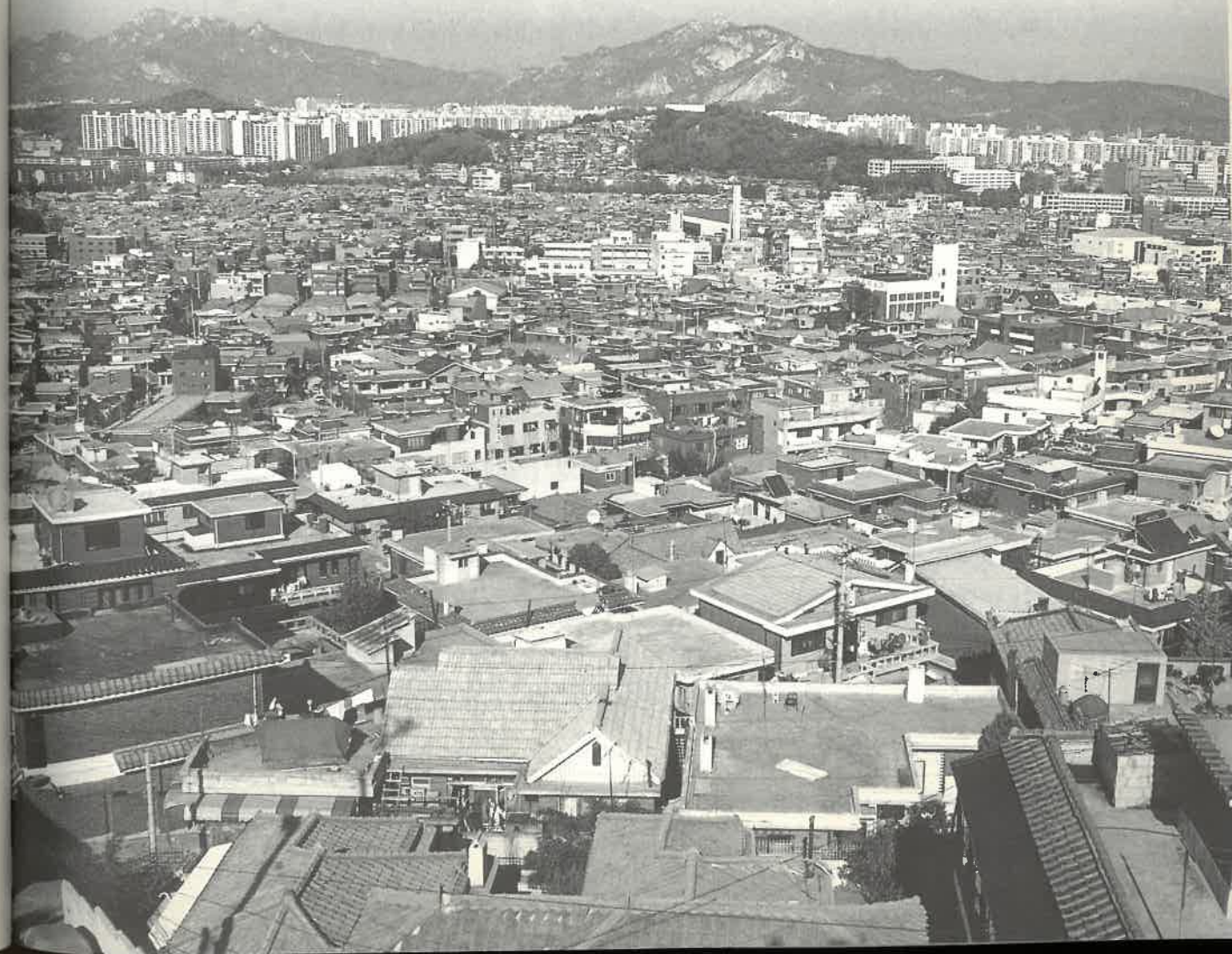
국가의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의 연구개발과 국가 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과학의 연구, 그리고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산업계와의 협동 연구 수행 및 그 성과의 보급, 공공·기초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1976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다. 그 후 1981년 1월 5일 한국과학원(KAIS)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발족하였다. 1987년 9월 25일에는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연구본부를 발족하였으며, 1989년 6월 12일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추로 자리잡으며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술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자리잡아 가고 있다.

● 텍사스촌

6·25전쟁 후 하월곡동 88번지에 접대부를 둔 술집이 밀집한 지역이 생겨났다. 이곳을 텍사스촌으로 부르게 된 것은 확실하지 않으나 미군부대 주변의 기지촌과 같이 많은 술집이 접대부를 두고 술과 매춘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텍사스촌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도 좋지 않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6년에 교육기관인 서라벌중·고등학교가 각각 강북구 수유동과 노원구 중계동으로 이전을 했다. 하월곡동은 텍사스촌이 가로막고 있어 종암동과의 물자수송과 교환의 어려움이 있다.

장위산인의 은거지

장 위 동



장위동의 발자취

장 위동의 현 위치는 동으로는 도봉구 월계동, 서로는 상월곡동, 남으로는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북으로는 도봉구 번동·창동과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초에도 장위리라 불려 온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명신(名臣)이 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는 마을 뒤 장위산(獐位山)이 있으므로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장위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장위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1396년(태조 5)에 도성 및 성저를 5부 52방으로 구역을 획정할 때 동부에 소속되었으며, 조선 후기 1751년(영조 27)에 간행된 『어제수성윤음』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동부(東部) 인창방(성외)(仁昌坊(城外)) 장위리계(長位里契)로 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위동 사람들 사이에는 ‘양주밥 먹고 고양곳 한다’는 말이 널리 유행되다시피 했다. 이 말은 농토는 양주에 두고 살기는 고양에서 산다는 뜻으로 식생활은 양주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벼농사와 조·수수·고추 등 흔히 시골 농가에서 재배하는 곡식이 재배되어 특산물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장위동의 농토는 대부분 윤관서(石村 尹容求)와 그 친척들의 땅이었는데 1960년경부터 윤씨가에서 매도하고 또 개척되어 현재 주택가로 변화되었다.

장위동 주민들은 대부분 석촌(石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즉 윤관서

가 남령재(南寧齋)에 은거해 있을 때 현 장위동 91번지 장호다방 자리에 동구다리가 있었고, 또 현 76번지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남령재 문 밖에 큰 섬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당시 관직의 고하에 따라 하마(下馬)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또 장위동 사람을 잡으러 왔을 경우나 죄인이 장위동으로 잠입했을 경우 윤판서의 허락 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다 한다. 또 장위동에 대해서도 윤판서는 동명을 반드시 장위(藏位)라고 썼다 한다. 이것도 윤판서가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은거했다는 뜻으로서 상통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윤판서의 아호가 장위(獐位)인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윤용구(尹用求)는 1853년(철종 4)에 출생하여 1939년에 타계한 문신이며 서화가이다. 본관은 해평(海平)이고, 자는 주빈(周賓), 호를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 등으로 하였고, 부사 회선(會善)의 아들로 태어나 남령위(南寧尉) 의선(宜善)에게 입양되었다. 1871년(고종 8)에 직장(直長)으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을미사변(1895) 이후로 법부·탁지부·내무부 등 대신에 수십 회 임명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男爵)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바둑으로 자오(自娛)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초와 대나무를 잘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천의 <문간공 한장식 신도비(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광주(廣州)의 <의성군 무생 이공 신도비(宜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降仙樓) 현판 등을 남겼다. 한편 그림으로는 <죽도(竹圖)>(개인 소장)와 <묵죽(墨竹)>(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다.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방이 강행되던 1910년에 한성부를 경성부로 고친 다음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로 장위동을 경성부 인창면에 편입시켰다.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전국의 부·군을 자의로 통·폐합을 단행할 때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구역을 임의대로 변경시켰는데 이 때 장위동은 성외 지역에 해당된다 하여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으로 편입시켰다.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로 성북구가 분리·신설될 때 장위동은 고양군 송인면에서 서울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성북구 관할 아래 두었으며, 같은 해 대통령령 제160호로 성북구 내에 송인출장소를 두었는데 장위동은 그에 소속되었다. 1973

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780호(1973. 6. 26. 공포)로 송인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장위동은 성북구에 소속되었다.

장위동의 행정동명의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9년 8월 13일부터 서울시에 편입되어 동회를 두고 동의 행정을 맡아 왔다. 그러나 이것은 광복 당시의 서울시 행정을 그대로 답습, 동회만을 두었을 뿐 큰 변동은 없었다. 1952년부터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석관동과 합쳐 장석동을 개명해서 동 행정을 보아 왔는데, 그 뒤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제정'으로 앞서 장석동을 장위동과 석관동으로 분리시켰으며,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 '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변천' 때 장위동을 1·2동으로 분동했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1977. 8. 29. 공포)로 인구 증가에 따라 종전의 1·2동에서 3동으로 분동했다.

장위동은 동방생명보험회사에서 1966년부터 택지를 조성하여 팔기 시작하였으므로 성북구 일대에서는 가장 뒤늦게 집들이 들어선 곳으로, 공주릉 주변지역 등은 한때 장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현재 장석로를 따라 1동을 신장위동, 2·3동을 구장위동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장위동 293번지 일대에 폭 10m, 길이 250m의 도로가 1997년에 개설되었다. 신설된 도로는 드림랜드와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월계로와 연계되어 출·퇴근 시간에 정체를 빚어온 돌곶이길의 통행량을 흡수하여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되었다.

장위동의 이모저모

조선시대에는 웃말·아랫말·명덕굴·간대마을·활량(한량)리 등 5개의 자연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이 현재의 장위동을 형성하였다.

웃말

웃말은 이 마을이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윗마을이란 뜻이다. 현재 장위 3동 일부와 2동 일부인 남령재(南寧齋)가 있는 마을로 1930년경에는 약 80호의 민가가 살았다 한다.

아랫말

아랫말은 이 마을이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장위3동에 해당되는, 즉 장석시장이 있는 마을로 1930년경에는 약 40여 호가 살았다고 한다.

간대말

간대말은 장위동 가운데에 있는 마을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3동에 해당된다. 이곳은 3동 경로당, 3동 파출소가 있는 곳으로 한일은행 장위동 지점 앞마을이 전부 간대마을이었다 하며, 1930년경에는 약 50호의 농가가 있었다고 한다.



옛 웃말, 남령재 일대

명덕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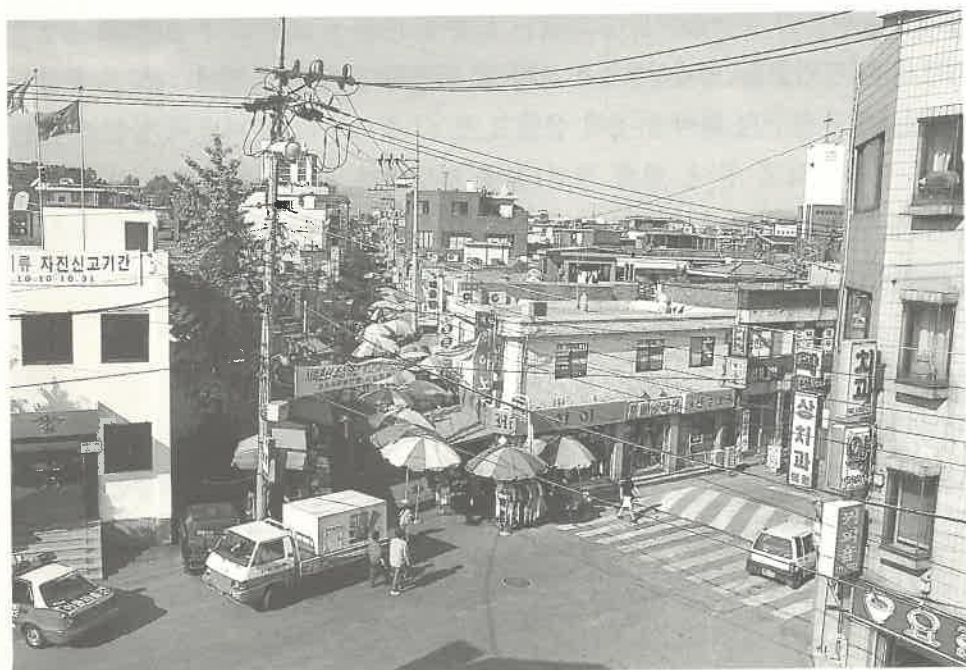
명덕굴은 명덕고을(명덕동)이 변하여 된 지명이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장위산인(獐位山人) 윤용구의 형이 이곳에 살았고, 또 그 윗대부터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 장위1동에 해당되며 장곡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1930년경에 약 30호가 살았다고 한다. 1952년 서울지도에 명덕동은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마을로 표시되어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 곳임을 짐작하게 한다.

활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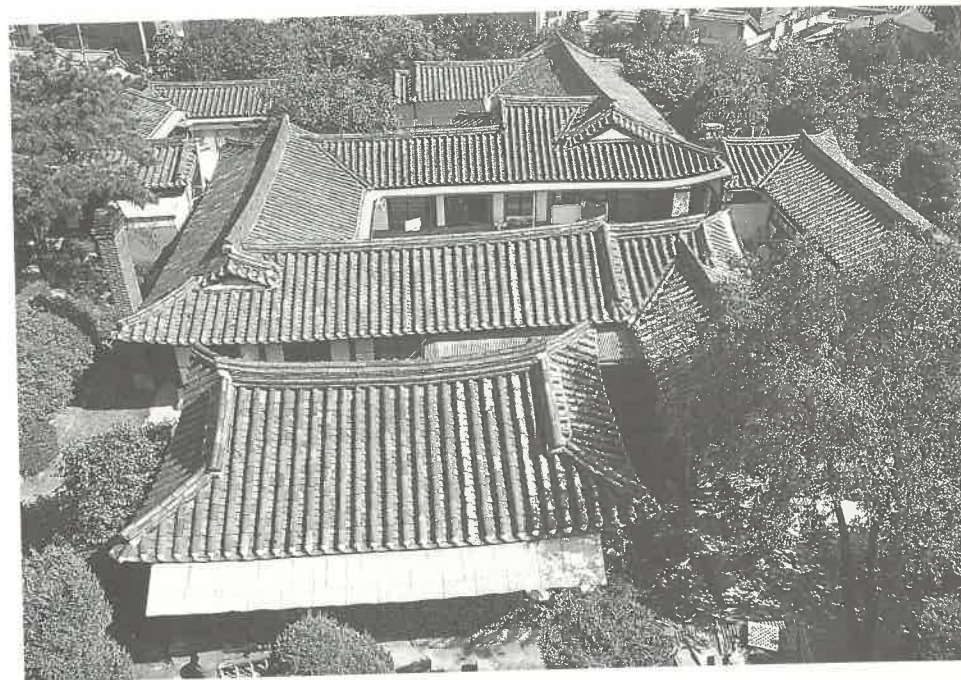
활양리는 한량리에서 와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도성 한량(間良)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현재 장위2동사무소 앞 거리를 비롯한 장위시장 일대로서 장위2동에 해당되며 1930년경에는 약 70~80호가 살았다고 한다.



옛 명덕굴



옛 활양리(한량리)



김진홍가

● 김진홍가

장위동 76의 59번지에는 서울특별시 민속자료 제25호로 지정된 김진홍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집을 남령재라 하는데 조선시대 순조의 부마인 남령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이 거쳐해서 남령위궁이라 칭하기도 했다. 현 주인 김진홍이 매입한 것으로 본래의 소유주 윤용구는 윤의선의 아들이다. 조선왕조실록 1837년(헌종 3) 8월 무오에 “덕온공주가 남령위 윤의선과 가례를 지냈다. 순조대왕의 셋째 따님이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837년에 부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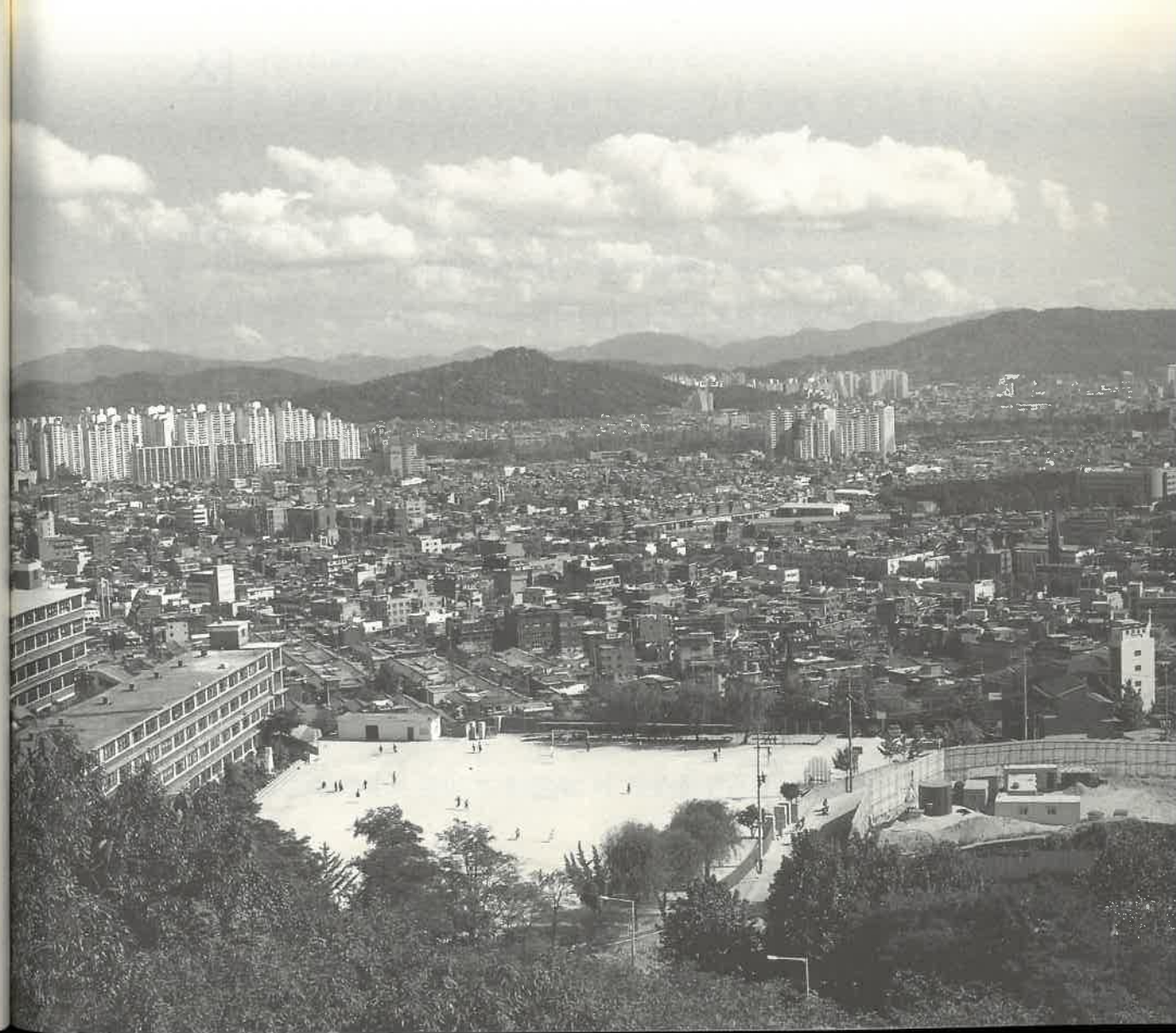
이 집은 건평 107평, 대지 795평의 한옥으로 사랑채 중앙에 ‘남령재(南寧齋)’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사랑채 대청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 상량문에 의하면 을축년에 건축했다는 것으로 보아 1865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부마도위궁을 도성 밖 이곳에 지었을까 하는 의심이 있으나, 순조의 둘째 딸 복온공주가 창령위 김병도와 가례를 치르고 장위동 북쪽 번동 93번지 현 드림랜드 일대에 부마도위궁을 짓고 산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사위들을 궁궐로부터 멀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집은 서울 지역에 남아 있는 귀중한 한옥으로 소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넓은 장방형에 가까운 대지에 안채 · 사랑채 · 안별당 · 중문간행랑채 · 별채들이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안채와 사랑채는 한 지붕으로 연속되어 건립되었다. 본래는 솟을대문간채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대문을 들어서면 두 계단 높은 곳에 자리잡은 중문간채와 사랑채의 남쪽과 동쪽을 둘러막은 담장을 바라보게 된다. 중문간행랑은 정면 7칸, 측면은 동쪽 2칸, 서쪽 4칸으로 동쪽은 사랑채와 연결되고 서쪽은 안채와 연결되어 있다. 이 건물의 공간배치에서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안마당을 ㄱ자로 꺾고 마당 내부 구석의 각실들을 들쭉날쭉하게 처리해서 큰 공간에 변화를 주었는데, 시선의 방향에 따른 공간의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안채의 뒤쪽 터에는 꽃을 심어 바라보는 화계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후원을 꾸몄다.

한양의 동쪽 경계 돌곶이능마을

석 관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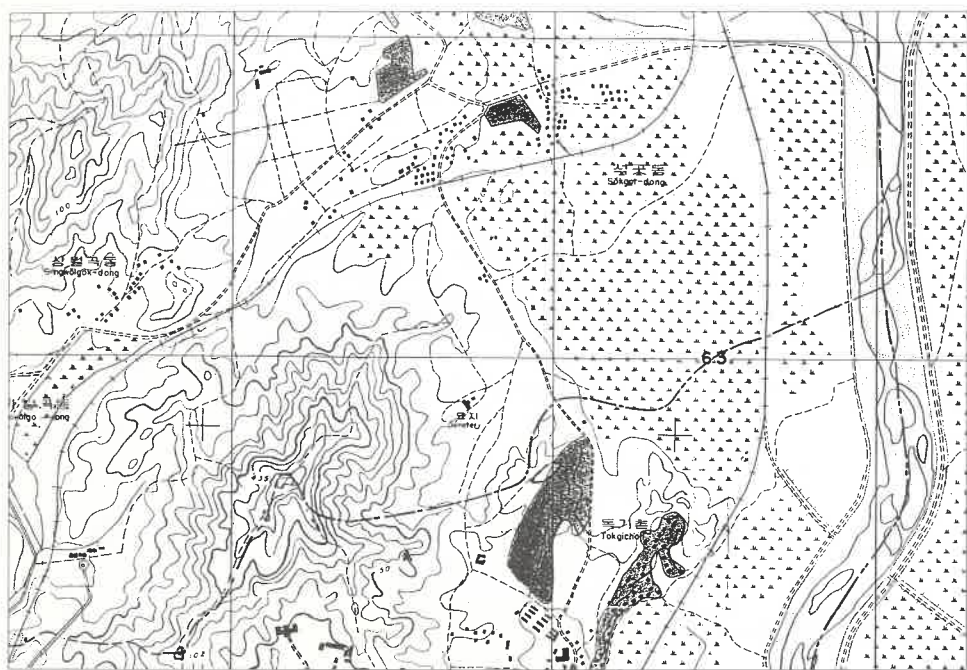
석관동의 발자취

석관동(石串洞)의 유래는 마을 동쪽에 위치한 천장산(天藏山)의 한 맥이 검정 돌을 콧아 놓은 듯, 다시 말해 수수팔떡이나 경단을 콧이에 꿰어 놓은 것 같아 돌곶이 마을이 되었다는 설과 이곳의 지형이 콧이로 되었기에 돌곶이라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석관동의 이름이 문헌 상에 처음 보이는 것은 1661년(현종 2)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영릉(寧陵)·건원릉(健元陵)·현릉(顯陵)·목릉(穆陵) 등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석관(石串: 동교(東郊)의 지명)에 이르러 금군(禁軍)의 활 솜씨를 시험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다. 1736년(영조 12)에 ‘석관현(石串峴)’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고, 1747년(영조 23)에도 지금의 동구릉과 경종의 능(의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다가 석관현(石串峴)에서 열병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목릉(穆陵)에 나아가 전알(展謁)의 예(禮)를 행하고, 이어서 건원릉(健元陵)·현릉(顯陵)·휘릉(徽陵)·승릉(崇陵)·혜릉(惠陵)을 배알하였다. 또 의릉(懿陵)을 두루 배알하고 돌아오다가 석관현(石串峴)에 이르러 호가(扈駕)하는 금군(禁軍)과 훈국(訓局)의 선상(先廂)에게 명하여 습전(習戰)을 회진(回陳)하게 하였다. 그리고 한참되어 2경에 환궁(還宮)하였다.

조선왕조 20대 경종의 능인 의릉(懿陵)이 이곳에 안치된 후 돌곶이에 능자를 붙



〈그림 1〉 석관동의 1950년대 모습. 대부분의 지역이 논밭이다.

여 돌곶이능말(마을)이라 불렀고, 돌곶이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 석관(石串)이라 하였다. 1950년대 지도에는 '석곶동'으로 표기하였음도 보인다(그림 1).

석관동의 현 위치는, 동쪽은 면목동·상봉동, 서쪽은 정릉동·미아동 일부, 남쪽은 이문동·회기동, 북쪽은 장위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왕릉(王陵)이 조성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천장산 아래에서 살았으나 왕릉이 조성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주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석관1·2동이 주택가이지만 당시는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고, 물이 맑아 살기가 좋았으며, 산 밑은 전곡과 호박의 산지였다고 한다. 1950년대에도 산 아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이 일대의 대부분이 논·밭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1960년대 이후부터 인구 집중현상으로 농업은 점점 쇠퇴하고, 현재 도로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주택가이다.

석관동은 본래 조선시대 초부터 한성부 동부 인창방의 일부로 1396년(태조 5)에 도성(都城) 및 성저(城底)를 5부 52방으로 구역 획정시 동부에 소속되었고, 1751년(영조 27)에 한성부 동부 인창방 장위리계 내에 소속되었다가 갑오개혁(1894) 때

한성부 인창방 동소문외계 석관리로 되었다.

한일합방에 따라 1910년에 한성부는 경성부가 되고, 1911년 4월 1일(경기도령 제3호) 경성부 인창면 석관리가 되었으며, 1914년 4월 1일(경기도령 제1호) 전국의 부군(府郡)을 자의로 통·폐합(경기도고시 제7호)할 때 동명과 구역을 축소·병합시켰는데 이 때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석관리가 되었다. 그리고 1936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확장에 의해 다시 경성부에 편입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식 명칭인 경성부를 서울시로 고쳤고, 1946년 9월 18일(군정법령 제106호) 서울시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시키고, 이어 10월 1일 이제껏 사용되어 온 일본식 명칭을 우리 고유명으로 개칭할 때 석관리는 고유명 그대로 하였다.

1949년 8월 13일(대통령령 제159호) 서울시로 편입되고, 성북구가 신설됨에 따라 고양군에서 성북구에 편입되고, 같은 해(대통령령 제160호) 성북구 내 송인출장소에 소속되어 이곳에서 행정을 담당했다. 1950년 3월 15일(서울시조례 제10호) 석관리는 석관동으로 개칭되었다. 1973년 6월 26일(서울특별시조례 제780호)로 송인출장소가 폐지되고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신설(대통령령 제6548호)될 때 석관동은 성북구에 편입되었다.

참고로 동장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1952년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장위동과 합쳐 장석동으로 개명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제정'으로 장석동에서 분리되어 석관동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 제7816호) 구·동의 관할구역 재편성시 석관동 일부가 동대문구 이문동에 편입되면서 축소되었다. 이것은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인구가 3만 명 이상이면 분동하고 1만 명 미만이면 폐합시켰는데, 당시 증설된 동은 44개 동이고, 폐합된 동은 22개 동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7년(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 석관동을 1·2동으로 분동하였고, 1978년 10월 10일 행정상 편의를 위해 석관동의 일부가 장위동으로 편입되었다.

석관동의 이모저모

의릉

의릉(懿陵)은 사적 제204호로 석관동 산 1~5번지에 위치한다. 이 왕릉은 쌍릉(雙陵)으로 조선 20대 왕인 경종(景宗)과 계비(繼妃)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의 능이다. 경종은 숙종(肅宗)의 장자로 1688년 당시 3세로 세자가 되었고, 1717년에 세자로서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였다. 숙종이 승하한 뒤 바로 즉위하였으나 병약해서 1720년 8월에 이복동생인 연잉군(延礽君)을 세제(世弟)로 봉하였는데 재위 4년 만인 37세에 승하하였다. 계비 선의왕후는 함원부원군(咸原府院君) 어유구(魚有龜)의 딸로 1718년(숙종 44) 15세로 세자빈이 되었고, 경종 즉위시 왕비로 진봉(進封)되었으며, 1730년(영조 6) 26세로 타계하였다.

이 능의 배치는 왕릉과 왕비릉이 앞뒤로 능역이 조성되어 각각 단릉(單陵)의 상설(象設)을 갖추었지만, 왕릉에만 곡장(曲牆)이 갖추어져 있어 쌍릉임을 나타낸다. 만약 양릉이 나란히 배치되었다면 그 중 한 능이 풍수지리상 생기왕성한 정혈에서 벗어나므로 모든 능이 정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능 석물(石物)의 양식과 배치는 작고 간소한 후릉(厚陵)의 석물제도를 택하여 숙종의 명릉(明陵)과 비슷하다. 쌍릉으로 방위 표시는 12지가 난간석주(欄干石柱)에 표시되어 있고, 현실(玄室)은 회격(灰隔), 병풍석(屏風石)은 없다.

1831년(순조 31) 8월 4일 이곳 의릉 좌강(左岡)에 익종(翼宗)의 능인 수릉(綏陵)을 안치했다가 1855년(철종 6)에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동구릉)로 이전시켰다.



의릉

도당

도당(都堂)은 석관동 340번지에 위치한다. 약 5~6평의 당내에 신주(神主) 대신 향아리에 벼를 가득 넣고 짚으로 땅은 주저리로 덮어 놓았으므로 주신(主神)이 여신이었고, 이 마을의 주업이 농업으로서 풍농을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 유래의 시발점은 알 수 없으나 이 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수호신(守護神)으로 숭배되어 오고 있다.

주민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도당신(都堂神) 양주분이 있는데 중화동 봉화산신은 도당 할아버지이고, 천장산신은 도당 할머니라고 한다. 석관동에서는 도당 할머니를 모신다. 원래 의릉이 조성되기 전에는 천장산 아래에 있었으므로 산신으로서 이 동네 수호신으로 모시다가 의릉이 들어오자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현 위치에 이전해 와 동신(洞神)으로 받든 것이라고 한다. 주신의 호칭은 도당 할머니이고 축문의 표기는 토지지신(土地之神)으로 되어 있다.

이 마을 당제(堂祭)에는 제관(祭官) 선정이 있다. 석관 12동 중 약 150세대가 이당을 모시는데 원래는 제관 3명, 주비 4명 등 7명을 선출했으나 선출시 어려움이 많

아 1980년부터는 도가(都家) 1명, 소임 2명, 주비 2명 등 5명으로 줄여 선출했다.

먼저 제관 선출방법은 제일(祭日) 10일 전에 선출하는데 지정된 대상자와 그 날의 일진(日辰)과 생기복덕(生氣福德)이 맞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집안에 부정(不淨: 해산이나 초상 등)이 있으면 선출되지 못했다. 제일은 매년 10월 초하루 일몰(오후 5시~7시)이 되면 행한다. 선출된 제관은 그 날부터 출입을 삼가고 매일 목욕제계를 하며 심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리고 당 주위에는 원새끼줄에 창호지를 끼워 주위에 두르고 출입을 금한다. 원래 천장산에서 받들 때에는 산 길목에 금줄을 쳐 출입을 금지했으며, 산 중턱에서 솟아나는 천연수로 음식을 만들었다. 제의 절차는 분향재배(焚香再拜)·축(祝)·소지(燒紙) 순이다. 소지의 내용은 처음에는 마을 전체·제관·마을 존로(尊老) 순, 즉 유교식 제의(祭儀)로 진행된다.

상차림은 황우·수탉·삼색과실(대추·밤·감)·제주(祭酒)·콩·팥·소적·시루떡(백미 4두 5승)·백설기(5승)·건대구·후추 등이다. 특히 황우는 솟놈이어야 하고 시장에서 소를 살 때 제관은 직접 흥정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흥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나 닭을 솟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동신(洞神)이 여신임을 알 수 있다. 제주를 빚는 데는 두 개의 큰 항아리를 마련하고 한 항아리에는 벼를 넣고 다른 항아리에는 누룩을 빚어 넣은 다음 당내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제주를 마련한다. 이 모든 제수(祭需)는 도가에서 준비한다. 제수 중에서 쇠고기는 꼬치로 만들어 준비하는데 내장·껍질 모두 따로 떼어 150개를 만들고 쪼개로 엮어 제관 5명이 집집마다 돌리며, 집에서는 제수를 받기 위해 깨끗한 쟁반을 준비한다. 제비(祭費)는 우선 도가에서 모두 준비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 동민이 공동부담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하여 학자·교육자나 예술가의 구별이 없는 교육과정으로 평범한 예술 인력을 양산해 왔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예술교육에 대한 반성과 자각으로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예술학교로 탄생한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다. 문화부가 예술계와 교육계의 염원에 부응하여 새로운 교육 방법, 세계 정상급의 교수진,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춘 실기 전문 교육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음악원·연극원·무용원·미술원·전통예술원 등을 두고 있는데 하

나하나의 원이 외국의 전문학교들과 같은 독립된 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6개원은 각자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닌 독립된 분야의 교육기관이지만 예술이라는 공동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그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게 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守城崙音』
『戶口總數』
『漢京識略』
『京都雜志』
『東國輿地備考』
『六典條例』
『大東地志』
『輿地圖』 『都城圖』 『古地圖帖』 『首善全圖』 『漢陽都城圖』 등 고지도.
『地番區劃入大京城全圖』(1936) 등 일제시기 지도.
朝鮮總督府, 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越智唯七編纂,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京城府, 1936, 『京城府史』.
白南信, 1955, 『서울大觀』, 政治新聞社刊.
한글학회, 1966, 『한국지명총람』 I (서울편).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83, 『洞名沿革攷』.
孫禎陸, 1990, 『日帝强占期 都市計劃研究』, 一志社.
서울特別市 城北區, 1993, 『城北區誌』.
許英桓, 1994, 『定都 600年 서울地圖』, 汎友社.
이혜은 외, 1994, 『서울의 景觀變化』,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李燦·楊普景, 1995, 『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한국문원편집실, 1995, 『문화유산-왕릉』, 한국문원.
이정, 1996, 『한국불교사찰사전』, 불교시대사.
성북문화원, 1997, 『성북의 문화재』.

집필 : 양 보 경(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감수 : 박 경 룡(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구간사)

향토성북 제2호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발 행 일 : 1998. 12. 30.

발 행 처 : 성북문화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번지

☎ 765-1611 · Fax. 765-1619

편집·제작 : 금운한편집

☎ 719-1035~6